

시간이 그린 무늬
울주





WORN WHEN IT COUNTS

최고의 순간, 완벽한 선택

Christine Feleki & Joey Vosburgh
Ktunaxa | Sinixt Territory
Selkirk Mountains, British Columbia
Photo: Ange Percival



ARC'TERYX



표지 이야기

울산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

2025년 7월 12일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울산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까지 약 3킬로미터를 아우르는 구간에 아득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간절곶에 떠오른 해가 절벽 깊숙한 곳을 비추면
바위의 오묘한 색과 무늬가 모습을 드러낸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인류가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 그 먼 시간의 흔적이 여기 오롯하다.



이달의 여행
066 시간이 그린 무늬
울주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선사인의 암각화,
거대한 공룡 발자국이 들려주는 옛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지구의 긴 여정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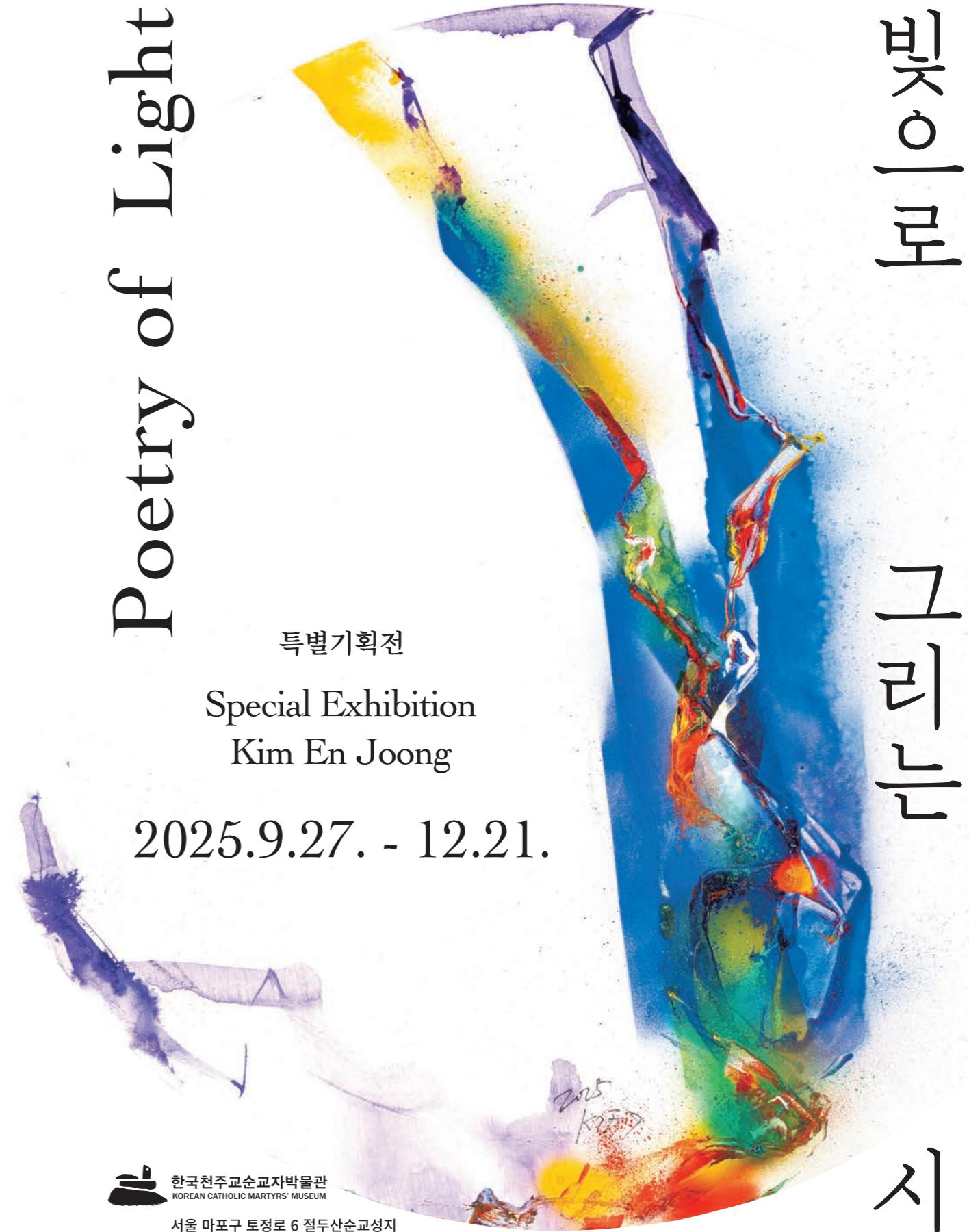
Poetry of Light

특별기획전

Special Exhibition

Kim En Joong

2025.9.27. - 12.21.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KOREAN CATHOLIC MARTYRS' MUSEUM
서울 마포구 토정로 6 절두산순교성지
www.jeoldusan.or.kr

빛이
그린

시

018 듣는 여행

바람이 바다를 일으킬 때

울산 울주의 간절곶 앞바다에서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소리를 담았다.

020 촬영지 여행

가파른 운명

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 속 '무창 몰디브'를 전북 부안의 적벽강, 채석강 일원에서 촬영했다.

022 여행자의 방

로맨틱 겨울 여행의 정석, 흄 마리나 속초

황홀한 야경의 루프톱 온수풀을 갖춘 강원도 속초의 신상 호텔을 찾았다.

026 한국의 맛

행운을 가져다주는 베개

한국 전통 수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강금성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027 한국의 맛

인내의 달콤함

영롱하게 익어 가는 곶감은 추위도 기다려지게 한다.

030 전국 행사 달력

12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고 듣기 좋은 개성 만점 행사를 모았다.

086 여행의 발견

겨울 강릉의 낭만

안반데기와 정동진역, 강릉시립미술관 등 강원도 강릉으로 겨울 여행을 떠났다.

106 시절, 풍경

초겨울의 투명함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기 전, 초겨울의 투명한 빛을 카메라에 담았다.



BOOK
in
BOOK 1

이토록 즐거운 마을 여행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BETTER里 사업에
선정된 기업 29곳을 조명했다.



BOOK
in
BOOK 2

made in JEONJU 전주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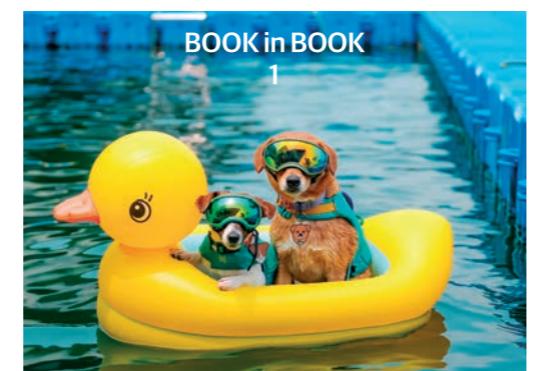
전북 전주에서 도시의 정서와 서사를 품은 공간
그리고 사람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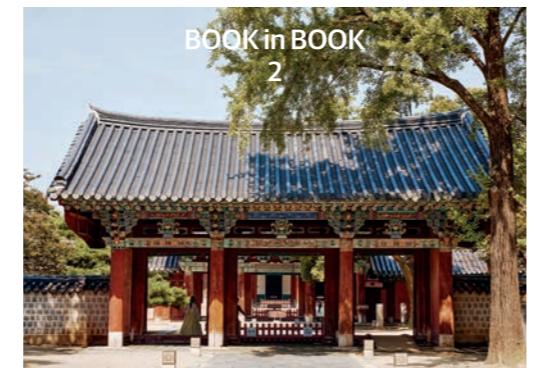
086



027



BOOK
in
BOOK 1



BOOK
in
BOOK 2

004

그날의 용기와 희생, 오늘의 빛으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2026년 2월 개관

“남도에서 피어난 의병의 혼
이제 우리 모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전남 나주시 공산면 의병박물관길 1
 061)286-7081~4, 7091~3



112 인터뷰

샛길 유랑, 여행가 박성호

여행에서 만난 낯선 동물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는 여행가 박성호를 대면했다.

118 전시 보러 갑니다

이불의 세계

한국 현대미술가 이불의 개인전 <이불: 1998년 이후>와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봤다.

126 함께 여행

손끝으로 기억할 장면

어번 스케쳐 정연석 작가와 서울 성북동으로 짧은 드로잉 여행을 나섰다.

134 테마가 있는 골목 탐험

널 위해 준비했어

연말을 맞아 고마운 이에게 마음을 전할 서울의 특색 있는 선물 가게를 찾았다.

140 KTX타기 1시간 전

걸음걸음 수원 한 입

경기도 수원 여행에 감성 한 스푼 더해 주는 카페와 레스토랑, 바를 방문했다.

162 트렌드읽기

여성들의 강력한 케미, 워맨스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를 담은 워맨스가 장르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164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12월의 소식

계절의 감성을 따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줄 콘텐츠를 선별했다.

176 플레이리스트

전진희와 떠나는 음악 여행

싱어송라이터 겸 피아니스트 전진희가 연말에 어울리는 포근한 선율을 추천했다.

168 코레일소식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72 열차 이용 안내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Layers of Color, Breath of Stroke

김선도

색의결, 획의숨

Kim Sun Doo Solo Exhibition - November 18, 2018

Ink on Korean Paper (hanggi) 138x180cm

2025.12.23.
- 2026.3.22.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해뜨는 시각 07:31

2025년 12월호



제22권 제12호 통권 제258호
2025년 12월 1일 발행

발행인 정정래(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종로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고아라 kar@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박진명 오유리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의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2026 간절곶 해맞이

2025. 12. 31. - 2026. 1. 1.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웃으며 돌진하는 자의 꽃꽃함

지난달,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룻밤 편히 묵을 숙소와 휴대폰 가득 저장한 맷집 리스트,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죠. 느긋하게 먹고 마시고 걷기도 하며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 한 군데 더 가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빨간 머리 앤>을 콘셉트로 한 카페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곧장 양양으로 내달려 물치해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전면이 통유리창으로 된 대형 카페 2층에 오르자 물치항과 물치해수욕장이 한 화면에 펼쳐지고, 추위도 아랑곳없이 파도를 타는 서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를 향해 돌진하고 가까스로 보드에 몸을 실었다가 휘청하는 순간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은, 그러나 말거나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했고, 조금씩 더 먼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홀린 듯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거나 하염없이 빗소리를 들을 때처럼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해수욕장 가까이 가자 이젠 서퍼들의 표정이 자세히 보였습니다. 파도와 맞서는 이들 중 누구도 심각한 표정인 이가 없더군요.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덩달아 저도 미소가 지어졌죠. 삶도 서핑과 같지 않을까. 순간 정육면체였던 마음의 모서리가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퍼가 파도에 몸을 던지듯 ‘올 테면 와 봐라’ 하는 당돌함으로 세상과 맞서면 오히려 뾰족했던 마음이 둥글어지고, 어느새 공처럼 매끈해져 한 발짝 더 면 곳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예측 불가한 순간을 100퍼센트로 살아 내는 서퍼들의 꽃꽃함이야말로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달 <KTX매거진>은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기 좋은 곳들과 삶에 영감을 주는 분들을 두루 소개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울주의 간절곶을 찾아가 수평선 위로 블게 떠 오르는 태양을 카메라에 담았고, 강원도 강릉에서는 해발 1100미터 안반데기에 올라 고랭지 배추밭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세심히 기록했습니다. 건축가이자 도시 여행자이며 어번 스케치인 정연석 작가와 서울 성북동을 걸으며 오래된 마을의 정취를 스케치북에 담았고, 샛길을 유랑하는 카이스트 출신 여행가 박성호 작가를 만나 자신의 선택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이의 패기와 자유를 엿보았습니다. 산타의 비밀 창고 같은 소품숍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리빌드 의류 편집숍 등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이 가득한 습을 찾았고, 연말에 데이트하기 좋은 곳으로 경기도 수원역 부근의 카페와 레스토랑을 소개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전시로 <이불: 1998년 이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규정되고 싶지 않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이불의 현란하고 모호하며, 아름답지만 공포스러운 작품 세계가 여러분을 낚아채듯 빨아들일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아주 먼 옛날, 수능 시험을 보고 온 저에게 엄마가 해 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수식도 부연도 없는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리 서럽도록 마음을 울리던지, 코끝이 시큰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왈칵하고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말의 의미와 밀도를 알기에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꼭꼭 눌러 한 마디씩,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쏠비치 남해’ 오픈기념 회원모집

SONOROUS

대한민국 20개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NOBLIAN BLACK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 혜택 중 하나의 회원이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워터파크&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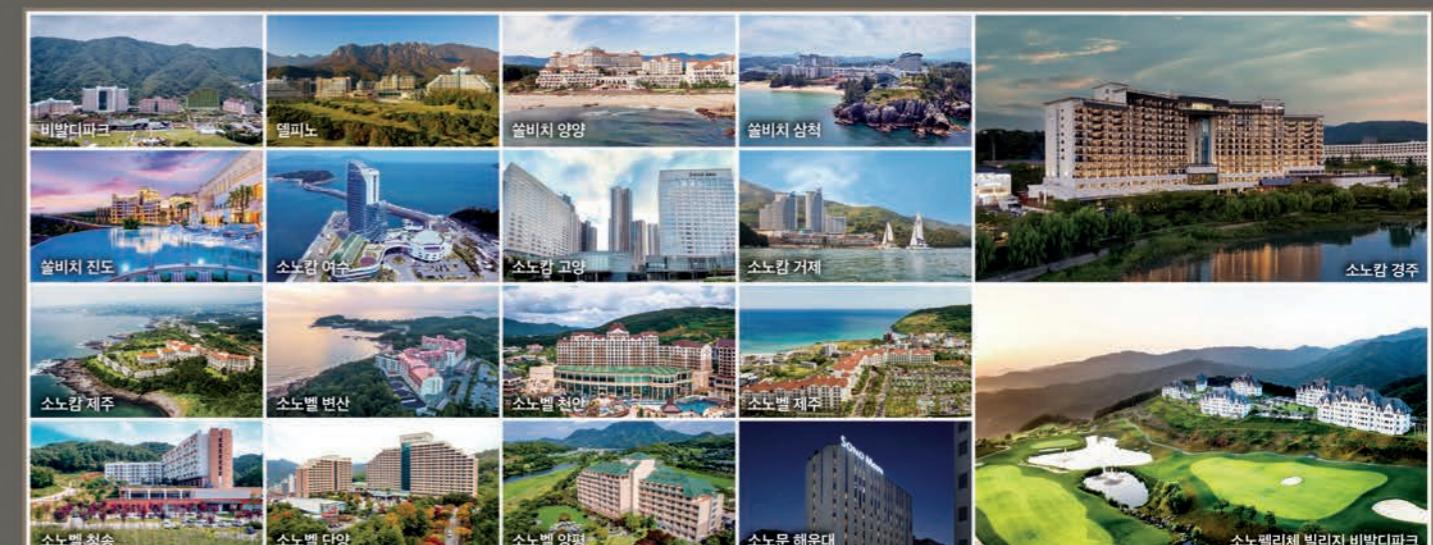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0%(A상품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2025년 쏠비치 남해 그랜드 오픈에 이어, 지난 9월 ‘소노캄 경주’가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멤버십은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 쏠비치 남해 2025년 7월 5일 그랜드오픈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세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일주일 동안 광명, 대구, 부산, 경주, 울산을 오가며 <KTX매거진>을 여러 번 만났다. 여행이든 일상이든, 설레는 순간마다 함께하고 이동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동반자다.
#KTX매거진 #출장 #출근길 #워라밸

@ktxmagaz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경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친구들과 가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잡지를 봤다. '시절, 풍경' 속 사진 한 장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계절의 자국'이라는 제목도, 사진을 설명하는 글도 시처럼 느껴졌다. 활영 장소인 전남 구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 인젠가가 보고 싶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12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12월 11일까지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찬 바람이 불 때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문득 그리워진다. 제사를 지내려 포함으로 가는 동안 기차에서 잡지를 읽으며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얻었다.
#포항역 #기차 #KTX매거진 #겨울바람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리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로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대표원장 조찬호

명예원장 이시형

“젊음은 세포에서, 행복은 뇌에서 온다” 줄기세포와 세로토닌으로 풀어낸 몸과 마음의 회복학

청담셀의원 조찬호 원장, 이시형 박사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무엇일까. 청담셀의원의 조찬호 원장과 이시형 박사를 만나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물었다.

몸이 젊고 건강하려면 신체적 요소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관리해야 한다. 마음이 편안해야 얼굴에 생기가 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청담셀의원이다.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항노화 치료에 집중하는 조찬호 원장과 '국민 건강 주치의' 이시형 박사는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찾아 준다. 조 원장은 특히 '헬스케어 디자인'을 표방하며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 처방으로 젊음을 관리해 주는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이시형 박사는 현재 청담셀의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다.

포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노화 징후를 늦추는 게 더 효율적이다. 세로토닌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세포 재생력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젊음을 설계하는 길입니다.

청담셀의원이 지향하는 '헬스케어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조찬호 원장** 건강검진 결과와 기능 의학 검진, 유전자 검사까지 종합해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건강 패턴을 디자인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전신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피부 개선 '미셀(美Cell)', 탈모 치료 '모셀(毛Cell)', 성기능 개선 '성셀(性Cell)', 통증을 관리하는 '활셀(活Cell)'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시형 박사** 요즘은 외적인 젊음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피부가 팽팽하고 체력이 좋아도 마음이 병들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신체 회복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서로의 거울이에요. 줄기세포가 몸을 되살리고, 세로토닌이 마음을 되살리는 거죠.

두 분이 함께 그리는 '젊음의 철학'이 있다면요? **조찬호 원장** 젊음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회복력과 마음의 평온함이 동시에 유지될 때 진정한 프리쥬비네이션입니다. **이시형 박사** 결국 건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 몸을 돌보는 일, 내 마음을 살피는 일, 둘 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죠. 저는 이제 의학이 기술을 넘어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웰에이징입니다.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 13첩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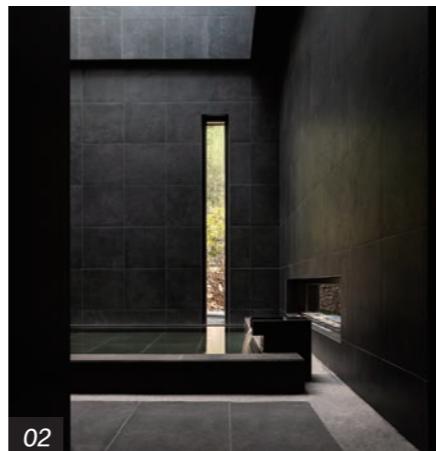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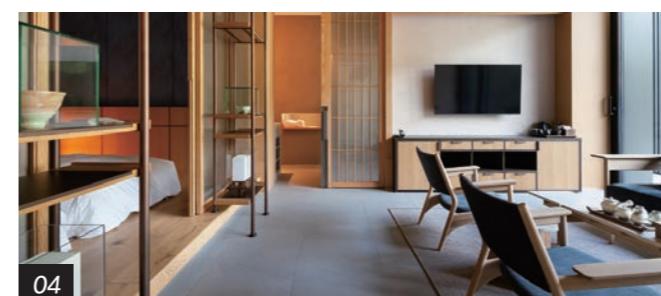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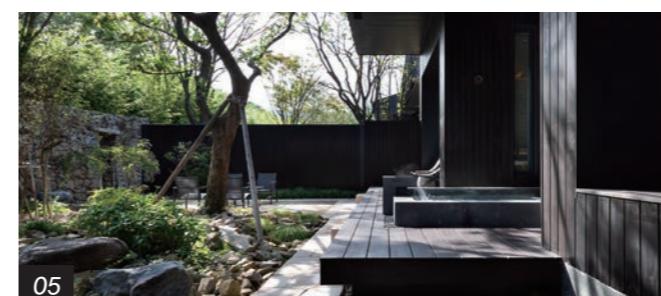
02



04



05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홈 마리나 속초



<KTX매거진>이 한국 철도 131주년 기념 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과 '홈 마리나 속초' 이용권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 ①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ktxmagazine) 접속
- ② 프로필 링크 중 이벤트 링크 클릭
- ③ 설문 조사 참여하기

선물

- ① 당첨자 131명에게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 제공
- ② 당첨자 131명 중 1명에겐 '**홈 마리나 속초' 그랜드 디럭스 객실 1박 + 2인 조식 + 2인 수영장 이용권**' 제공

참여기간

2025년 12월 1일~20일(20일간)

당첨자 발표

2025년 12월 29일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지금 바로
행운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한 전기
사용입니다!



겨울철 안전한 전기 사용 방법




최근 3년간(2022~2024년) 월별 화재 현황

월	화재 건수
1월	11,126
2월	10,504
3월	11,494
4월	10,059
5월	10,463
6월	9,096
7월	8,434
8월	9,053
9월	8,087
10월	8,483
11월	9,158
12월	10,624

1

**난방용품의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전선이 물건에 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전기장판이나 난로를 사용할 때는
KS 인증을 확인하고,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뽑아 둔다.

4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5

전기제품의 파손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리 또는
교체 후 사용한다.

6

**전기히터 등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한다.



바람이 바다를 일으킬 때

기운차게 달려오던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새하얀 폭죽을 터뜨린다.
울산 울주의 간절곶 앞바다에 한바탕 축제가 벌어진다.

QR코드를 찍으면 울산 울주의 간절곶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파도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운명

어릴 때부터 온갖 시련을 겪은 영란은 조건 없이 자신을 믿어 주는 사람들 덕에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 거친 바람과 파도에 깎여 하나의 예술품이 된 절벽 아래에서 사랑도 확인한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경호원이 재벌 회장의 복수를 돋는 조건으로 계약 결혼을 한다. 김영란에서 부세미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주인공 역할을 배우 전여빈이 맡았다.



가성그룹 가영호 회장의 경호원으로 일하게 된 영란은 가 회장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과 결혼해 유산을 상속받고 복수를 도와 달라는 것. 신용불량자인 엄마의 빚 5억 원을 갚아야 하는 영란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인다. 계약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예상보다 빨리 가 회장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영란은 서둘러 무창 미을로 몸을 피한다. 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 3개월간 이곳에서 명문대 출신 유치원 교사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드라마 제목처럼 '착한 여자 부세미'가 탄생한다. 이선 유치원의 체육 교사이자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동민은 영란의 정체를 눈치챈 후에도 대가 없이 비밀을 지켜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무창을 떠나려는 영란을 바닷가에 데려가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 '무창의 몰디브'라고 소개한 이곳은 전북 부안의 채석강, 적벽강 일원이다. 둘은 계약 결혼이 끝난 뒤 전보다 밝은 표정으로 다시 바닷가를 찾는다. "딸기가 온도와 습도 모든 거에 참 예민해요. 근데 이 비닐하우스가 딱 버티고 서서 비, 바람, 추위 대신 다 막아 주거든요." 영란에겐 동민처럼 비닐하우스 같은 아빠가 되어 주겠다는 보호자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해 왔다.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깎여 신비로운 모습으로 완성된 해안 절벽처럼, 영란도 돌부리에 넘어지기를 거듭한 후에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얻었다.

© ENA



신한금융그룹,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 10회 수상… 명예의 전당 등재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을 10회 수상하며 KRCA 명예의 전당에 공식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KRCA는 한국표준협회가 국제 지속 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GRI 등)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신한금융그룹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10회 수상하며 국내 금융권 ESG 보고의 선도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시상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발간한 507개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대상으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의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는 정량성과 스토리텔링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2005년부터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차별화된 내용의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준을 빠르게 반영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성과 공개와 이사회 중심의 ESG 거버넌스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GRI, ISSB 등 주요 국제 공시 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ESG 정보의 신뢰성과 심층성을 높였다. 그룹 내 14개 기관의 ESG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통해 주요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ESG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결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사회 내 ESG 위원회가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구조를 갖추어 ESG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본 보고서, 하이라이트, 스페셜 리포트, 데이터 팩 등 다양

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쉽게 ESG 전략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처럼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글로벌 기준 준수, 데이터 투명성, 거버넌스 체계 등에서 국내외 금융권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한금융그룹은 ESG 경영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누적 30조 원 규모의 친환경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18.7조 원을 달성했으며, RE100 가입을 통해 2040년까지 그룹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은 청년, 한부모 가족,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대표적 상생 모델인 'Value-Up(Bring-Up, Find-Up, Help-Up)' 프로젝트 등 다양한 포용·상생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해 2024년에는 봉사 활동 시간이 9만 7894시간에 달했으며 기부 참여율은 64.1%를 기록했다. 아울러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 '신한 아껴요 Day', 산림청과 협력한 숲 정원 조성, 도심 하천 생태계 보호, 아동 대상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생물다양성 꿈나무 프렌즈' 등 ESG 캠페인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의 ESG를 위한 노력이 KRCA 10회 수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ESG 경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 금융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로맨틱 겨울 여행의 정석 홈 마리나 속초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객실과
정성 가득한 조식, 황홀한 야경의
루프톱 온수풀까지. 특별한 겨울 여행을
꿈꾼다면 흄 마리나 속초가 정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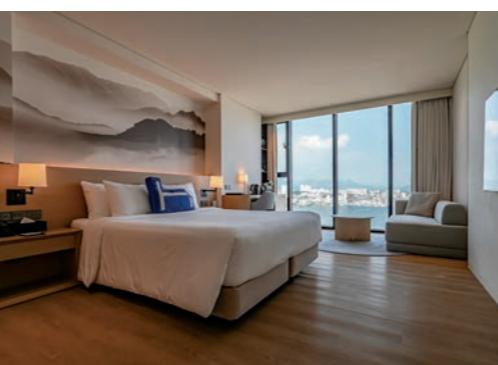


강원도 속초에 자리한 흄 마리나 속초는 반얀그룹이 지난해 6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흄(Homm) 브랜드 호텔이다. 집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여행자의 공간이 콘셉트로, 아로마 향이 은은한 로비부터 투숙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단 하루만 묵어도 '홈 마리나 속초가 내 집이었으면' 할 정도. 탁월한 입지와 전망, 수준 높은 시설과 음식, 특별한 쉼의 공간까지, 여행자가 호텔에 기대하는 조건을 두루 갖췄다.

속초 도심 동해대로에 자리한 입지부터 특별하다. 대형 마트와 고속버스 터미널, 유명 식당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청초호와 속초해수욕장도 걸어서 15분이면 달아 호텔에서 여행지를 오가기가 쉽다. 객실에서 설악산과 청초호, 속초해수욕장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것도 흄 마리나 속초에 머물고 싶은 이유 중 하나다. 부드러운 곡선형 인테리어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쾌적한 침구와 반얀트리에 센셜 어메니티 등 반얀그룹의 명성과 자부심이 담긴 요소를 객실 곳곳에서 마주하게 된다. 객실 수는 총 150개. 5층부터 20층까지 16개 층에 걸쳐 디럭스, 그랜드 디럭스, 패밀리 디럭스, 프리미어 시티 뷰, 주니어 스위트, 흄 스위트 등 8개 타입의 객실이 자리한다. 최상위 타입인 흄 스위트에는 2개의 킹 사이즈 침대와 대형 소파, 다이닝 공간, 욕조 등이 갖춰져 있다.

식음 공간에서도 세심한 정성과 배려가 엿보인다.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설악비 스트로(Seorak Bistro)에서는 르 고르동 블루 출신 셰프가 제철 식재료로 만든 조식 뷔페와 고품격 디너를 선보이고, 2층 프린트에는 H2O 스테이션을 설치해 언제든지 물이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 호텔 최상층인 21층에도 흄 마리나 속초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사계절 야외 온수풀이다. 최고 42도까지 온도를 유지하며 청초호와 속초해수욕장, 속초 도심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진다. 바로 옆에 자리한 루프톱 바 스카이21(SKY21)에서는 맥주나 와인 그리고 피자, 버거, 해물라면 등을 즐길 수 있다. 코끝 시린 겨울날, 튜브에 몸을 누인 채 따스한 물 위를 둉둥 떠다니는 경험은 누구라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소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14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개최

지속가능성 측정, 이해관계자 참여가 핵심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수상 1위 기업(관)

산업명 가나다순

산업(부문)	기업명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생활용품	유한킴벌리
시멘트	쌍용C&E
음료	롯데칠성음료
제약	유한양행
지주회사(금융)	KB금융지주
타이어	금호타이어
할인점	롯데마트
호텔	호텔롯데 롯데호텔앤리조트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수상 우수기업

기업명 가나다순

부문	기업명
금융	KB금융그룹
	KB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제조	KCC
	금호타이어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조광페인트
	한샘
지주	SK주식회사
서비스	KT
	네이버
공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최초 발간	동아오츠카

이해관계자가 선정한 올해의 이슈, '지속 가능한 방식의 자원 이용'

한국표준협회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 대규모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조사를 이어 오고 있다. KS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인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및 33개 하위 이슈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 및 기업(관)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조사하는 모델이다.

올해는 50개 산업, 213개 기업(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KSI 조사를 시행했다. 1차 조사로 50개 산업 각각의 중요 이슈를 선정한 결과, ▲지속 가능한 방식의 자원 이용 ▲부패 리스크 식별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근로 조건 개선 및 사회적 보호 ▲대기/물 오염 예방 및 폐기물 관리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가 전 산업에 걸쳐 상위 5개 중요 이슈로 선정되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방식의 자원 이용은 전체 조사 대상 50개 산업 중 34개 산업에서 중요 이슈로 꼽혀, 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KRCA 조사대상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건수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

공시 요구에 기업들 적극적 대응 나서

한국표준협회는 2008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 (KRCA)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KRCA는 대규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인 GRI의 8대 보고 원칙 ▲정확성 ▲균형 ▲명확성 ▲비교 가능성 ▲완전성 ▲지속가능성 맥락 ▲적시성 ▲검증 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 품질을 조사하는 모델로, 해당 기간 국내 기업(관)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올해 KRCA 조사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국내 기업(관)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 507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9165표본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했다. 연간 조사대상 보고서 발간 건수 변화를 살펴보면 2024 KRCA 조사대상 보고서(총 415개) 대비 92개(약 22.3%) 증가했는데, 전년 증가율인 약 14.6%에 비해 증가 추세가 큰 폭으로 가팔라진 셈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장 여부나 산업 구분에 관계없이 공시 건수가 모두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상장사는 전년 대비 57개(약 19.7%), 비상장사 또한 전년 대비 35개(27.7%)로 전체적으로 예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산업별로도 제조업의 보고서 수가 전년 대비 36개(약 27.0%), 금융 포함 서비스업의 보고서 수가 42개(30.2%)로 모두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5년 KRCA 조사 결과 총 16개의 보고서가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보고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10회째 우수보고서 발간 기업으로 선정되며 명예의 전당에 현정되었다.



With Us, Save the Earth 함께해요, 지속가능한 세상!



KSI 수상기업(관)

KSI(Korean Sustainability Index,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는
기업의 고객, 협력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Since 2009)



KRCA 수상기업(관)

KRCA(Korean Readers' Choice Awards,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는
ESG 성과를 공시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중 독자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보고서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Since 2008)





행운을 가져다주는 베개

색색의 원단 조각을 모아 바람개비 모양으로 이어 붙인 목베개는 강금성 작가의 빈컬렉션 작품이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듯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옷과 이불을 손수 짓는 외할머니를 보고자란 작가는 한국의 전통 수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바람개비 목베개를 만들었다. 작품은 빈컬렉션 갤러리 쇼룸에서 관람 및 구매할 수 있다.



인내의 달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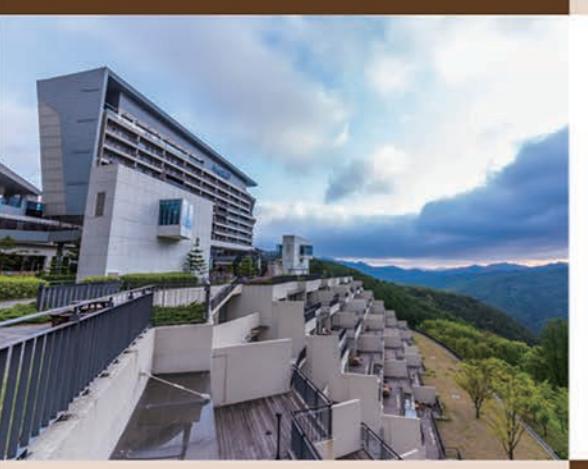
서리가 내리는 절기인 상강(霜降)에 감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추운 겨울날 먹거리가 변변찮았던 시절에 훌륭한 영양 간식이었다. 처마 아래 매달려 영롱하게 익어 가는 곶감을 보고 있노라면 매서운 추위마저 기다려진다. 자리적표시 임산물 제12호에 등록된 상주 곶감은 온난한 기후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특히 맛이 좋다. 매년 1월 경북 상주에선 곶감 축제가 열린다.

공간의 품격을 완성하는 안마의자

REAL PRO MAL1



MAL1 구매 고객 특별 혜택



하이원 1박 숙박권 증정 (조식 2인 포함)

- **객실타입 :** 마운틴콘도 / 힐콘도 30, 35평형
- **조식 이용권 :** 2매
- **유효기간 :** ~ 2026년 2월 28일까지(토)
체크인 시 이용권을 프론트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소진 시 종료

Panasonic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절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 상담실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panasonic.co.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본점 (02)542-8452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1-8452 | 파나소닉 즘인프라자 (051)255-0222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 금호월드 (062)350-8397 | 롯데 백화점 본점 | 롯데 백화점 잠실 | 롯데 백화점 강남 | 롯데 백화점 일산 | 롯데 백화점 센텀 | 롯데 백화점 대전 | 롯데 백화점 광주 | 롯데 백화점 인천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 현대 백화점 목동 | 현대 백화점 판교 | 현대 백화점 여의도 | 현대 백화점 대구 | 현대 백화점 중동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 신세계 백화점 본점 | 신세계 백화점 강남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 신세계 백화점 대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 신세계 백화점 대전



모던한 디자인과 초정밀 마사지 구현
파나소닉 안마의자로 공간의 품격을 높이다
REAL PRO MAL1



1. 부드럽고 모던한 큐브 스타일

부드러운 색감과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의 소재, 큐브 스타일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인테리어 완성

2. REAL PRO AI

AI로 어깨 위치를 정밀하게 감지하고 6136개의 포인트에서 마사지 부위를 선택, 전문 마사지사의 손길과 같은 경험 제공

3. REAL PRO 3D 독립 메커니즘

확장된 SJ 프레임과 약 22퍼센트 향상된 마사지 볼 이동 거리로 온몸의 곡선을 따라 세심한 마사지 구현

4. 직관적이고 안전한 작동

간편한 터치스크린과 오작동 방지 프로그램, 자동 코스 설정, 마사지 위치 센서 조정 등으로 편리함 제공

5. 편안한 휴식과 편리한 기능

160도 전동 리클라이닝과 다리 받침대, 블루투스 스피커, USB 충전 포트, 카스퍼 장착으로 최상의 편안함 제공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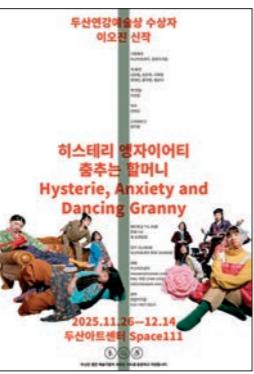


© 흐름이기

<히스테리 앵자이어티 춤추는 할머니>

서울 11.26~12.14

여성 배우 여섯 명이 모여 불안과 화, 가난에 대해 자기 서사를 쓰고 창작에 참여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춤추는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부정적인 감정을 춤과 노래로 표현했다. 연극 1막에서는 오늘을 살아내는 여자들이 본인의 역사와 소소한 삶의 비기를 말하고, 2막에서는 생활동반자법과 사회적 가족법이 법제화된 근미래를 냉소적으로 상상해 본다. 음악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단편선이 작곡을 맡아 여러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곡을 선보인다.



장소 서울 두산아트센터 문의 02-708-5001



© 쥬컴퍼니 엔터

<비하인드 더 문>

서울 11.11~2026.02.08

인류 최초의 유인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세 명의 우주인 중 마이클 콜린스에 주목해 일인극으로 풀어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착륙하고 온 세계가 그들을 지켜볼 때, 사령선 조종을 위해 홀로 남았던 그는 '아담 아래 가장 고독한 남자'로도 불렸다. 아무도 보지 못한 달 뒤편을 최초로 목격한 마이클 콜린스의 이야기를 담은 이 뮤지컬은 한 사람의 꿈과 사랑, 그리고 침묵 속에 빛났던 삶의 궤적을 아름답게 그려 내 깊은 울림을 전한다. 배우 고상호, 유준상, 고훈정, 정문성이 출연한다.



장소 서울 총무아트센터 문의 02-6464-0965



© 힐튼서울

<힐튼서울 자서전>

서울 09.25~2026.01.04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작 중 하나인 힐튼서울을 조명한다. 힐튼서울은 1983년 완공 이후 40년간 남산 자락을 지켜 왔으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부진과 양동지구 재개발 계획으로 2022년 영업을 종료했다. 철거 과정에서 포착된 풍경과 회수한 자재, 3D 스캔을 비롯한 디지털 기록 등 다양한 작품이 사라진 현장의 기억을 소환한다. 호텔 폐장으로 방치되었던 크리스마스 자선 열차도 복원돼 전시 기간 내내 달린다.

장소 서울 피크닉 문의 02-318-3233



© 서울시

<따뜻함이 필요한 날>

서울 11.01~12.28

전이수 작가는 여덟 살 때 그림책 <꼬마악어 타코>를 출간한 이후 TV 프로그램 <영재 발굴단> 등에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넓혔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만의 시선으로 가족 간의 사랑, 자연보호,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의식 등 폭넓은 주제로 창작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2018년에 그린 작품부터 올해 완성한 신작까지 사랑을 주제로 엮은 작업물 31점을 공개한다. 작품 관련 글 18편도 함께 배치한다.

장소 서울 NC문화재단 문의 070-8065-3837



© 한글의학박물관

<EXHIBITION>**<어제의 조각은 내일의 회화>**

음성, 서울 11.04~2026.02.22

한독의약박물관이 이은우, 유수진 작가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억되는지를 조망한다. 충북 음성에 있는 전시관에서는 물과 만나면 빠르게 굳는 재료인 폴리우레탄 수지를 사용한 부조 작업 'Flux' 시리즈를 포함해 이은우 작가의 작품 23점이 전시된다. 서울관에서는 작은 천 조각을 바느질로 엮어 타워형 구조물에 설치한 유수진 작가의 대형 작업 '2016. 03. ~ 2025. 09.'와 신작 2점을 선보인다.

장소 충북 음성·서울 한독의약박물관 문의 043-530-1004



© 부산국제아동도서전

2025 부산국제아동도서전

부산 12.11~14

올해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의 주제는 '아이와 바다'로, 어린이가 책이라는 바다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무엇이든 꿈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대형 종이에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펼치는 '키즈 아틀리에', 나만의 그림책을 완성하는 '꼬마 작가 그림책 만들기' 등 각종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의 저자 조던 스콧, 청소년 소설 베스트셀러 <시한부>의 백은별 작가 등 인기 작가들도 만날 기회다.

장소 부산 벡스코 문의 02-733-8402



(C) 김성백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BETTER里 사업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BETTER里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BETTER里(배터리)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관광벤처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아이템을 결합해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고, 관광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민관 협력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BETTER里'는 '더 나은(better)'과 '마을(里)'의 합성어로,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생활 인구를 충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2023년 경북 영주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충북 제천·단양, 경북 안동·봉화 총 네 개 지역에서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가평, 전북 무주와 함께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와 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선정된 지자체와 참여 기업은 하나의 팀이 되어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참여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고, 선정된 지자체는 기업의 아이디어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보유 자원 연계와 행정 지원을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죠.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체험·체류형 프로그램 기획, 로컬 컨텐츠 개발, 마케팅과 판로 지원, 현지 지원을 활용한 실무형 컨설팅 제공 등 기업은 단계별로 도움을 받습니다. BETTER里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자생적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지자체에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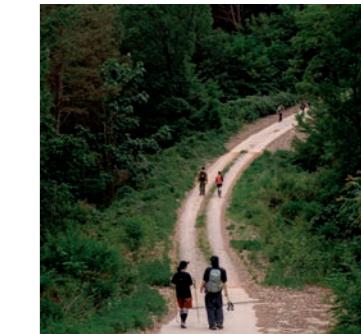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쳐 가는 지역'에서 '머무는 여행지'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봉화에서는 빈집이 숙박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체류형 관광이 자리 잡았고, 안동은 전통주 미식 투어와 공연으로 젊은 여행객이 많아졌습니다. 제천은 영화제를 활용한 외국인 대상 인터랙티브 투어로 글로벌 관광 수요가 늘었고, 단양은 백패킹과 트레킹 상품으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았지요. 또 가평은 워케이션과 키즈·펫 관광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서 기반을 다졌고, 무주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웰니스·예술 여행지로 도약했습니다.

내년 BETTER里 사업 모집 일정과 신청 절차도 알려주세요.

먼저 지자체의 경우 공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서류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합니다. 기업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전국 소재 관광 유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격 기준을 검토합니다. 관광과 융복합 가능한 분야의 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 제출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내년 사업 모집 일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의 경우 올해 11~12월 중, 참여 기업의 경우 내년 1~2월 중 공고할 예정입니다.

01 이토록 즐거운 마을 여행





제천

01 굿메이트트래블 4p

외국인 대상 로컬 문화 체험
프로그램

02 게릴라즈 5p

중장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숙박
매칭 플랫폼 '스테이코리아'

03 엔코위더스 6p

외국인 중장기 주거 임대 플랫폼
'엔코스테이'

BETTER里 사업이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감소지역과 기업을 선정해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기업은 한 팀이 되어 새로운 관광 상품을 실증할 기회를 얻는다. 선정 기업은 체류형 프로그램 기획, 로컬 콘텐츠 개발, 현지 지원을 활용한 실무형 컨설팅 등 단계별로 도움을 받는다. 2023년 경북 영주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충북 제천·단양, 경북 안동·봉화, 올해는 경기도 가평, 전북 무주와 함께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양

04 알앤원 7p

국내 최대 아웃도어 여행 상품
플랫폼 '페어플레이'

05 블랭크 8p

빈집 재생 브랜드 '유휴'

06 하이케이푸드 9p

국내 최초의 외국어 QR 메뉴
서비스 '케이플'

안동

07 고결 10p

지역 고유의 정서가 깃든 로컬
라운지 '고결 안동'

08 하회 11p

가장 한국적인 언더그라운드
뮤직 페스티벌

09 슈가풀컴퍼니 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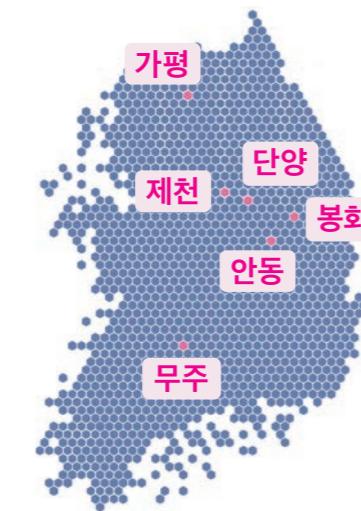
도슨트와 함께하는 안동의
미술관·박물관 투어

10 더슬컴퍼니아카데미 13p

외국인을 위한 안동 전통주
프리미엄 투어

11 이공이공 14p

복합 문화 공간 '안락'을 활용한
전통주 팝업 스토어



봉화

12 내일의 식탁 15p

사람과 지역, 자연에 이로운
미식 여행

13 알파모빌리티 16p

공유 전동 칙보드·자전거 서비스
플랫폼 '알파카'

14 로컬앤파이프 17p

자연 속 로컬 체험 플랫폼 '프루떼'

15 한국갭이어 18p

지역 한달살이 체험형 프로그램

가평

16 문카데미 19p

러닝 기반 여행 플랫폼 '클투'

17 반려생활 20p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플랫폼

18 디어먼데이 21p

프리미엄 워케이션 플랫폼

19 스트리밍하우스 21p

새로운 근로 문화를 제시하는
워케이션 브랜드 '더휴일'

20 원더웍스컴퍼니 22p

양육자를 위한 키즈 플랫폼 '맘맘'

21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23p

정착 탐색형 프로그램 '일편단심'

22 한수코퍼레이션 24p

중화권 대상 로컬 관광 예약
플랫폼

23 네이처 25p

새로운 아웃도어 문화를 만드는
프로젝트 '베이스인네이처'

24 더블익스 26p

독서 중심 여행 프로젝트
'에브리씽 로컬 in 무주'

25 피치바이피치 27p

지속 가능한 여행 상품
큐레이션 플랫폼

26 엑스크루 28p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액티비티 플랫폼

27 산골낭만 29p

무주의 낮과 밤의 매력을 전하는
여행 프로그램 '로맨스몽, 무주'

28 파머스에프앤에스 30p

농업, 푸드, 체험, 공간을 염두
로컬 브랜드 '산산'

29 세터데이엔지니어링 31p

디자이너를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



1



1



2

1, 2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제천의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며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했다. 3 참가자들은 제천의 내도전통시장에서 지역 음식을 맛봤다.

한국의 아름다움에 반해 3~6개월간 머물 곳을 찾던 외국인 여행객들이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고시원은 비좁고, 전·월세 계약은 최소 1년, 게다가 중장기 거주지를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마저 부족했던 것. 염정업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게릴라즈를 창업했다. 게릴라즈의 사업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온라인에서는 올해 4월 오픈한 '스테이코리아'를 통해 숙박 시설과 외국인 거주자를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공실로 방치된 숙박 시설을 리모델링해 중장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코리빙 하우스 'G House'로 재탄생시킨다. 지역과 연결 짓는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장기간 머물던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들이 제천의 게스트 하우스에 체류하며 자연과 음식, 문화를 경험했다. 올해는 'Healing City Jecheon(힐링 도시 제천)'을 주제로 스테이코리아 이용자 70여 명이 1박 2일간 청풍호반, 월악산 덕주사, 청풍문화유산단지 등을 탐방하고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전통 음식 및 문화 체험을 즐겼다.

© @guerrilla_z

굿메이트트래블

"지역은 단 한번 방문하는 곳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로 기억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로컬 문화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는 굿메이트트래블은 현지인과 교류하며 지역의 삶을 경험하는 여행을 지향한다. 야시장 투어, 광장시장에서 명인과 함께 칼국수 만들기 같은 서울의 일상 체험부터 농촌 체험, 장인 워크숍 등 지역의 로컬 체험까지 포괄한다. 지난해에는 제천 관광 택시를 이용해 청풍호반케이블카와 의림지 등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웰니스 투어를 운영했다. 관광 택시 기사는 지역을 소개하고 사진을 촬영해 주는 가이드 역할까지 도맡아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외국인 여행객 일곱 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 지역씩 네 곳을 둘러보는 4박 5일 '로컬 스토리텔링 투어'를 진행했다. 충북 제천의 글램핑, 경북 경주의 템플스테이, 울산의 향토 음식 전문 세프와 함께하는 미식 다이닝, 경남 통영의 다찌 문화 체험을 통해 각 지역의 매력을 오감으로 즐기는 여정이었다. 지역의 진면목을 깊이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행자라면 굿메이트트래블을 주목하자.

© @goodmatetravel



2

1, 2 제천 관광 택시를 타고 청풍호반케이블카와 제천중앙시장 등 지역의 관광지와 미식을 경험하는 웰니스 투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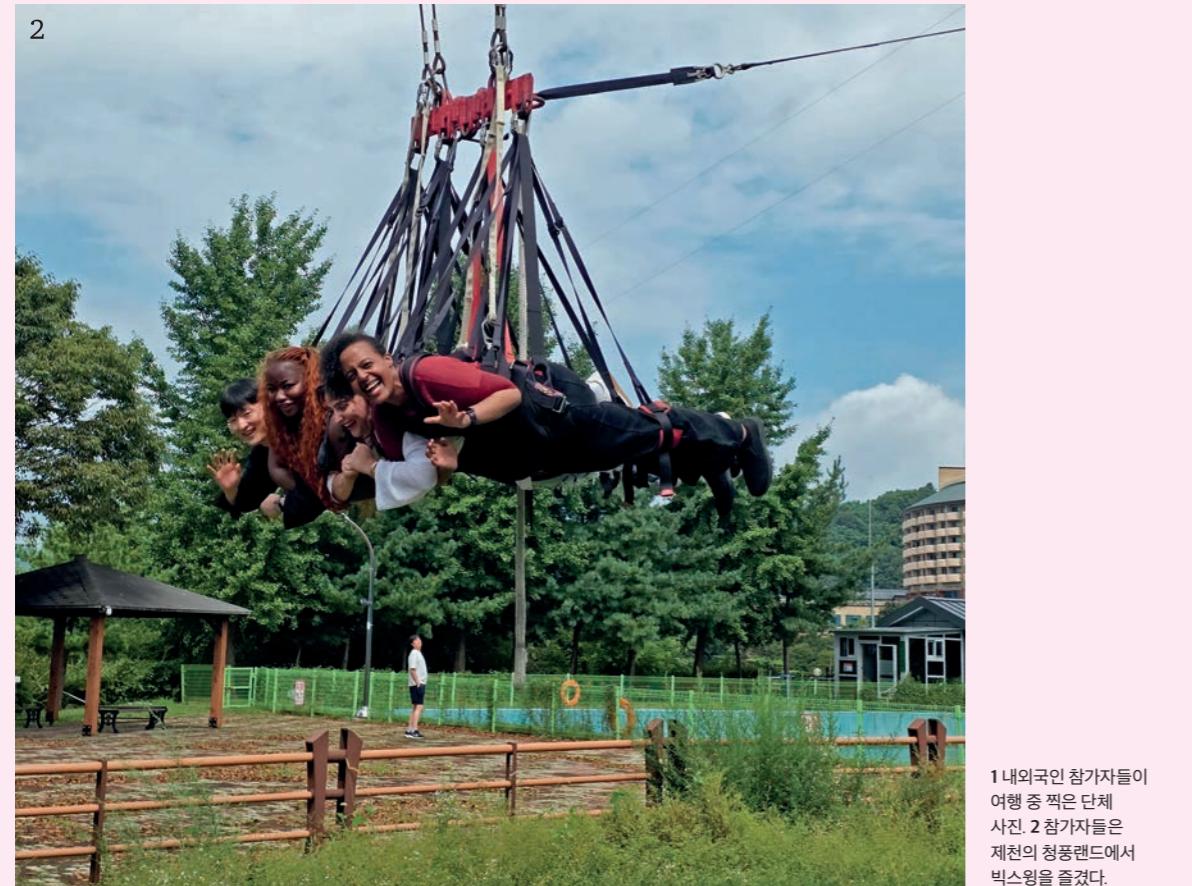
엔코워더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주거부터 정착까지 돋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엔코워더스의 대표 서비스는 두 가지다. 외국인 대상의 중장기 주거 임대 플랫폼 '엔코스테이(Enkostay)'와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한 소셜·여행 플랫폼 '엔코플레이(Enkoplay)'. 엔코스테이는 현지 생활 정보 제공, 계약 절차 간소화, 외국인 등록증 발급, 커뮤니티 지원 등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외국인이 내국인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플랫폼이 엔코플레이이다. 필라테스 모임, 공방 투어, 맷집 탐방 등 다양한 취향 기반의 소셜 모임뿐 아니라 한국 로컬 문화를 체험해 보는 국내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단양의 주요 명소인 도담삼봉과 고수동굴을 둘러보고 단양 떡갈비를 맛보는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올해 9월에는 제천국제음악회제 기간에 맞춘 1박 2일 '시네마 힐링 투어', 10월에는 온달문화축제가 포함된 '단양 러닝 투어'를 진행했다. 엔코워더스의 엔코플레이는 한국이 궁금한 외국인 여행객은 물론, 글로벌 문화 교류를 즐기는 내국인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enkostay_seoul



1



2

1 내외국인 참가자들이 여행 중 찍은 단체 사진. 2 참가자들은 제천의 청풍랜드에서 빅스윙을 즐겼다.



1

알앤원

국내 최대 아웃도어 커뮤니티 앱 '페어플레이'를 운영하는 알앤원은 등산, 러닝, 트레킹, 백패킹 등 다양한 아웃도어 여행 상품을 제안한다. 지난 여름 충북 단양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기념해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학생들과 함께 지질공원을 거느리는 팬투어를 진행했다. 상선암에서 도락산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걷고 야영하며 단양 지질공원의 독특한 지형과 풍경을 온몸으로 만끽하기도 했다. 11월에는 충북 제천에서 자드락길 7개 코스를 완주하는 챌린지를 운영했다.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좁은 길'을 뜻하는 순우리말 '자드락'에서 이름을 따온 자드락길은 청풍호반을 따라 이어지는 약 58킬로미터 트레킹 코스다. 코스마다 개성 있는 풍광이 펼쳐져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동안 즐거움도 배가된다. 알앤원의 아웃도어 여행 상품이 궁금하다면 지금 페어플레이를 확인해 보자.

@pairplay_official



2



3

1,3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기념해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학생들과 함께 단양 지질공원을 거닐었다. 2 상선암에서 도락산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야영도 했다.



1

블랭크

가끔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마을 길을 산책하거나 캠핑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아 보는 것을 꿈꾼다면 블랭크의 빈집 재생 브랜드 '유휴'를 기억하자. 유휴는 전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역살이가 가능한 '유휴하우스'로 재탄생시켜 임대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마당에서 캠핑이 가능한 집, 침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집 등 유휴하우스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인테리어와 개성을 품고 있다. 유휴는 지역살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특정 지역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주민과 교류하는 '로컬 살아보기 실험'이 대표적이다. 지난 9월에는 경북 봉화에서, 11월에는 충북 단양과 제천에서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지역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는 '인사이트 트립', 일주일간의 경험을 나누는 '회고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루의 루틴과 소비 방식을 기록하고 글쓰기, 산책, 요리 등 본인이 정한 미션을 실천하며 달라진 나를 발견하는 일이다. 정말 환경이 바뀌면 나도 달라질까? 유휴하우스에서 보내는 일주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yoohuu.kr



1 단양 어상천면의 한적한 산촌 마을에 위치한 '유휴하우스 단양어상천'. 거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2 봉화 춘양면에 자리한 '유휴하우스 봉화춘양'에서 즐기는 브런치. 3 노란 벽면에 기와지붕을 올린 봉화춘양 외관.



1

날로 높아지는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늘고 있다. 이제 한식 기행을 즐기는 외국인 여행자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 장벽과 부정확한 외국어 음식명 표기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이케이푸드가 서비스 '케이풀'을 개발했다. 케이풀은 정확한 외국어 음식명은 물론, 식재료와 조리법, 먹는 방법, 한식의 유래 등을 20개 언어로 안내하는 국내 최초의 외국어 QR 메뉴 서비스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언어가 인식되어 바로 해당 언어로 메뉴가 출력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북 제천·단양 맛집과 모범업소 57개소에 케이풀의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했다. 1년간 외국인 주문 2400건을 돌파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부터 '케이플레이스'로 확장한다. 메뉴 안내를 넘어 제천과 단양의 주요 관광지 정보를 30개 언어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제천 배론성지에서는 대성당과 황사영 백서가 쓰여 있는 토굴을 소개하고, 단양 강간도에서는 트레킹 코스와 주변 먹거리를 안내한다. 하이케이푸드의 이러한 시도는 외국인이 보다 편하게 한국의 식문화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경험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kapple_korea



1, 2 충북 제천·단양의 맛집과 모범업소 57개소에 케이풀의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했다.

안동



고결

오랜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 폐가로 사라지는 것이 아쉬웠던 건축학과 동기 세 명이 로컬 문화 스테이 브랜드 고결을 만들었다. 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로컬 스테이 '고결 문경'은 지역의 장인, 예술가,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경 한지로 완성한 간alam, 가은 요 박연태 작가의 생활 도자기, 천연 염색 공예가 진계숙이 제작한 흙웨어 등은 지역의 정서와 감각을 온전히 전한다. 지역 문화와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고결은 안동에도 있다. 고급스럽고 편안한 공항 라운지에서 영감을 받은 로컬 라운지 '고결 안동'이다. 내부로 들어서면 안동포를 덧댄 유리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안동포를 투과한 햇빛이 실내에 은은하게 번지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팝업 마지막 날엔 지역민과 여행객에게 헛제삿밥, 참마, 짬닭 등 안동의 대표 음식을 선보였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이야기로 벼려진 공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고결의 창의적인 시도는 계속된다.

@gogyeol_official



1, 3 로컬 라운지 '고결 안동'에서 헛제삿밥, 참마, 짬닭 등 안동의 대표 음식을 선보였다. 2 유서 깊은 옛 대장간이 로컬 스테이 '고결 문경'으로 재탄생했다. 숙소 곳곳에서 문경 지역 작가들과 협업해 만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 3 흥겨운 사물놀이와 사자탈춤, 그리고 한옥 성곽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파사드 등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hahoe 2025'. 2 하회마을에서 맨발로 삼밭을 걷는 어싱을 통해 땅과 몸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감각한다.

하회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하회마을이 흥겨운 테크노 리듬으로 들썩였다. 뮤직 페스티벌 'hahoe 2025'가 열린 것. 가장 한국적인 언더그라운드 뮤직 페스티벌을 표방하는 하회는 지난 6월 사물놀이와 사자탈춤으로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고, 한옥 성곽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 파사드, 한옥 아래에서 펼쳐진 디제잉 퍼포먼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9월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무대로 퓨전 국악과 전자음악을 결합한 공연 'ROOTING'을 선보였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수자 김종홍 국가 명장의 기원제를 시작으로 하회마을 삼밭을 맨발로 걷는 어싱 (Earthing), 국내외 앰비언트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굿 장단을 전자음악으로 재해석한 류현욱, 싱잉볼과 앰비언트 사운드를 결합해 연주한 팀 누에 앰비언트, 자연의 소리를 변형한 음악을 선보인 아르헨티나 음악가 QOA 등 개성 넘치는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 음악을 새롭게 연결 짓는 마중물이 되었다. 올해 두 차례 무대를 마친 하회는 내년에 더욱 풍성한 축제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hahoe.kr



1,2 서양미술사 전문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
안동의 송강미술관과 안동시립박물관을
탐방하는 영상 콘텐츠를 선보였다.



1



1



3

슈가풀컴퍼니

'문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뉴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슈가풀컴퍼니는 뮤지컬, 미술 전시, 공연, K-팝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한다. 올해는 경북 안동시와 협업해 지역 문화유산을 알리는 예술 투어 프로젝트를 구성,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온라인에서는 서양미술사 전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는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 안동의 송강미술관과 안동시립박물관을 탐방하는 영상 콘텐츠를 선보였다. 송강미술관의 하이라이트인 하회탈 전시관에서는 당대 여인상을 재현한 각시탈, 고개를 숙이면 웃는 모습으로 변하는 양반탈, 굿대 높은 초랭이탈 등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감정이 느껴지는 탈을 소개했다. 또 안동시립박물관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 원본을 감상하며 하회탈의 조형미와 예술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예술 토크 콘서트를 열어 안동의 전통과 현대 예술을 잇는 자리를 마련했다.



2



2

더술컴퍼니아카데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주류 문화 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더술컴퍼니아카데미. 와인 하면 프랑스의 보르도, 위스키 하면 스코틀랜드가 떠오르듯 소주 하면 안동이자 연스레 연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9월 더술컴퍼니아카데미가 안동 전통주 프리미엄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안동의 정수를 맛보다'를 주제로 1박 2일간 이어진 여정은 지역 양조장과 협업해 전통주의 매력을 깊이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참가자는 맹개마을에서 진맥소주 제작 과정을 견학하고, 효심이 깃든 농암종택에서 하룻밤 묵으며 이현보 선생의 정신이 담긴 일엽편주를 음미했다. 단순한 시음을 넘어 음식과 술을 직접 손으로 빚어 보는 체험도 했다. 안동 국시 반죽부터 고명까지 빚어 보거나, 500년 전통주를 활용해 나만의 칵테일을 만드는 식이다. 소주의 본고장인 안동의 품격과 새로운 맛의 매력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다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더술컴퍼니아카데미의 투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thesooldcompany



1 오래된 목욕탕을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 '안락'. 2 안락에서 열린 전통주 팝업 스토어. 퓨전 전통 공연과 인디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흥을 돋웠다.

이공이공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이라고 믿는 이공이공은 축제, 공연, 예술, 관광, 도시 재생 등 지역 곳곳에 새 숨을 불어넣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문화 기획사다. 지난해에는 안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오래된 목욕탕을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 공간 '안락'을 운영하며 지역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의 장을 마련했다.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춘 안락에서는 공연, 전시, 소규모 회의 등이 열린다. 지난 9월에는 '한국 전통주의 수도 안동, 전통주의 맥을 잇다'를 주제로 전통주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전국 40여 종의 전통주를 시음하는 테이스팅 존, 안동 음식과 함께 전통주를 즐기는 페어링 존을 운영하고, 500년 전통의 안동소주 장인의 이야기를 듣는 토크 살롱을 개최했다. 여기에 퓨전 전통 공연과 인디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더해져 흥을 돋웠다. 12월 6일에는 안동의 양조장을 탐방하고 전통주 시음과 지역 예술인 공연도 즐기는 '예술예술투어' 마지막 회차를 진행한다. 전통주와 예술을 사랑하는 여행자라면 이번 투어를 놓치지 말자.

@anrak_andong



내일의 식탁

사람과 지역, 자연에 이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내일의 식탁은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양한 실험을 한다. 좋은 발효 식품을 발굴하고 생산자를 지원하는 참발효어워즈,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참여 가능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지역 식재료를 찾아 떠나는 생태 중심의 미식 체험 여행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월에는 봉화의 식자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봉화 슬로우 워크'를 열었다. 이름 그대로 봉화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는 것이 목표다. 행사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지역 농부와 함께 모종을 심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봉화 농부의 정원 여행', 봉화에서 난 식재료로 만든 요리에 지역 술을 곁들이는 '내일의 식탁 다이닝', 로컬 막걸리 양조장과 사과 와이너리를 둘러보는 '봉화 양조장 여행'으로 지역의 자연과 음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했다. 울창한 숲이 가득한 봉화에서 지역 음식과 술을 즐기다 보면 하루가 느리게 흘러간다.

tomorrows-table.com



1



2



3



1

알파모빌리티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알파모빌리티의 대표 플랫폼은 '알파카'. 알파카는 전국 70여 개 지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공유 전동 킥보드·자전거 서비스다. 알파모빌리티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이동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그 첫 행선지는 봉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왕조 후손의 유적지가 보존된 곳이다. 봉화군은 베트남과의 1000년 인연을 잊기 위해 일명 'K-베트남 밸리', 국내 유일의 베트남 마을을 조성했다. 여기에 알파모빌리티가 힘을 보탰다. 베트남 마을을 찾는 여행객을 위해 'E-씨클로'를 개발한 것. 베트남의 전통 이동 수단인 씨클로를 모티브로 한 삼륜 자전거로 빨간색 차체와 노란색 별 문양 등 베트남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새로운 여행 방식을 제안하는 알파모빌리티는 지역 관광과 지속 가능한 이동의 접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alpaca.dudoongz



1 베트남 마을을 조성한 기원이 된 봉화의 충효당.
2 베트남 마을을 찾는 여행객을 위해 개발한
'E-씨클로'. 빨간색 차체와 노란색 별 문양 등
베트남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로컬앤파이프

주말만큼은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흥인기 로컬앤파이프 대표는 2020년 '프루떼'를 선보였다. 프루떼는 과일 따기, 동물 먹이 주기, 글램핑,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로컬 체험 플랫폼이다. 농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2~3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농사 구역과 방문객 체험 구역을 분리해 농업과 여가가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본래 아이들 대상의 자연 체험 상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했다. 지난가을 경북 봉화군에서는 전직 세프가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끼를 맛보고, 반려견과 함께 출렁다리 숲길을 걷거나 유록마을에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방문객은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농장주는 부가 수익을 얻는 것, 바로 프루떼가 지향하는 상생 방식이다.

@fruitte_picnic



1

1 봉화 지역 산그늘 아래에서 전직 세프가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끼를 맛봤다.
2 반려견과 함께 출렁다리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했다.



2



1 사과 수확부터 선별, 발효, 숙성, 병입까지 와인 한 병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사과 와이너리 스테이'.
2 지역 장인에게 목공예 기술을 배우고 나만의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숲속 목공예 스테이'. 3 반려견과 깊이 교감하는 '대형견 브리딩 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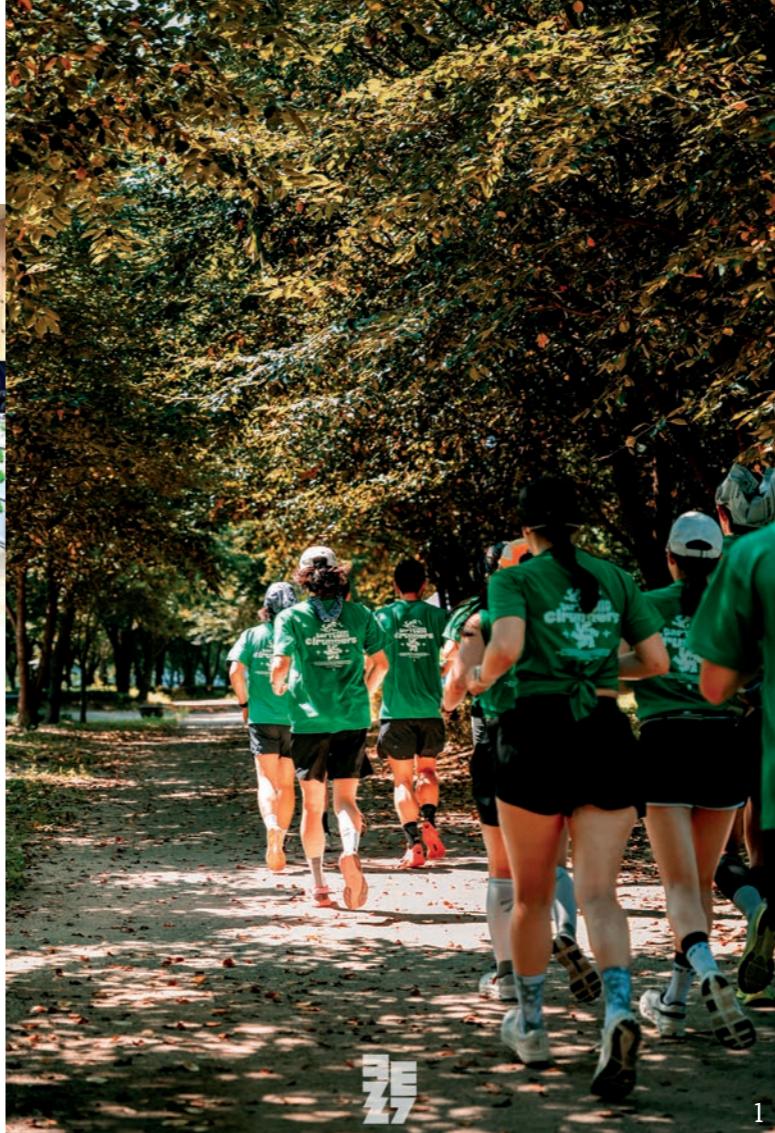


3

한국갭이어

문득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캡 이어(gap year)'가 필요한 때다. 캡 이어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 봉사, 인턴 등의 활동을 하며 앞으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한국갭이어는 봉사, 해외 인턴십, 여행,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상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봉화군에서 한 달간 머물며 지역의 삶을 경험하는 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과 수확부터 선별, 발효, 숙성, 병입까지 와인 한 병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사과 와이너리 스테이', 지역 장인에게서 목공예 기술을 배우고 나만의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숲속 목공예 스테이', 반려견과 깊이 교감하는 '대형견 브리딩 스테이'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발견하는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koreagap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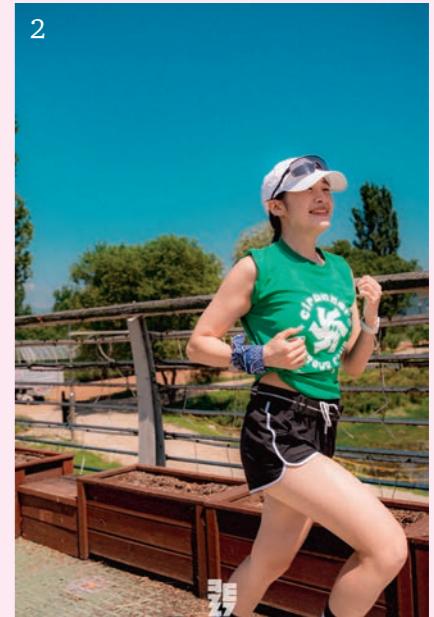
1, 2 2025 클투 가평 원데이 로컬 런투어 참가자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3 자라섬 출렁다리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



문카데미

러닝과 여행을 결합한 '런트립'이 여행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카데미가 운영하는 러닝 기반 여행 플랫폼 '클투' 또한 러너들이 자연, 문화, 로컬 컨텐츠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다. 지난 9월에 개최한 가평자라섬 전국마라톤대회에서는 108명의 참가자가 지역 곳곳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힘차게 달렸다. 클투는 자라섬이 러너들에게 계속 방문하고 싶은 웰니스 여행지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러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강원권 런투어 루트 확장과 해외 러너를 대상으로 한 'K-웰니스 런트립' 인바운드 프로그램 론칭도 고려 중이다.

@cr8tour



반려생활

반려동물과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반려생활. 반려인에게 사랑받는 전국 여행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반려동물과 머무를 숙소 검색도 가능하다. 반려생활은 지난여름 가평군과 의견을 모아 반려견과 함께 수상 레저를 경험하는 여행 상품 '댕댕올패스'를 개발했다. 반려견과 반려인이 같이 보트를 타고 반려견이 전용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포함된 구성으로, 반려견 동반자만 입장 가능한 '반려인 빠지 Day'도 마련했다. 물놀이 후 반려견과 나란히 누워 휴식을 취하기 좋은 선베드 존 '울멍쉼터'와 포토존도 설치했다. 가평군 내 반려동물 동반 숙소 3만 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했다.

ban-life.com

- 1 반려생활과 가평군이 함께 개발한 가평 댕댕이 빠지 체험 상품 '댕댕올패스'.
- 2 '댕보트'에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같이 탑승할 수 있다.
- 3 반려견 전용 워터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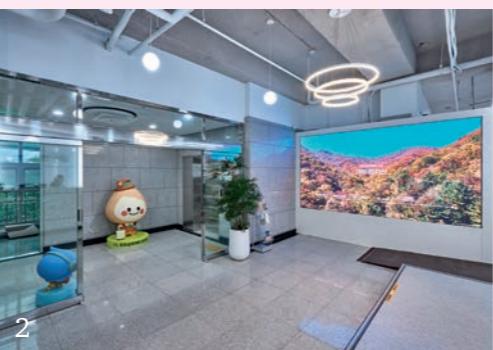
디어먼데이

전국에 9개 워케이션 지점을 운영하는 프리미엄 워케이션 플랫폼 디어먼데이는 주요 관광지의 숙박 시설에 자체 오피스를 구축해 객실과 오피스 패키지를 판매한다. 그러나 대형 숙박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가평의 경우 공공 워케이션 센터와 주변 숙소를 연계해 하나님의 상품으로 묶는 종소도시형 워케이션 모델을 구현했다. 가평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호텔 자라, 2025 공공 우수아영장으로 선정된 자라섬 캠핑장의 캐러밴을 각각 자라섬 워케이션 센터와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었다. 가평군 내 숙소에 묵은 뒤 워케이션을 이용하면 1박당 최대 5만 원의 숙박 지원금을 돌려 받는 혜택도 마련했다. 디어먼데이는 자라섬 워케이션 센터에 기업들의 정기 방문을 목표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dearmonday.io



1, 2 디어먼데이와 스트리밍하우스는 자라섬 워케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가평의 워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올해 8월에 가오픈한 자라섬 워케이션 센터.



스트리밍하우스

워케이션은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로, 업무와 휴가를 합친 말이다. 최근 직장인의 업무 효율성과 워라밸을 위해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스트리밍하우스가 운영하는 워케이션 브랜드 '더휴일'은 새로운 근로 문화를 제시하고, 각 지역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도 고민한다. 특히 올해는 8월에 가오픈한 자라섬 워케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가평 워케이션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술지움 공유양조 벤처센터, 유일닭강정, 보납정 등 로컬 브랜드와 제휴해 지역 상생을 도모한다. 앞으로도 워케이션을 도입한 기업의 니즈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thehyuil.co.kr



1

원더워스컴퍼니

월 100만 명이 이용하는 '맘맘'은 원더워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키즈 플랫폼으로, 육아 필수 서비스로 꼽힌다. 매우 아이와 함께 갈 곳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키즈 프렌들리 시설과 여행지 정보를 연령대별, 관심사별로 큐레이션해 알려 주고, 제휴 시설 방문 시 현장 할인되는 '맘맘 멤버십'을 운영한다. 지난 5월부터는 가평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맞춤형 큐레이션과 지역 키즈 시설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비동물원, 가평베고니아재정원 등의 관광지와 레이캬피이스트 풀빌라, 미즈베베키즈풀빌라, 고고다이노 키즈호텔 등의 펜션 및 풀빌라를 중심으로 제휴처 39곳을 확보해 선택지를 넓혔다. 11월에는 가평 대표 키즈 프렌들리 호텔인 마이다스호텔앤리조트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지역 내 멤버십 제휴처 확대와 숙소 상품 다각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mom_mom.ins



1 원더워스컴퍼니 직원들.
2 육아 필수 플랫폼으로
손꼽히는 '맘맘'에서는 키즈
프렌들리 시설과 여행지
정보를 연령대별, 관심사별로
큐레이션해 제공한다.



1 주민들의 집을 구경하고 설명을 듣는 산촌
주택 탐방. 2 정착 탐색형 프로그램 '일편단심'을
통해 정원을 가꿔 보는 시간을 가졌다.

1

2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농촌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가 지난 10월 가평 조향마을에서 정착 탐색형 프로그램 '일편단심'을 진행했다. 참가자는 편백나무 숲에서 명상으로 마음을 채우고, 구조와 쓰임이 저마다 다른 주민들의 집을 구경하면서 귀촌 준비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플라워가든센터 농장에서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꿔 보고, 전통주 체험장에선 지역 농산물로 막걸리를 빚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는 휴밸리, 더큐 등 숙박 시설을 비롯해 지역 내 7개 기업과 협업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둑안리 마을 기업인 영농조합법인 드리머가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각 체험 프로그램의 매뉴얼도 제작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도시락이나 가평을 대표하는 명자산을 상징하는 목재 굿즈를 개발하는 등 상품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3goforest





한수코퍼레이션

중화권을 타깃으로 한 메디컬 분야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 한수코퍼레이션은 검진이나 시술을 받은 뒤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외국인 환자의 문의를 받으며 의료, 관광, 로컬 체험을 연결하는 융합형 콘텐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후 중화권 SNS인 위챗의 샤오청шу(小程序) 기능을 기반으로 한 로컬 관광 예약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중화권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가평의 숨은 명소와 현지 문화를 밀도 있게 체험하는 프로그램 '고멧 가평'을 진행했고, 올해 11월에는 체험 콘텐츠를 중심으로 가평의 매력을 알리는 '스테이가평'을 추진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치유의 나라이자 즐거운 여행지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한수코퍼레이션의 목표다.

@hansoo_co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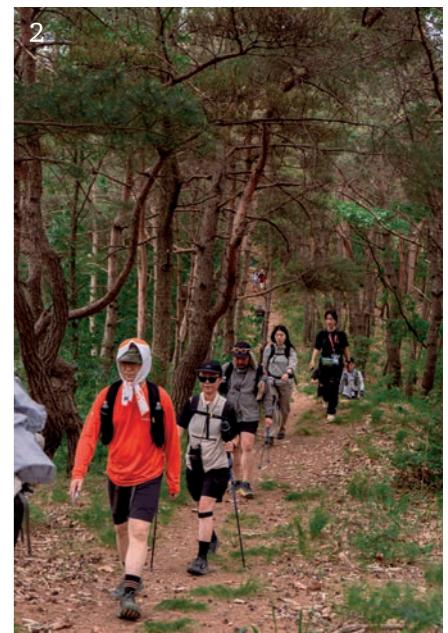
1, 2 한수코퍼레이션은 지난해 중화권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가평의 명소와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 인플루언서들이 프로그램 참여 후 제작한 콘텐츠.



네이처

새로운 아웃도어 문화를 만드는 '베이스인네이처' 프로젝트는 네이처의 주요 사업이다. 하이킹, 백패킹, 트레일러닝 등 아웃도어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연 환경과 로컬 커뮤니티를 연결해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단순한 레저 체험을 넘어 교류의 장이 되도록 브랜드와 참여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경험형 아웃도어 페스티벌도 기획한다. 지난해 5월에는 무주군청과 협업해 구천동 일대 하이킹 코스를 발굴하고, 1박 2일 백패킹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11월에는 프라이빗한 낙화 이벤트를 더한 '베이스인네이처 무주 낙화'를 진행했다. 폐교된 삼방초등학교를 야영지로 활용해 고요웨어, 고싸머기어 등 아웃도어 브랜드 팝업을 함께 운영했다. 제주 및 남해권을 중심으로 트레일러닝 기반의 신규 콘텐츠를 구상하고, 전국 주요 명산과 해안 지역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basedinnature



1, 3 지난해 무주에서 열린 백패킹 페스티벌. 2 베이스인네이처 행사에 참여하면 지역 명소 외에도 숨겨진 길을 찾아 걷는다.



더블익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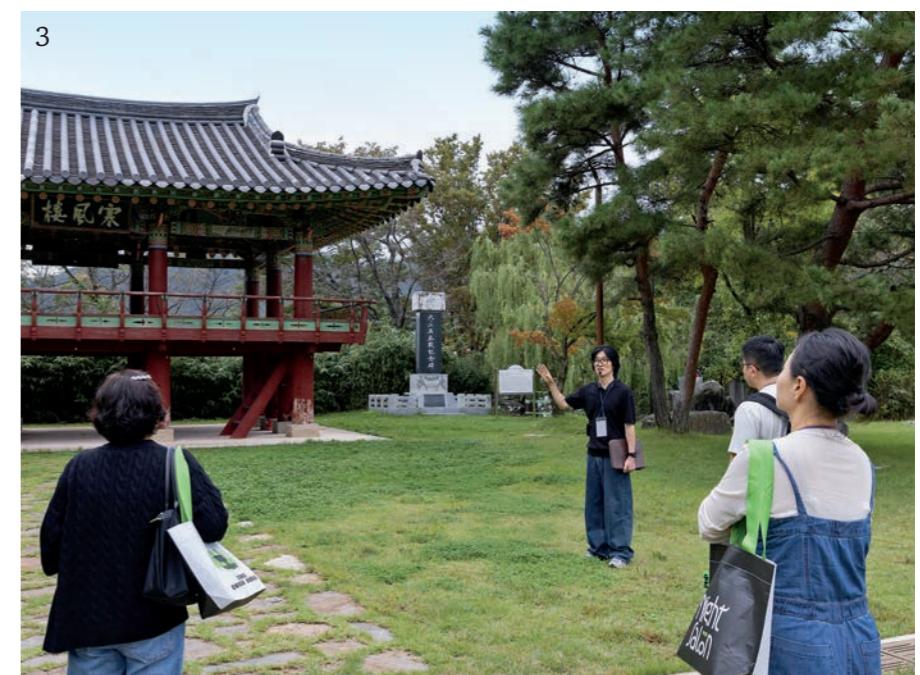
청정 지역 무주에는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계곡 등 자연을 벗삼아 휴식을 취할 만한 장소가 많다. 더블익스는 '에브리씽 로컬 in 무주'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여행지에서 여유를 느끼는 것을 넘어 무주의 장점을 살릴 콘텐츠를 개발했다. 전 세계로 퍼지는 텍스트 힙 트렌드를 반영해 독서 여행 콘텐츠를 론칭한 것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티브로 덕유산국립공원에서의 독서 트레킹 코스 '사유의 길'을 조성하고, 이부영 숲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듣고 책 속 문장을 통해 내면을 채우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현지인의 안내를 따라 부영이, 수달을 찾아 떠나는 무풍지마을 사운드 스카이프 체험, 전통주와 함께 취중 독서를 즐기는 농촌카세 다이닝, 가벼운 조식을 겪들이는 긍정 독서 토크 등 책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doubleex.co.kr

1, 2, 3 책과 자연을 중심으로 구성한 더블익스의 여행 콘텐츠. 사과를 따고 무와 배추를 수확하는 농장 체험, 이부영 숲해설사와 함께 숲의 비밀을 찾는 시간 등을 마련했다.



1 막걸리를 마시며 듣는 막재즈 공연은 무주의 밤에 낭만을 더한다.
2 일러스트레이터 카콜에게 배우는 여행 드로잉 클래스. 3 로컬 크리에이터 송광호와 함께 무주의 공공 건축물을 찾아 나서는 로컬 건축 투어.



피치바이피치

지속 가능한 여행을 큐레이션하는 플랫폼 피치바이피치. 지난 10월에는 문학과 예술, 미식과 재즈가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 '무주 나이트 살롱'으로 무주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2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일러스트레이터 카콜에게 배우는 여행 드로잉 클래스, 사진 인문학 강사 박신우가 진행하는 사진 & 영상 클래스, 베스트셀러 소설가 최민석과 사진가 김윤경이 알려 주는 여행 기록법, 무주에서 나고 자란 로컬 크리에이터 송광호와 함께 무주의 공공 건축물을 찾아 나서는 로컬 건축 투어 등. 길 위에서 만난 풍경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크리에이터와 동행해 무주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나만의 콘텐츠를 구상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했다. 적상산이 보이는 카페에서 맛보는 무주구천양조의 막걸리는 긴장을 풀어 줬고, 막걸리와 재즈를 잇는 뮤지션 팀 막재즈의 공연은 무주의 밤에 낭만을 더했다.

pbp.co.kr



엑스크루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액티비티 플랫폼, 엑스크루. 취향과 목표가 같은 크루원들과 생애 첫 배낭여행에 도전하거나, 퇴근 후 숨이 차도록 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프로그램 등 글로벌 맞춤형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올해 무주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을 아침을 깨우는 한풍루에서의 요가, 알록달록한 단풍 길을 따라 걷는 트레일 러닝, 시장 길부터 숲길까지 걷고 맛보고 즐기는 워킹 투어, 남대천 강변길에서의 라이딩 등. 이외에도 각 크루장이 기획한 지역별·계절별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은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한다. 각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참고해 원하는 액티비티를 선택할 수 있다.

@x_crew



1 올해 무주에서 진행한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2 덕유산을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

산골낭만

무주 로컬 브랜드 산골낭만은 무주에 대한 타지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농촌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올해는 무주의 낮과 밤의 매력을 전하는 '로맨스몽, 무주'를 기획했다. 낮에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무주를 기록하고, 밤에는 빛을 통해 낭만을 느끼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지난 11월 참가자들은 덕유산 향적봉과 덕유평전에 올라 필름 카메라로 각자가 바라본 무주의 색을 담았다. 3개월 뒤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도 써 여행의 여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해가 진 후에는 유리를 활용해 상들리에처럼 빛나는 이색적인 낙화놀이를 감상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지만 산골낭만은 두 발로 천천히 지역을 감각하고 기다림의 미학을 경험하는 여행 코스를 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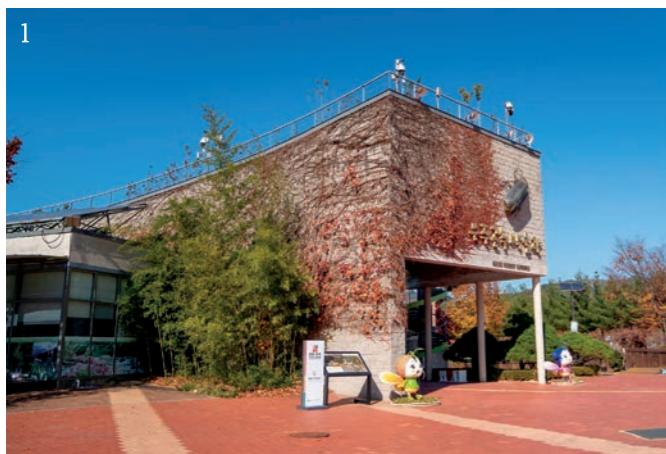
@muju.filmlog



1 무주에서 난 농산물로 만든 산골낭만의 솔빵.

2 산골낭만 티셔츠를 입고 계곡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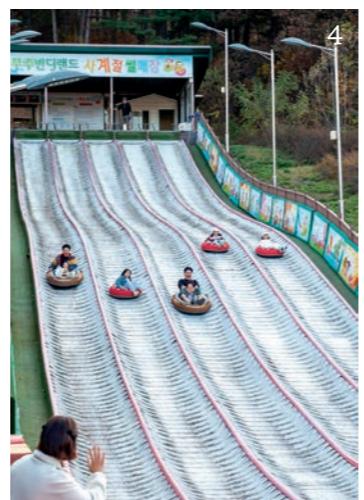




파머스에프앤에스

무풍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기업 파머스에프앤에스는 로컬 브랜드 '산산'을 통해 농업, 푸드, 체험, 공간을 한 흐름에 얹고 있다. 지난해 겨울에는 설경과 고요한 밤을 온전히 경험하는 무주 캠프를 진행했고, 올해는 1박 2일 체류형 코스 '산산한 하루'를 기획해 고랭지 사과밭을 따라 걷는 백팩킹 프로그램 '애플로드 트레킹'을 선보였다. 여기에 낙화놀이를 소규모로 재현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는데, 참가자들이 직접 낙화봉을 만들어 불을 붙이며 하루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파머스에프앤에스는 사계절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해 무주를 언제라도 와서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무주의 밤에 집중해 빛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콘텐츠로 감성을 더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 @santasy.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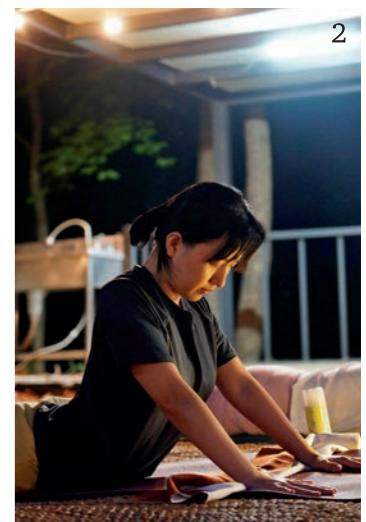
1, 2, 3, 4 파머스에프앤에스의 로컬 브랜드 '산산'은 지난해 캠핑 상품 '겨울밤, 무주'를 선보였다. 무주곤충박물관·사계절썰매장 입장권, 자개 랜턴 만들기 체험, 야간 공연 관람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터데이엔지니어링

기업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 협업 솔루션을 제안하는 세터데이엔지니어링이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등 1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7월과 10월에 무주 웰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무주네버랜드펜션, 덕유산 유아숲체험원, 구천동 어사길 등 주로 자연에 머무르며 스스로를 들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뜨개질을 하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요가를 여러 번 반복하며 순간에 집중했다. 무주 어죽, 다슬기 해장국, 도리뱅뱅이 등 이름난 지역 음식도 차례로 맛보며 몸과 마음을 채웠다. 프로그램 진행 이후 '무주의 재발견'이라는 평이 많았고, '요가의 매력을 알게 돼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 후기도 있었다.

© @saturday.engineering



1, 2 디자이너를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요가를 하고 있다. 3 자연 속에서 핸드팬 연주를 듣는 시간.

제천



단양



안동



봉화



가평



무주



리셋 한 스펜

“

가평에서
지친 일상을 비우고

dear monday
tripboard



반려생활 스트리밍하우스



충전 한 모금

“

무주에서 별빛 속
새 에너지를 채우다

BASED IN NATURE
X CREW



seoul design project®

DOUBLE EX
experience & expansion

Pitch by Pitch



시간이 그린 무늬 울주

간절곳에 해가 뜨면 잠들어 있던 울주의 시간이 깨어난다.
쉼 없이 몰아치는 바다와 선사인의 암각화, 거대한 공룡 발자국까지.
울산울주가 들려주는 아득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제작 지원 울주군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까지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바다가 특별해지는 순간

해맞이 명소 간절곶부터
화려한 빛으로 물든 명선도와
사색하기 좋은 송정공원까지
울주의 바다를 누렸다.

절실한 마음을 담아, 간절곶

끝이라는 아쉬움과 시작이라는 설렘이 뒤섞여 몸도 마음도 분주해지는 12월. 부지런히 지나온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울산 울주.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간절곶을 품은 곳이다. 12월처럼 끝과 시작을 아우르는 울주에서 어지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아 보기로 한다.

웅장하게 둘러싼 산을 뒤로하고 바닷가에 이르자 유순한 잔디 구릉이 펼쳐진다. 짙푸른 동해와 맞닿은 지점에는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라고 새겨진 돌탑이 자리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 간절곶이다.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보다 5분, 경북 포항의 호미곶보다 1분 정도 먼저 해가 뜬다. 덕분에 매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해맞이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듬해 1월 1일까지 ‘간절곶 해맞이 축제’가 열려 가요제, 콘서트, 드론 쇼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6시, 일출을 보기 위해 간절곶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부터 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30여 분은 꼼짝없이 어둠과 추위를 견뎌야 한다. 그 지난한 여정에 밤바다를 올리는 배고동 소리, 거친 숨을 몰아쉬는 파도 소리,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떠는 나뭇가지 소리가 동행한다. 웃깃을 파고드는 추위에 새벽잠도 물러난 지 오래. 온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줄 해가 절실히 무렵,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에서 선명한 불빛이 빼꼼 고개를 내민다. 이때부터 시간은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순식간에 흘러간다. 캄캄했던 세상이 전구를 켠 듯 환해지고, 하늘에는 주홍빛이 무서운 속도로 변진다. 거





1



2

070

1 간절곶 앞에 자리한 소망우체통. 소망 엽서를 적어 보내면 전국 어디든 발송된다. 2 조용히 사색을 즐기기 좋은 송정공원의 해안 산책로. 3 세계 최대 크기의 정크 아트 작품, 슬라봇.



+

간절곶 해맞이 축제

간절곶 해맞이 축제는 매년 12월 31일 전야 행사로 시작한다. '간절곶, 한반도의 첫 아침을 열다'를 주제로 콘서트와 드론 라이트 쇼, 불꽃 소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 첫 일출에 맞춰 해맞이 공연과 신년 인사, 해맞이 카운트다운, 새해 떡국 나눔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울주 농특산품·관광·미술기업 등의 울주군 홍보관을 비롯해 나눔 부스, 캘리그래피·타로·소망 트리·추억의 오락실 등의 체험 부스, 푸드트럭이 마련된다.

와 폐오토바이를 활용했으며 태양광 에너지 충전 방식으로 제작해 야간에도 빛을 발한다.

주민들의 해안 산책로, 송정공원

간절곶에서 차로 2분 거리, 울주 바다를 현지인의 시선으로 감상하고 싶어 송정공원을 찾았다.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밖에선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더 비밀스럽게 느껴진다. 소나무 군락을 통과하자 비로소 시야가 트이며 너른 잔디밭과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건너온 듯 아늑하고 평화로운 풍경. 곳곳에 자리한 벤치에는 강아지와 산책 나온 동네 주민, 어린 손녀의 손을 꼭 잡은 할머니, 홀로 음악을 듣는 청년이 여유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언덕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니 바다를 향해 설치한 액자 조형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푸른 동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기 좋은 포토스폿이다. 사진의 주인공처럼 액자가 가운데에 서자 눈앞에 새하얀 파도가 넘실거린다. 근처에는 바다 바로 앞까지 이어진 나무 테이 설치돼 있다. 바다를 옆에 두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해안 산책로다. 세찬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간절곶과 달리 걷는 내내 잔잔한 바다가 동행한다. 송정공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찾는 이가 적어 조용히 사색하기 좋다.



3

071

겨울 바다를 품은 오션 뷰 카페

겨울 바다는 좋지만 웃깃을 파고드는 추위는 피하고 싶다면 해변에 자리한 카페를 찾아가자. 울주 앞바다에는 생동감 넘치는 파도와 황홀한 일출을 통창 너머로 감상할 수 있는 오션 뷰 카페가 여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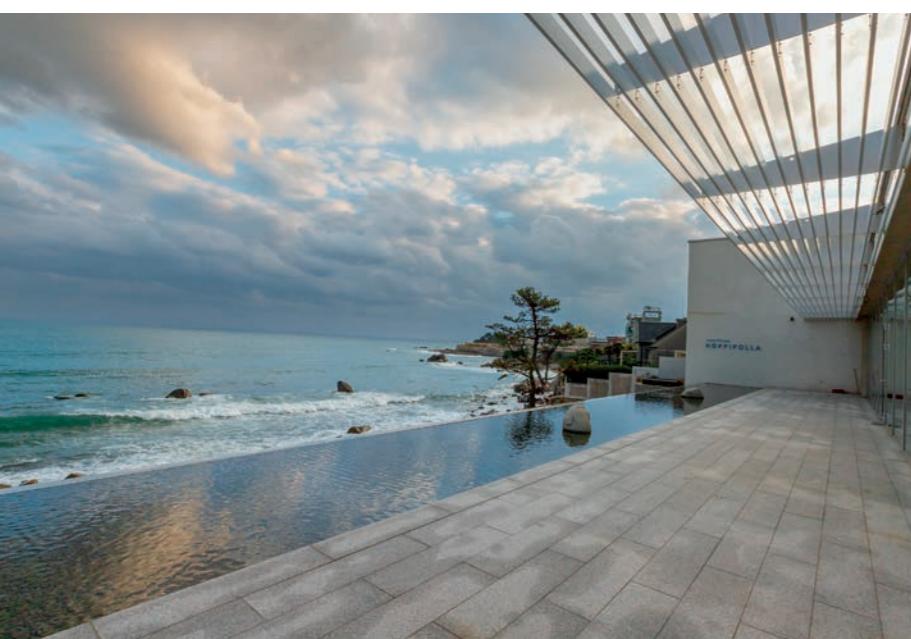
그중 나사 해변을 앞마당으로 둔 호피폴라는 최고의 일출 명소로 꼽힌다. 전면에 통창을 내 어느 테이블에 앉아도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 새벽부터 일출을 기다리는 손님을 위해 24시간 운영 한다. 호피폴라는 울주 해변에 카페가 드물던 2018년 5월에 문을 열었다. 해맞이 명소인 간질곶과 가깝고 주변 자연경관이 아름다우며, 커피와 베이커리 맛도 뛰어나 자연스레 손님이 모여들었다. 입소문을 탈수록 대기 손님이 많아지자 넓은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다양한 좌석을 마련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지금의 호피폴라다. 독특한 카페 이름은 아이슬란드 가수 시구어 로스의 노래 제목에서 따왔다. ‘물웅덩이에 뛰어 들다’라는 뜻처럼 바다를 최대한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에 각별히 신경 썼다. 먼저 건물과 바다 사이 울타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테라스 좌석을 마련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2층 야외 공간에는 가장 자리에 펜스를 설치하는 대신 물이 흐르는 사각 구조물을 두어 장애물 없이 바다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전망과 안전을 함께 쟁긴 것이다.

호피폴라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제주를 콘셉트로 했다는 점이다. 카페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지로 가꾸고 싶었던 강동주 대표는 울주를 ‘울산의 제주’로 해석했다. 1층 야외 테라스 한편에 잎이 무성한 야자수를 심고 돌하르방을 두어 제주의 풍경을 연출한 것. 청명한 바다를 배경으로 야자수 그늘 아래 앉아 있노라면 정말 제주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매장에서는 24시간 내내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방문객을 유혹한다. 인기 메뉴는 ‘댕유자’. 기다랗고 부드러운 빵 안에 상큼한 유자 크림이 가득 들었다. 제주에 온 듯한 기분을 한껏 느끼려면 ‘한라망고 에이드’를 추천한다. 생망고를 갈아 넣어 만든 음료로 달콤함과 청량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울주에서 방문해야 할 또 하나의 오션 뷰 카페는 ‘시네마 뷰’를 품은 그릿비. 아이맥스 영화관 스크린처럼 거대한 유리창이 있고, 테이블을 계단식으로 배치해 시야에 걸리는 것 없이 탁 트인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신암리 해인가에 자리한 그릿비는 도로 옆에 난 작은 언덕을 올라야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거대한 회색 상자를 쌓아 올린 듯한 외관부터 범상치 않다. 건물 뒷면은 창문 하나 없이 매끈해 어떤 곳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전면에서 보면 너른 테라스 좌석과 시



1

2



3



4

1 카페 호피풀라 2층엔 펜스
대신 물이 흐르는 구조물을
설치해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2 제주를 콘셉트로 한
호피풀라의 인기 메뉴, 토마토
포카지아와 댕유자, 한라망고
에이드. 3 울주 앞바다를 시네마
뷰로 만끽하는 카페 그릿비.
4 카페 그릿비의 인기 메뉴인
밀푀유 식빵과 그릿비슈페너,
유자후르츠베리.



1

원한 유리창이 여유로운 휴양지를 연상시킨다. 2022년 울산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한 건물로 인테리어도 특별하다. 안으로 들어서면 높은 층고와 탁 트인 뷰가 먼저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매장 한가운데에는 갓 구운 빵이 진열돼 있어 달달하고 고소한 향이 빨결음을 불든다. 그중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인 밀푀유 식빵과 달콤한 크림을 올린 그릿비슈페너, 패션프루트로 식감에 재미를 더한 유자후르츠베리를 주문해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는 그릿비의 하이라이트인 오픈 시네마 좌석이 있다. 이름대로 스크린처럼 커다란 유리창에 역동적인 울주의 앞바다가 펼쳐지고, 단차를 둔 테이블이 빼곡하게 놓여 있다. 7월 14일쯤 되는 명당에 앉으니

당장이라도 파도가 덮쳐 올 듯하다. 카페를 나설 때쯤에는 잘 만든 4D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기분이 든다.

명선도, 그 환상의 세계로

마치 물 위를 달리듯 바다 쪽으로 바짝 붙은 해안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불쑥 고개를 내민 간절곶등대가 나타나고 곧너른 백사장이 펼쳐진다. 울산 제일의 해변, 진하해수욕장이다. 이곳은 기세가 남다른 울산의 파도를 살짝 비껴 앉아 평온한 바다를 품고 있다. 겨울바람을 타고 몸집을 부풀리며 달려오던 파도도 이곳에 닿으면 스르르 긴장을 풀어 놓는다. 백사장 뒤편으로는 소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잔잔하고 포근한 풍경 덕분일까. 진하

1 해가 지자 미디어 아트와 조명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명선도. 2 진하해수욕장과 명선도 사이에 부교를 설치해 언제든 오갈 수 있다.

해수욕장은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에서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지음’이 ‘초원’과 나란히 걷는 장면에 등장하기도 했다.

진하해수욕장의 백미는 바다 위에 덩그러니 떠 있는 섬, 명선도. 면적 6744제곱미터, 둘레 330미터의 아담한 무인도다. ‘을 명(鳴)’에 ‘매미 선(蟬)’ 자로, 여름에 매미가 많이 운다고 하여 붙은 이름인데, 겨울에 만난 명선도는 한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이 작고 평범한 섬이 어쩌다 울주 대표 관광 명소가 됐는지 궁금하다면 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늘과 바다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명선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다. 섬 전체를 무대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고 화려한 조명이 형형색색 불을 밝히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파도가 철썩이는 바위에 푸른 보석이 깔리는가 하면, 가파른 절벽에 오색찬란한 폭포가 쏟아지고, 숲길 중 간중간에선 영롱한 자태의 동물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하다. 영화이나 나올 법한 황홀한 풍경에 ‘아바타 섬’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도 “사슴이다!” “거북이다!”를 외치며 테마파크 같은 섬에 빠져든다. 명선도는 지난 여름부터 ‘태양을 품은 섬, 명선도’를 주제로 기존 콘텐츠를 리뉴얼하고 신규 콘텐츠를 더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세상의 모든 빛이 태양을 품은 명선도로 모인다’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잠든 태양, 태양의 박동, 붉은 물결, 해파랑 쇼 등을 추가해 총 18개 공간을 구성했다. 게다가 환상의 섬에 가는 길도 쉬워졌다. 본래 물때에 맞춰 바닷길이 열릴 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부교를 설치해 언제든 드나들 수 있게 됐다.



2

When the Sea Becomes Something More

At the point where the deep blue East Sea meets the land stands a stone monument engraved with the words, “When the sun rises at Ganjeolgot, morning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Ganjeolgot Cape, one of Korea’s most beloved sunrise destinations. The sun rises here five minutes earlier than at Jeongdongjin in Gangneung and about a minute earlier than at Homigot in Pohang. Because of that, on December 31 each year, crowds from across the country gather to greet the first dawn of the new year. The Ganjeolgot Sunrise Festival, held through January 1, fills the coast with music, drone shows, and concerts.

Just two minutes away by car lies Songjeong Park, where you can see Ulju’s sea from a local’s perspective. Surrounded by pine trees, this secluded spot features a large picture-frame sculpture and a quiet coastal walkway — perfect for reflection in peace and solitude.

Following the coastal road that hugs the water, you soon glimpse Ganjeolgot Lighthouse, and beyond it the wide stretch of Jinha Beach, Ulsan’s most famous shore. Sheltered slightly from the city’s powerful waves, it offers calm waters and soft white sand. Off the coast floats Myeongseon Island, a small islet that becomes the centerpiece of a nighttime media-art show. As the lights burst into color across the dark sea, the island transforms into a dreamlike stage shimmering against the horizon.

Address Daesong-ri, Seosaeng-myeon, Ulju-gun, Ulsan (Ganjeolgot Cape); 96, Songjeong 1-gil, Seosaeng-myeon, Ulju-gun, Ulsan (Songjeong Park); 77, Jinhaebyeon-gil, Seosaeng-myeon, Ulju-gun, Ulsan (Jinha Beach)



인류의 발자취를 따라

거대한 공룡 발자국에서 시작한
울산 울주 탐험은 선사 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른다. 자연과 도심을
넘나들며 시간 여행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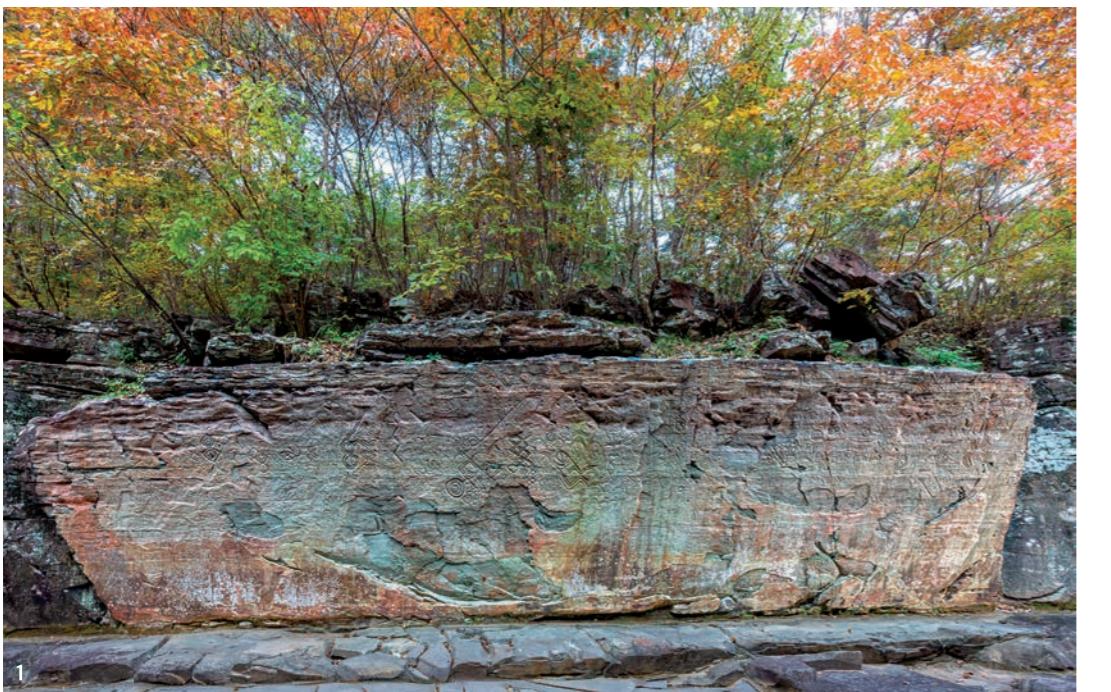
세상에 드러난 바위의 비밀

2025년 7월 12일, 울산 울주 깊숙이 숨겨져 있던 바위가 전 세계에 모습을 드러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된 것이다. '약 6000년에 걸쳐 이어진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는 평가를 받으며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 이어진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아우른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1970년 12월 24일 한 연구원이 발견하면서 세상에 그 존재가 알려졌다. 당시 스물 아홉 살로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속이었던 그는 원효대사가 살았던 '반계계곡의 높은 곳'이라는 뜻의 반고사(蟠高寺)를 쓴다 반구천에 이르렀다. '반계'는 반구천의 옛 이름이다. 천전리 일대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건 사찰 터가 아닌, 수많은 기호와 한자가 새겨진 거대한 암벽이었다. 이듬해 주민들의 제보로 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반구대 암각화까지 찾아내면서 이 땅의 유구한 시간이 새겨진 거대한 책이 활짝 펼쳐졌다. 반구천으로 향하는 길은 태화강이 안내한다.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태화강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곡천에 닿는다. 울산암각화박물관에서 출발해 걸어서 약 15분 후, 잔잔한 대곡천을 사이에 두고 높이 약 4.5미터, 너비 8미터의 반구대가 그 신묘한 모습을 드러낸다.

반구대에서 기억해야 할 동물은 단연 고래다. 한반도 사람과 고래의 인연은 약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위에 새겨진 300여 점의 그림 중 50점 이상이 고래 그림이다. 새끼를 등에 업은 귀신고래부터 무리





1 선사 시대부터 신라 시대에 이르는 기록이 빼곡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2 천전리 일대에서 확인되는 느긋한 공룡 발자국. 3 망원경으로 대곡천 건너편 반구대 암각화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지어 헤엄치는 북방긴수염고래,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혹등고래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배를 타고 작살로 고래를 잡는 모습과 사냥한 고래를 나누는 모습도 묘사돼 있다. 고래가 삶의 중요한 자원이었던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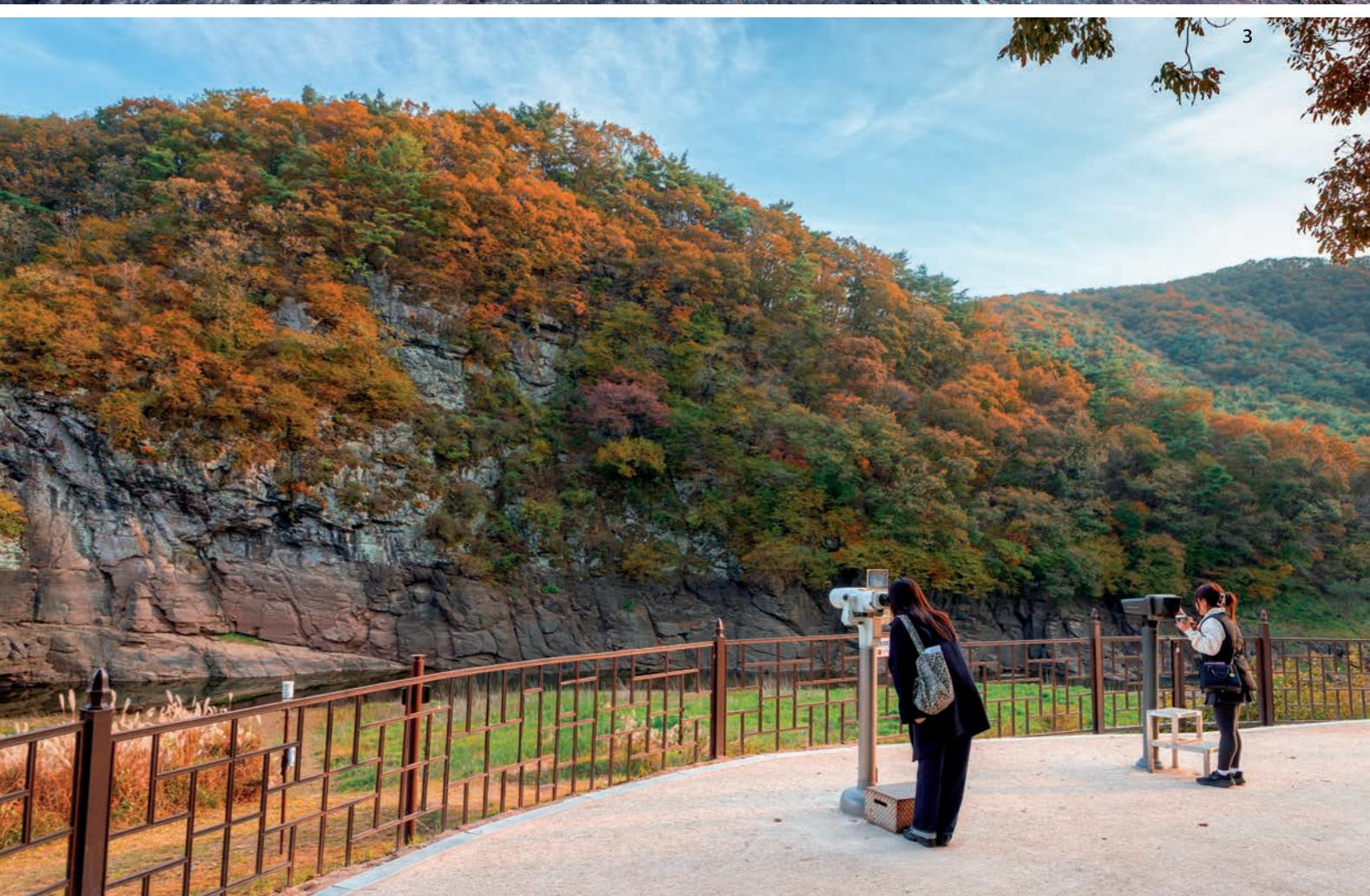
대곡천을 따라 약 2킬로미터 이동하면 반구대 암각화와는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진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가 등장한다. 높이 약 2.7미터, 너비 9.8미터 바위에 기하학무늬와 기마 인물, 동물 등 62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선사 시대부터 신라 시대에 이르는 기록도 빼곡하다. 특히 신라 법흥왕 일가가 남긴 명문은 사료적 가치가 높다. 어떻게 선사인의 그림이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 지금까지 남을 수 있었을까. “바위 윗면이 앞쪽으로 25도 기울어져 있어 비바람을 막아 줬기에 그림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울산암각화박물관 고명숙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대곡천을 건너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이번엔 공룡 발자국이다. 웅장한 암벽 아래, 평평한 바위가 길게 늘어선 천전리 일대에서는 둥그스름한 발자국이 걷는 내내 함께한다. “공룡 발자국을 보면 방향이나 간격만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천적에 쫓기는 긴박한 발자국이 있는가 하면, 살금살금 도망가는 발자국도 있죠. 천

전리의 공룡은 걸음이 느긋한 것으로 보아 날씨가 좋은 날 온 가족이 소풍을 즐긴 것 같아요.” 집채만한 것 부터 사람 손바닥만한 것까지 크고 작은 발자국을 차근차근 되짚어 본다. 따스한 햇볕 아래 물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공룡 가족이 눈앞에 그려져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신비로운 전설을 품은 선바위

백운산에서 발원한 태화강은 치술령의 대곡천과 만나 범서에 이른다. 유독 물빛이 푸른 이곳에는 백룡이 살았다는 백룡담과 우뚝 솟은 선바위가 자리한다.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도로를 달리다 웅장한 선바위에 반해 잠시 차를 멈춰 세웠다. ‘선돌’이라고도 부르는 이 바위는 높이 33.2미터, 둘레는 46.3미터에 달한다. 크기도 크지만 이 부근의 지질이나 암층과는 전혀 다른 암질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선바위의 독특한 풍경을 보고 감탄사를 터뜨린 건 옛 선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부터 명승지였던 선바위에는 향인들이 찾아와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며 자연을 즐겼다. 바위에서 뿐어져 나오는 영험한 기운에 날이 가을 때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리기도 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 백룡담의 청량한 물과 바위





1

1 푸른 백룡담 위에 우뚝 솟은 선바위. 2 언양읍성의 영화루 너머로 은은한 노을빛이 번진다.

뒤편의 고즈넉한 선암사가 대비를 이뤄 더욱 신비롭다. 어디서 툭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 바위의 연원을 되짚어 백악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상분지 대구충에 해당하는 퇴적암 지층이 깎아면서 계곡 면에 절벽을 이뤘다. 이후 침식으로 인해 약해진 암석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 하나의 돌기둥이 덩그러니 남아 있는 하식에는 드문 경우라 더욱 경이롭다.

돌담 아래 흐르는 시간, 울주 언양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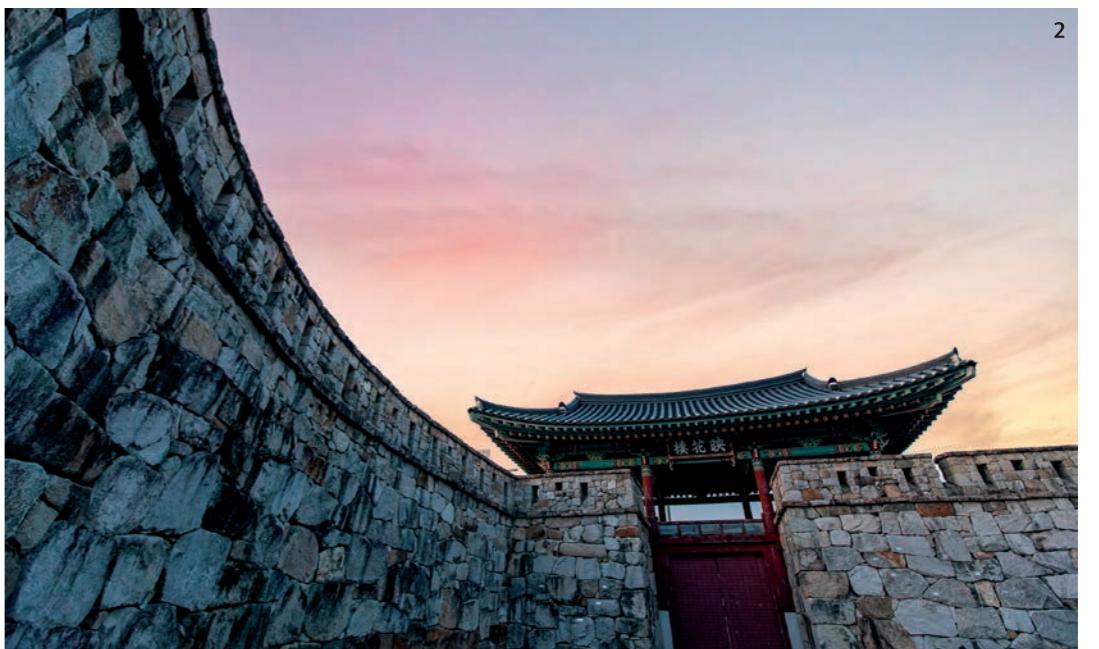
바다와 강에서의 긴 탐험을 마치고 시내로 들어섰다. 매끈하게 뻗은 도로와 네모반듯한 건물이 즐비한 도심에 닿으니 마치 수천 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다.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선사인들의 흔적이 전생처럼 마음에 남았다. 아쉬운 마음에 울주의 마지막 여행지는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한 울주 언양읍성으로 정했다.

언양 불고기 거리를 벗어나 비교적 한산한 뒷길로 들어서자 너른 평지와 함께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을 품은 성곽이 이어진다. 도시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한 읍성이 신기하면서도 반갑다. 울주 언양읍성은 산을 둘러싼 대부분의 성곽과 달리 평지에 직사각형으로 지어 독특한 풍경을 이룬다. 불규칙하게 배열된 흙빛의 돌 위로 가지런히 쌓인 회색 돌까지, 두 시대가 나란히

겹쳐 있는 점도 특별하다. 읍성이 자리한 언양읍 동부리는 본래 경주, 울산, 밀양, 양산과 통하는 지방 행정 및 군사 중심지였다. 1390년 토성으로 축조한 뒤 1500년 현감 이담룡이 석성으로 고쳐 쌓으며 규모를 확장했다. 이때 사대문과 12개의 치성, 해자를 조성하면서 성의 외연도 갖추게 됐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당시 성 둘레는 약 1500미터, 높이는 6.3미터에 이르렀다. 성안에는 각종 관아를 비롯해 동헌과 객사가 촘촘히 들어서 있었다. 이후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의 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 손실되었다가 1991년에 시작된 복원 작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북문에서 시작해 읍성을 가로지르는 길은 영화루에서 끝난다. 영화루는 남문 위에 지은 누각으로 2013년에 복원했다. 과거 군사들이 오르내리던 돌계단을 밟고 영화루에 오르니 멀리 언양 불고기 거리가 내려다 보인다. 화려하고 번잡하게 느껴졌던 도심이 놀랍게도 한없이 평화로워 보인다. 보름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저녁 무렵, 삼삼오오 저녁을 먹으러 나온 이들의 웃음소리가 텅 빈 성안에 울려 퍼진다. 영화루에서 마을을 굽어보던 옛사람의 마음도 이랬을까. 기쁨, 희망, 행복 같은 벽찬 단어들이 차곡차곡, 성곽을 이룬 돌처럼 마음에 쌓인다.

2



083



Tracing the Marks of Humanity

The UNESCO World Heritage-listed Bangudae Petroglyphs stretch across roughly three kilometers along the winding waters of the Daegokcheon stream, connecting the petroglyphs of Bangudae Terrace in Daegok-ri and the petroglyphs of Cheonjeon-ri. The animal to remember at Bangudae is, without question, the whale. The deep relationship between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les reaches back nearly six thousand years. Of the more than three hundred engravings at Bangudae, over fifty depict whales. The carvings portray everything from a gray whale carrying its calf on its back, to bowhead whales swimming in groups, to humpback whales breaching above the surface, each rendered with remarkable delicacy. Following the stream for about two kilometers brings you to the petroglyphs of Cheonjeon-ri, whose imagery has a distinctly different character. Here, more than 620 designs — geometric patterns, mounted figures, animals and more — are etched into a rock face approximately 2.7 meters high and 9.8 meters wide.

As you walk through the Cheonjeon-ri area, a series of rounded dinosaur footprints accompany you along the path. Paleontologists say you can infer ancient behavior from the direction and spacing of the prints. The dinosaurs of Cheonjeon-ri appear to have been moving at a gentle pace, as if an entire family were out for a leisurely stroll on a fine-weather day.

Nearby stands a massive monolith known as “seondol,” rising 33.2 meters high with a circumference of 46.3 meters. Its immense scale is striking, but even more captivating is its composition, which differs entirely from the surrounding geology.

Leaving the busy streets of Eonyang Bulgogi Street behind and turning onto a quieter back road, you soon come upon a wide, open plain and the unmistakable outline of ancient walls. Unlike most fortifications that embrace the contours of a mountain, Eonyangeupseong was built on flat ground in a rectangular layout, giving it a distinctive and uncommon silhouette in the landscape.

Address San234-1, Daegok-ri, Eonyang-eup, Ulju-gun, Ulsan (Bangudae Petroglyphs); 6-1, Modubak-gil, Beomseo-eup, Ulju-gun, Ulsan (Seonbawi Rock); 306-1, Dongbu-ri, Eonyang-eup, Ulju-gun, Ulsan (Eonyangeupseong Walled Town)

겨울 강릉의 낭만



제작 지원 강릉시립미술관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눈 쌓인 안반데기와 추억의 정동진역,
운치 있는 명주동 거리와 강릉시립미술관.
여기에 속을 뜨끈하게 데워 주는
초당순두부와 감자옹심이까지, 낭만 가득한
강원도 강릉으로 겨울 여행을 떠났다.



1

강릉이 그려 낸 예술의 궤적
강릉시립미술관

2006년에 개관한 강릉미술관이 2013년 강원도 유일의 시립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강릉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이다. 2024년에는 소나무가 많아 '솔울'이라 불리던 옛 교동 일대에 솔울미술관이 들어섰다. 2025년 강릉시가 이곳을 직접 운영하면서 '강릉시립미술관 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현재 강릉시립미술관은 교동관과 솔울관으로 나뉘어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선보인다. 교동관은 지역 작가를 발굴해 대중에게 소개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며 예술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이끌고 있다. 예스러운 건물과 구시가지 풍경이 매력적인 교동관과 달리, 솔울관은 백색의 미니멀한 건축물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의 설계 철학이 깃든 건물로, 빛과 유리를 주 소재로 사용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진 것이 특징이다. 건물 안에서 창밖의 주변 숲이나 공원 풍경이 액자처럼 보이도록 구성한 것도 재미있다.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건축 공간 자체가 작품이자 새로운 경험이 것이다. 솔울관에서는 내년 1월 18일까지 미국 팝아트 작가 캐서린 번하드의 특별전 <인사이드 더 스튜디오>가 방문객을 맞는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회부산로 40번길 46(교동관), 원대로 45(솔울관) 문의 033-640-4271(교동관), 033-660-2446(솔울관)



2



3

1 강릉시립미술관 솔울은 자연을 담는 백색의 예술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했다. 2 건축물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연출된 수변 공간이 인뜰까지 이어진다.
 3 현재 진행 중인 캐서린 번하드의 특별전 <인사이드 더 스튜디오>는 작가의 작업 공간을 전시관에 옮겨 놓고 작가의 작품 세계를 탐구하도록 기획했다.

1 초당순두부마을에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순두부 식당 40여 곳이 자리한다. 2 담백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인 순두부 전골.

3 바다의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한 초당순두부마을 내 소나무 숲이 인상적이다.

4 병산마을 감자옹심이골목에는 감자 옹심이부터 감자전, 장칼국수, 메밀 전병까지 강릉의 다양한 토속 음식을 내는 식당들이 모여 있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20-1(초당순두부마을), 성덕로 168(병산마을 감자옹심이골목)



4

| 2 |

강릉의 맛을 책임지는 초당 순두부와 감자 옹심이

강릉 도심을 여행하다 보면 조선 시대 문인 허균과 하난설현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초당순두부마을 역시 이들 남매와 인연이 깊다. 강릉부사로 부임한 아버지 허엽이 집 앞 샘물로 콩물을 끓이고 바닷물로 간을 맞춰 두부를 만든 것이 초당순두부의 시작이었다. 그의 호를 따 순두부에 '초당'이 붙었고 오늘날까지 강릉의 별미로 사랑받고 있다. 이 마을의 식당 대부분은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 저마다 전통 방식을 지켜 오고 있다는 뜻. 강릉의 초당 순두부는 염화마그네슘이 풍부한 해수를 간수로 사용해 일반 두부보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콩물이 끓는 동안 주걱으로 계속 젓고, 끓는 물을 식힌 뒤 간수를 조금씩 부어 만드는 것도 부드러운 맛의 비결이다. 가마솥 앞에서의 오랜 기다림은 깊은 맛으로 이어진다. 강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별미는 감자 옹심이다. 강릉의 서늘한 기후와 배수가 잘되는 토양은 감자가 생육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특히 안목해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병산마을은 질 좋은 감자 산지로 유명하다. 덕분에 이 일대에는 담백하고 쫄깃한 감자 요리 전문 식당이 성업을 이룬다. 감자 옹심이는 쌀이 귀하던 시절, 강원도 정선과 영월 지역에서 감자 반죽을 새알처럼 빚어 끓여 먹기 시작한 데에서 유래했다. 곱게 간 감자를 반죽해 동그랗게 빚고 멸치 육수에 갖은 채소와 함께 넣고 끓여서 김 가루, 깨소금 등의 고명을 얹으면 뼛속까지 뜨끈해지는 감자 옹심이가 완성된다. 갓 부쳐 낸 쫀득하고 담백한 감자전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다.



1

| 3 |

강릉의 운치와 멋을 선도하는 명주동 거리

고려·조선 시대에는 관이가, 현대에 와서는 시청이 자리해 강릉의 행정 중심지였던 명주동. 2001년 강릉시청이 현재의 자리인 홍제동으로 이전하고, 안목해변 카페 거리 같은 새로운 번화가가 등장하면서 명주동을 찾는 발걸음이 차츰 줄어들었다. 그렇게 빛바랜 골목이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한 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면서부터였다. 1958년에 문을 연 작은 공연장 '단'을 중심으로 옛 방앗간과 낡은 적산가옥이 멋스러운 카페와 아기자기한 소품 속으로 탈바꿈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이끌며 마을을 소개하는 모습과 오래된 목조 주택과 기와집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은 소박하면서 정겹다. 명주동 거리에서 찾은 카페는 파인파인. 60년 넘은 적산가옥을 카페로 개조해 강릉을 대표하는 소나무 향을 담은 음료와 디저트를 선보인다. 김성용 대표는 학업을 위해 강릉에 왔다가 이곳의 매력에 이끌려 정착했다. 조리학과를 졸업한 그는 소나무꽃에서 채취한 송홧가루를 이용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커피와 양갱, 꽂빵을 선보인다. 파인파인의 대표 메뉴는 송홧가루의 고소한 향을 담은 송화커피. 솔잎의 상쾌한 향과 부드러운 송화크림이 어우러진 솔향 꽂빵, 송홧가루를 넣어 은은한 단맛이 도는 송화 양갱도 지나칠 수 없다. 적산가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원도심의 운치가 어우러진 파인파인에서 강릉의 맛을 만끽하자.

092

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 11-2(파인파인) 문의 0507-1334-8889



1 카페 파인파인은 강릉 대표 식재료로 만든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한다. 2 오래된 목조 주택과 적산가옥 등 강릉의 옛 모습이 잘 보존된 명주동 거리.
3 카페 파인파인 내부. 이 오래된 적산가옥은 1910년대에 카바레로 사용하기 위해 지었다는 후문이 있다.

093

4

사람의 땀방울이 이룬 장관 **안반데기**

사실 안반데기의 진짜 얼굴은 초록 물결이 넘실대는 여름에 만날 수 있다. 해발 1100미터 고랭지 평원에 펼쳐진 배추밭과 감자꽃,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하지만 겨울에 안반데기에 가야 할 이유도 넘치도록 충분하다. 차고 쾌청한 겨울 공기 속으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할 때 안반데기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눈 쌓인 배추밭은 또 어떤가. 안반데기에 흰 눈이 소복소복 내려앉으면 초록색 언덕이 막 정비를 끝낸 스키장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 안반데기라는 이름은 떡을 칠 때 사용하는 오목하고 넓은 떡판 '안반'과 평평한 땅을 뜻하는 '데기'를 합쳐 지은 것이다. 안반데기가 지금의 풍광을 이루게 된 건 1960년대 이후다. 정부 주도의 화전민 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강원도 고지대로 모여들었다. 화전민들은 기계농이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가파른 안반데기의 산을 깎아 밭을 일구고 곡괭이와 삽으로 농사를 지었다. 안반데기가 사계절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강릉 대표 관광지가 된 건 이렇듯 힘겨운 시절을 살아 낸 이전 세대의 땀방울 덕분이다. 주차장에서 마을의 가장 높은 곳까지는 도보로 20분 남짓 걸린다. 옛날에는 거친 산길이었을 길을 쉬엄쉬엄 걷다 보면 어느새 아득한 고원 위로 주홍빛 해가 떠오른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길 428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역길 17



| 5 |

청춘의 한 시절을 간직한 정동진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슨 이유로든 찾았을 추억의 장소, 정동진역.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자 국내에서 첫손에 꼽히는 일출 명소다. 1962년 탄광 산업 관련 인구가 밀집했을 때만 해도 정동진 인근에는 5000여 명이 거주했으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점차 활기를 잃었다. 이후 정동진역이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한 건 드라마 <모래시계>의 배경지로 등장하면서였다. 배우 고현정이 승강장에 앉아 바라보던 바다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았다. 덕분에 정동진 일대의 관광업이 활성화되었고, 세계 각국의 시계 3000여 점을 전시한 정동진시간박물관, 세계 최대 규모의 모래시계를 설치한 모래시계공원, 배 모양의 썬크루즈 리조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들어섰다. 강릉 바다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면, 해안 지형이 부채를 펴친 모양과 닮은 '정동진곡 바다부채길'을 걸어 보자. 썬크루즈 리조트부터 심곡항까지 이어지는 약 2.8킬로미터의 해안 산책로는 해안단구와 둥돌해변, 거북바위 등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며 서로 다른 풍경을 펼쳐 보인다.

1 드라마 <모래시계>에 정동진역이 등장한 후 관광 명소가 됐다.

2 강릉에 KTX가 들어서기 전 서울 청량리역에서 정동진역까지 약 5시간 걸렸다. 이제는 서울에서 약 2시간이면 강릉에 닿는다.

3 세월이 흘러 정동진역은 모두에게 추억이 되었지만, 정동진의 아침 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떠오른다.

The Romance of Winter in Gangne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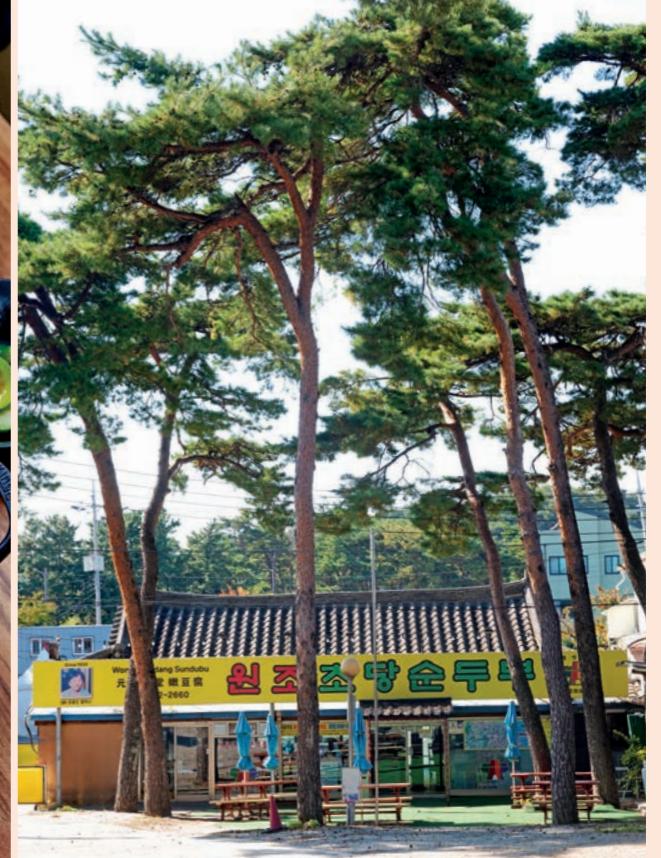
1 Gangneung Art Museum

Opened in 2006, the Gangneung Art Museum became the city's only municipal art museum in 2013. In 2024, Sorol Art Museum was added in Gyodong, an area once called Sorol for its abundant pine trees. In 2025, the city took over its operation and renamed it Gangneung Municipal Art Museum Sorol. Gangneung now operates two main venues: Gyodong Hall and Sorol Hall. Gyodong Hall focuses on local artists and community art education. Sorol Hall, meanwhile, draws attention for its minimalist white building designed around architect Richard Meier's philosophy. Light and glass play central roles, creating a seamless connection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with views of the surrounding forest and park framed like living paintings. The building itself feels like a work of art. Sorol Hall is currently hosting the special exhibition *Inside the Studio* by American pop artist Katherine Bernhardt, on view through January 18 next year.

Address 46, Hwabusan-ro 40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Gyodong Hall); 45, Wondae-ro, Gangneung-si, Gangwon-do (Sorol Hall) **Contact** 033-640-427 (Gyodong Hall), 033-660-2446 (Sorol Hall)



Anbandegi, Jeongdongjin Station, the streets of Myeongju-dong, Gangneung Art Museum, and warm bowls of Gangneung comfort food. Winter sets the perfect stage for a journey to Gangwon-do's beloved coastal city, Gangneung.



2

The Flavors of Gangneung

Traces of Heo Gyun and Heo Nanseolheon, siblings and renowned writers of the Joseon era, can be found throughout Gangneung. Chodang Sundubu Village is closely tied to their family. When their father Heo Yeop served as magistrate of Gangneung, he made tofu using spring water from the well in front of his house and seawater as brine. This became the origin of Chodang sundubu (soft bean curd). Named after Heo Yeop's pen name, Chodang, this style of tofu remains one of Gangneung's most beloved specialties. Made with seawater brine and stirred slowly while adding brine little by little, the tofu is softer, creamier, and richer than ordinary varieties. The patience required at the cauldron reveals itself in the depth of its flavor. Another signature dish is gamja ongsimi, potato ball soup. It is closely connected to Byeongsan Village, where potatoes thrive thanks to the cool climate and well-drained soil. Grated potatoes are kneaded into dough, then simmered in anchovy broth with vegetables. A sprinkle of seaweed flakes and sesame seeds completes the warm, chewy soup. Pair it with crisp gamjajeon (potato pancakes) for the perfect combination.

Address 20-1, Chodang-dong, Gangneung-si, Gangwon-do (Chodang Sundubu Village); 168, Seongdeok-ro, Gangneung-si, Gangwon-do (Byeongsan Ongsimi Alley)



3

Myeongju-dong Streets

Myeongju-dong, once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Gangneung from the Goryeo and Joseon eras to modern times, lost its vitality in 2001 when the city hall moved to Hongje-dong and newer hotspots like the Anmok Beach café strip emerged. The neighborhood began to breathe again when old buildings were transformed into cultural spaces. Around Dan, a 1958 performance hall, former rice mills and Japanese-era houses were reborn as cafés and lifestyle shops. The quiet alleys, wooden houses, and tiled roofs create a charming and nostalgic atmosphere. Among them, the standout café is Fine Pine. This sixty-year-old former Japanese house has been renovated into a space where the essence of Gangneung's pines is infused into drinks and desserts. Their pine-pollen coffee, pine-scented steamed buns, and pine-pollen yanggaeng (sweet jelly) offer a taste of Gangneung steeped in local fragrance and sentiment. Take your time and savor the flavors and history that linger in every corner.

Address 11-2, Gyeonggang-ro 2046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Contact** 0507-1334-8889

4

Anbandegi Village

Most people discover the true face of Anbandegi in summer, when rolling green waves of cabbage fields, blooming potato flowers, and towering wind turbines sweep across the highland plain at 1,100 meters above sea level. Yet Anbandegi in winter reveals a different kind of charm. In the crisp, clear air, sunrise rises sharply against the horizon, and once snow settles like a soft blanket, the green hills transform into a vast white field. The name "Anbandegi" comes from "anban," a concave wooden board used for pounding rice cakes, and "degi," meaning flat land. The landscape we see today was shaped after the government's settlement program for slash-and-burn farmers in the 1960s. With only picks and shovels, they carved steep mountainsides into farmland and built a life here. The serenity of today's scenery is the harvest of their long labor. From the parking area, a smooth 20-minute walk leads you to the village's highest point. As you climb, the sun emerges in shades of deep orange above the sweeping plateau.

Address 428, Anbandegi-gil, Wangsan-myeon, Gangneung-si, Gangwon-do



5

Jeongdongjin Station

Jeongdongjin Station is a place nearly every Korean has visited at least once. Known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 in the country, it is also one of Korea's most iconic sunrise spots. In 1962, when the surrounding area was a bustling coal-mining community, more than five thousand people lived here. The population later declined as the coal industry was restructured, and the town fell quiet. Its revival began when the drama *Sandglass* was filmed here. Viewers flocked to the station to see the very coastline actress Go Hyun-jung gazed upon in the show, and Jeongdongjin quickly regained its energy as a travel destination. Today, the area offers a variety of attractions: the Sandglass Museum with more than 3,000 clocks from around the world, the Sandglass Park with its monumental sand timer, and the iconic Sun Cruise Resort shaped like a ship perched above the sea. For an even closer encounter with the Gangneung coastline, walk the Jeongdong-Simgok Badabuchae Trail, a coastal trail that stretches 2.8 kilometers from the Sun Cruise Resort to Simgok Port. Along the way, you'll see marine terraces, pebble beaches, and Turtle Rock, each contributing to the dramatic scenery.

Address 17, Jeongdongyeok-gil, Gangdong-myeon, Gangneung-si, Gangwon-do



AI가 찾아주는 눈매 뷰티 솔루션 애니그마테크놀로지스

나와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은 주로 어떤 성형수술을 할까? 내 눈에는 어떤 메이크업이 가장 잘 어울릴까? 애니그마테크놀로지스의 피카뷰(Pickabeau, www.pickabeau.co)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준다. 이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에게 꼭 맞는 뷰티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피카뷰는 애니그마 뷰(Anigma View)의 첨단 AI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소비자용 뷰티 솔루션이다. 애니그마 뷰는 애니그마테크놀로지스가 국내 대형 성형외과를 비롯한 병원들과 함께 개발한 글로벌 성형 AI 선도 소프트웨어로, 의료진이 환자의 눈매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돋는다. 사진 한 장으로 눈 형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1만 건 이상의 수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례와 통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상담이 가능하고, 환자는 한층 신뢰 가는 진단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애니그마테크놀로지스의 AI 뷰티 솔루션은 다양한 의료 SCI 논문에도 활용될 만큼 높은 신뢰도와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애니그마테크놀로지스는 AI 기반 안구 분석을 활용한 눈 성형 진단 보조 솔루션 실증을 통해 성형외과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눈 질환인 안검하수, 안검외반, 안검퇴축 등을 의료진이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돋는 AI를 실증했다. 해당 솔루션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성형외과 병원들과 협력해 100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 실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솔루션은 성형외과 의료진의 진료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SCI 국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며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또한 해당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의료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애니그마테크놀로지스는 글로벌 성형 AI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ig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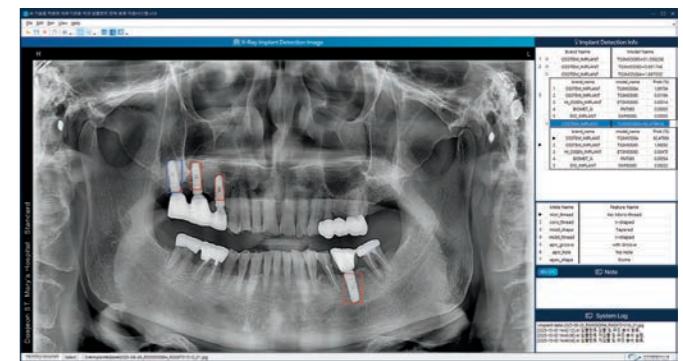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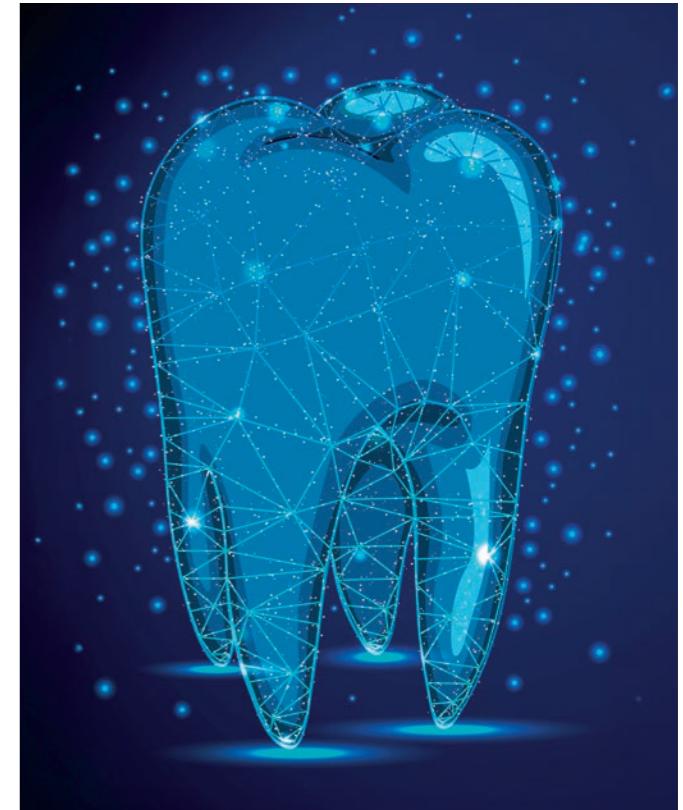
애니그마테크놀로지스는 KAIST 출신 석·박사 연구진이 설립한 미용 및 의료 AI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300곳 이상의 성형외과에 첨단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 현장을 혁신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과학적으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능형 뷰티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AI임플란트 식별로 안전한 임플란트 수술 한국플랫폼서비스기술

임플란트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임플란트 제품(모델)을 일일이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 수많은 제조사에서 다양한 모델이 나오는데, 형태와 나사 타입이 서로 달라 경험이 많은 전문의도 정확히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안내하는데, 이때 환자의 시간적·심리적·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플랫폼서비스기술이 선보인 AI 임플란트 식별 솔루션은 이러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한다. 의료진이 임플란트 제조사와 제품명을 쉽고 빠르게 알아낼 수 있도록 AI가 돋는 것이다. 국내외에 이와 유사한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서비스 형태가 제한적이며 데이터베이스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플랫폼서비스기술은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검색 가능한 10만 개 이상의 엑스선 이미지 데이터와 3만 개 이상의 특징 분류가 가능한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AI 임플란트 식별 솔루션을 의료 현장에 보급하면 시술된 임플란트 모델의 정확한 식별과 세부 정보 파악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진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고, 의료진의 안전한 시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플랫폼서비스기술은 AI 기술을 적용한 자동 식별 및 판독 분류 지원 기능을 탑재한 병원용 의료 서비스도 개발해 현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과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플랫폼서비스기술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AI 분석 솔루션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에 개인정보 비식별 고속화 솔루션을 구축했으며, 부산시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에 실시간 CCTV 영상 처리를 위한 비식별화 솔루션을 납품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는 충북 소재 중소 제조 기업 20여 곳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영상 분석 및 안전 솔루션 구축을 진행 중이다. 그 외에 스마트 제조, 자율 주행 차량, 스마트 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주)한국플랫폼서비스기술
 KOREA PLATFORM SERVICE TECHNOLOGY

한국플랫폼서비스기술은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을 연구하고, 데이터 기반 AI 융복합 서비스 시장 성장에 맞추어 스마트 제조, 스마트 의료, 메타버스 분야에서 관련 빅데이터 및 AI 원천·응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강소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딥러닝 엔진 기술을 적용한 통합 딥러닝 플랫폼 솔루션(SQML),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SQML-DI), 산업재해 영상 분석 및 안전 솔루션(SafetyGuard Vision Pro), 교육용 딥러닝 통합 분석 솔루션(DEEP-SDK) 등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소아 호흡음 4단계 분석 노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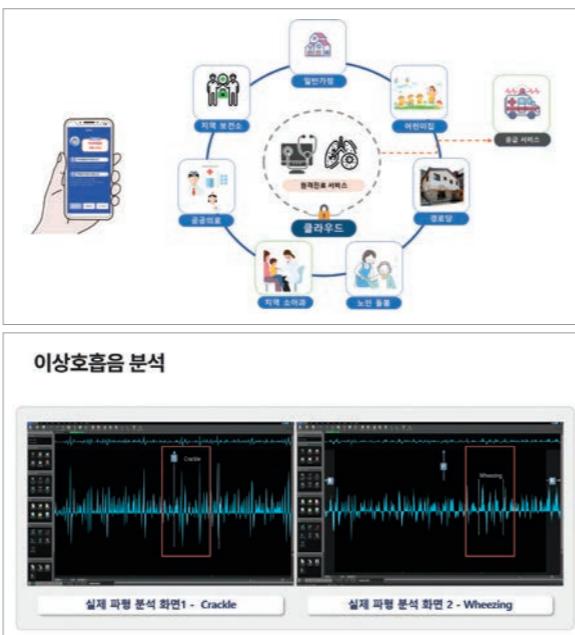
현재 청진기를 이용한 질병 진단에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의 휘발성이다. 소리 기반 진단의 경우 의료 기기 적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노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소아 호흡음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는 의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데이터와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소아 호흡음을 수집하고, AI를 이용해 이상 호흡음 여부를 판단하는 AI 솔루션은 소아폐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노타의 AI 솔루션의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한 호흡음 분석 기술에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호흡음의 정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 기존 전자 청진기를 대체할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호흡음은 정상과 비정상(both, wheezing, crackle)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오진율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모델의 파라미터 수와 연산량(MACs)을 각각 95.4퍼센트, 98.2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서버 없이 모바일 기기에서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해 의료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효과도 얻게 되었다. 기존 청진기는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만, AI 기반 솔루션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점도 가진다.

노타가 선보인 AI 모델은 국내 유일의 소아·청소년 종합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데이터를 대량으로 활용하는 이 솔루션은 실증 가능성에서 경쟁력이 뛰어나고 향후 소아 청진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타는 다년간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며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Nota AI®

노타는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간극을 해소하고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통해 산업 안전, 선별 관제,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삼성, LG, 카카오, 네이버 D2SF 등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엔비디아, 암(Arm)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CB 인사이트에서 AI 최적화 부문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노타는 이러한 기술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코스닥 상장까지 이루며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제작 지원 대전광역시
한국정보통신부
www.korai.com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더 건강해지는 대전!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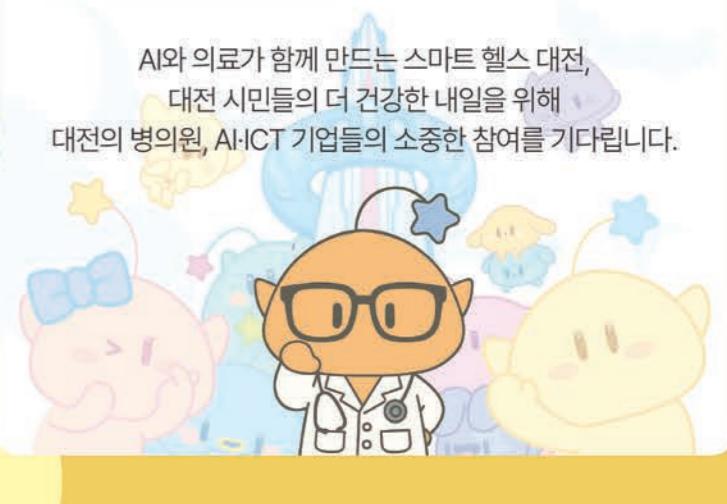
AI 의료서비스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데이터 AI 융합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합니다.



사업소개

대전 K-Health 의료데이터 유통플랫폼	AI의료솔루션 실증지원사업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	대전 ICT-SW 기업 의료솔루션 개발 의료데이터 실증 지원
- 활용대상: AI의료솔루션기업 등 산업계 및 연구계, 학계 - 대전광역시 의료기관	- '25년 컨소시엄 3개사 1년 최대 1.2억 지원 - '26년 지원기업 모집 예정
활용 데이터 확인 및 참여 방법은 ▶	지원 내용 및 참여 방법은 ▶

케어네트워크	의료데이터 안심존
CD 발급 없는 의료 이미지&영상 전달 시스템	민감한 의료, 헬스케어 데이터 오프라인 분석환경 제공
- 건양대학교병원의 의료영상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 - 병원 홈페이지, 모바일웹을 통해 개인 의료영상 간편 신청 발급	- 건양대학교병원 연구 2동 11층 - 개인분석실, 그룹분석실, 컨설팅실 등 연구 환경 제공
참여 방법은 ▶	의료데이터 안심존 활용 방법은 ▶



AI와 의료가 함께 만드는 스마트 헬스 대전,
대전 시민들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대전의 병의원, AI-ICT 기업들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대전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DICIA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Daegu Information &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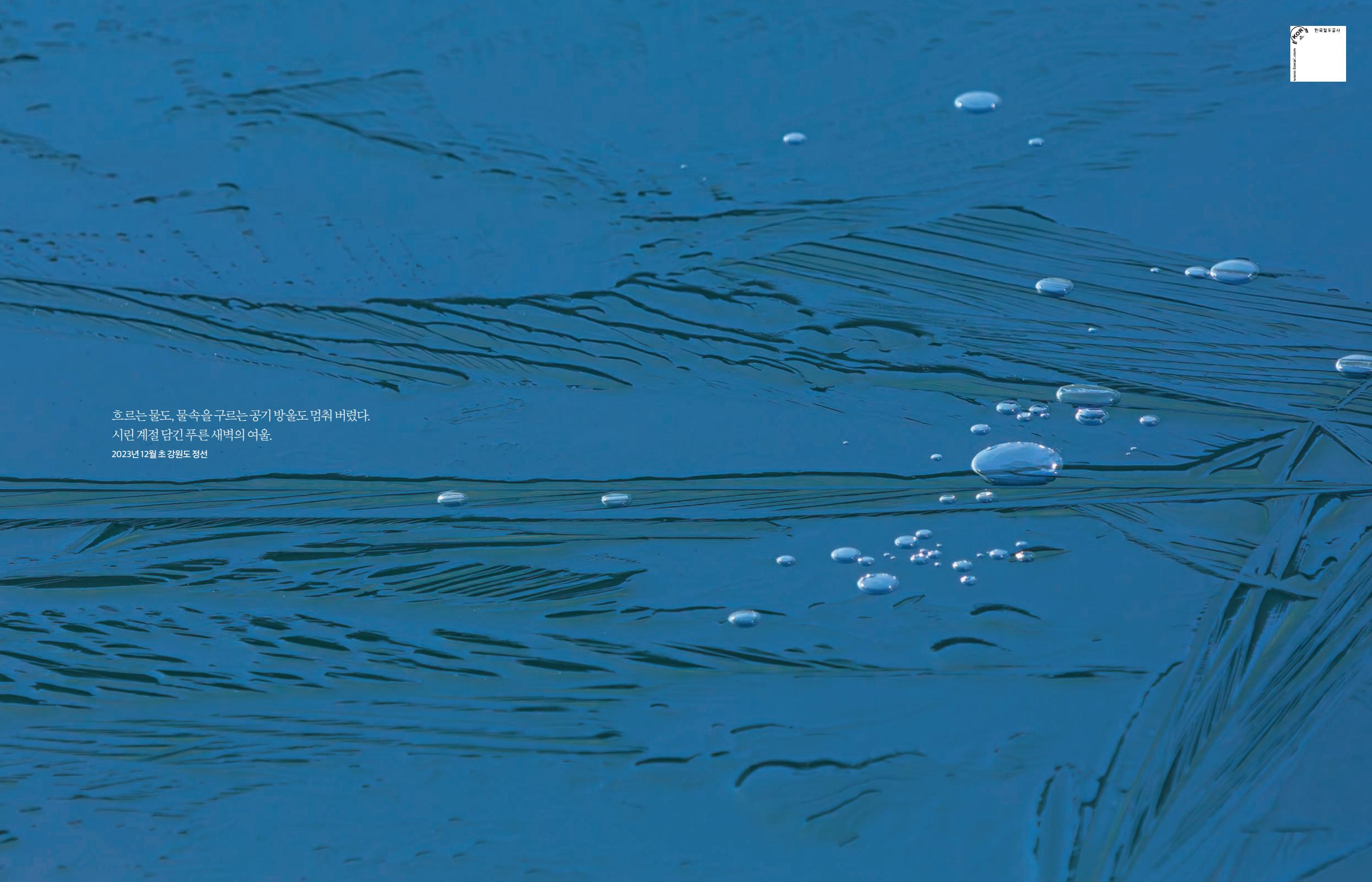


KYU
건양대학교병원
KONYANG UNIVERSITY HOSPITAL

초겨울의 투명함

계곡물이 꽁꽁 얼어붙기 전,
폭설이 세상을 뒤덮기 전에 스치듯 포착되는 초겨울의 빛.
그 투명함에 대하여.

연잎이 물 아래로 고꾸라졌다.
빈 줄기를 휘감는 뜻의 일렁임. 얼음에 갇힌 한낮의 하늘.
2024년 12월 중순 경북 청도



흐르는 물도, 물속을 구르는 공기 방울도 멈춰 버렸다.
시린 계절 담긴 푸른 새벽의 여울.

2023년 12월 초 강원도 정선



겨울 산사에 첫눈이 왔다.

불을 견듯 환한 모과 열네 알. 셋노란 향내가 진동을 한다.

2024년 12월 초 전남 순천

높은 곳을 향해 살았다. 정상에 오르면 멋진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모두가 말했다.
가파른 길을 따라 성실하게 걸어 정상에 다다랐을 때 함께 오르던 몇몇이 낙하했다.
그들에겐 날개가 없었다. 숨이 가빴다. 모두 부러워하는 곳에서 벗어나 샷길을
유랑하기 시작했다. 카이스트 출신 여행가 박성호 이야기다.

샛길 유랑, 여행가 박성호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인생이 재미있어졌다는 거예요.
여행하며 많이 경험할수록 공부하는 것도, 뉴스를 보는 것도 더 재미있어요.

엄마 친구 아들의 비범한 선택

지난 여름, 한 여행가가 쓴 동물 여행 에세이 <여행가의 동물수첩>을 읽었다. 북극의 순록과 사하라의 사막여우, 아마존의 카피바라, 페로 제도의 퍼핀, 나미브사막의 켐스북, 페루의 콘도르 등 야생에서 만난 17종의 동물 이야기가 동화처럼 펼쳐졌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작가 박성호를 검색했다. 대치동 키드, 자사고 진학, 세계창의력을 램피아드 한국 대표,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수석 졸업. 전형적인 ‘엄마 친구 아들’이 완벽하게 디자인된 삶을 뒤로하고 여행가가 된 사연이 궁금했다.

카이스트에 입학한 박성호는 학우들이 연이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걸 지켜봤다. 처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길에 의문이 들었고 도망치듯 입대했다. 누군가가 정해 놓은 길, 그길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했던 삶. 기존의 목표와 방식에 의문이 들자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살아온 삶 바깥쪽을 탐험하고 싶어졌다. 군 제대 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고등학교 조기 졸업 후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료한 뒤 전문 연구 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는 보통의 카이스트 학생들과는 다른 선택이다.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는 말에 주위에서는 학교나 정부 제도를 통한 유학이나 교환학생 신청을 권했지만, 그가 원한 건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카이스트 출신의 여행가

지구 반대편의 풍경은 낯설지만 포근했다. 거대한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동물과 함께 사는 삶에 익숙해질

무렵 뉴질랜드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호주와 비슷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구나! 그는 세계여행을 결심하고 호주로 돌아왔다.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지옥의 일터라 불리는 바나나 농장에 제발로 갔다. 100일 동안 1000만 원 모으기를 목표로 컨테이너 박스에서 스파게티만 먹으며 버텼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년 동안 20개 국 90개 도시를 여행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다시 성실한 학생의 삶을 살았다. 마지막 기말고사를 마친 후에는 어렵게 강당을 빌려 여행 강연을 했다. 직접 포스터와 티켓을 만들고 지방 언론에 초청 메일도 보냈다. 그렇게 돌연변이 카이스트생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됐고, 박성호 작가는 전국구 스타가 됐다. 여행가가 되려고 쌓은 스페인 아니지만 성실한 삶의 궤적은 여행가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됐다. ‘카이스트 출신 여행가’, 그를 찾는 곳이 많아졌다. 2017년에는 여행하면서 틈틈이 블로그에 업로드한 포스트를 다듬어 여행 에세이 <바나나 그다음>을 출간하면서 작가라는 타이틀도 생겼다.

2019년 다시 장기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좀 더 본격적이었다. 꼼꼼하게 계획하고 성실히 기록했다. 여행 작가라는 수식의 무게 때문인지 온전히 여행을 즐기지는 못했다. 그러다 스페인에서 촬영 장비를 모두 도둑맞았다. 여행을 중단할 것인가, 장비를 구매해 여행을 지속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작가는 은둔 생활을 택했다. 조지아 산골 마을에서 인터넷을 끊고 책을 읽으며 몇 달을 보냈다. 자발적 고립과 의도한 고독, 여행의 본질과 면춤에 대해 성찰한 기록을 엮어 2020년 <은둔형 여행 인간>을 출간했다. 말하자면 <여행가의 동물수첩>은 작가의 세 번째 에세이라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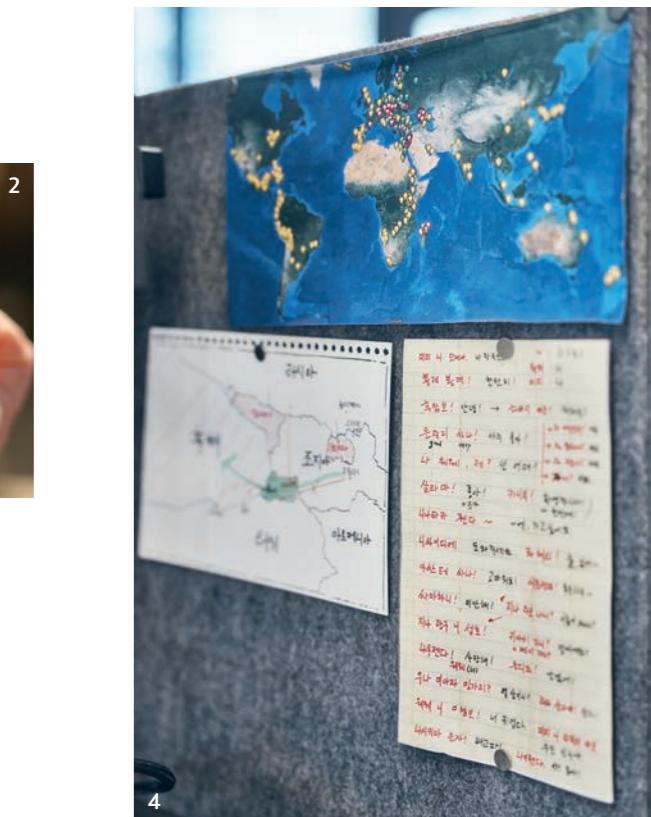


1 글을 쓰고 사진과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여행가의 일. 공동 오피스에 작업실을 차렸다.

2 마다가스카르에서 만난 퍼슨 카멜레온.

3 조지아 산골 마을에 사는 당나귀.

4 여행하는 나라의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 필수 표현을 메모지에 적어 벽에 붙여 뒀다.





<여행가의 동물수첩> 잘 읽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안데스 콘도르요! 4년 전 여행에서 만난 동물 얘기를 책으로 쓰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무조건 안데스 콘도르를 마지막에 넣고 싶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계곡인 페루의 콜카캐ニ언은 콘도르를 보기 위해 찾는 포인트예요. <라이언킹>에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관객처럼 관광객들이 한 방향으로 앉아 콘도르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죠. 매일 출현하는 것이 아니니 조금 긴장하면서요. 그러다 갑자기 5미터가 넘는 날개를 편 거대한 비행체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콘도르는 날갯짓 없이 멀리 나는 새예요. 바람을 가르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데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요.

자유롭게 나는 콘도르가 부러웠나 봐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도 자유로움에 있어요. 여행은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어요. 매 순간 나의 선택이 절대적이죠.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자연을 찾아가면 돼요. 일상은 많은 외부 요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내일은 내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와 달리 여행 중엔 제 선택에 따라 오늘과 내일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유롭죠.

여행하면서 발견한 취향이 있나요?

부유한 나라의 신도심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회일수록 자신의 삶 바깥을 경험할 기회가 많고, 트렌드를 좇는 경향이 있어요. 대도시의 신도심은 서울 강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반면 구도심에는 시간의 흔적과 축적된 이야기가 있죠. 평범해 보이지만 100년이 넘은 빵집, 유명 화가가 살았던 저택, 세계적인 소설가의 단골 술집 같은 것들이요. 서울도 강남보다는 옛 정취가 남아 있는 종로와 경복궁 주변을 좋아해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오지보다 작은 단위의 마을을 선호하고, 기왕이면 관광지는 피하는 편이에요. 관광지는 관광객을 위해 정돈되거나 과장된 얼굴을 하고 있으니 '평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가는 놀라다니면서 돈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행가에게 공부는 꼭 필요해요. 가령 남미 여행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식민지 개척

시대를 연 스페인 레콩키스타부터 다시 공부할 정도로, 이미 아는 것도 꼼꼼히 점검하는 편이에요. 배우고 익히고 기록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아요. 좋아하는 일도 직업이 되면 고통이 되지 않느냐고 묻는데, 여행가는 축복받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지고요. 20대 때부터 10여 년 동안 전 세계 90개국을 여행했어요. 한국인 기준에서는 별일 아닐지 몰라도 세상에는 자신이 태어난 마을을 한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라 밖으로 나간다는 걸 상상조차 못 하는 사람들, 저는 젊은 나이에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든 순간도 있지만, 육체적 고통일 뿐 정신적 고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행은 경험이라기보다 사치의 영역일까요?

사치죠.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돈 쓰면서 놀러 다니는 건 사치의 영역이 맞아요. 그래서 여행 중에 어려운 일을 겪어도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원해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건 잘못이죠. 사실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것도 제 기준일 뿐이에요. 저는 만족감을 느끼는 기준선이 낮아요. 낙후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위생을 문제삼으며 호텔이나 레스토랑 평점을 낮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지역의 위생관념이 이렇구나, 하고 넘기는 편이에요. 불평을 하다 보면 여행하기 어려워요.

사치스러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혼자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외로움을 견디는 힘, 나이가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여행은 외로움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자발적으로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조지아 산골 마을에서 몇 개월 동안 지내다 서울로 돌아오니 외로울 일이 없더라고요. 마음을 평온하고 차분하게 만들어 삶이 와려 단출하고 편안해졌어요.

여행하면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사건이나 현상을 마주하는 태도가 유연해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뭔가 특이한 사람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강의하면서 학생들을 자주 만나는데, 늘 저는 “나와 다른 환경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고 말해요.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두려움을 느끼고요. 문제는 정답이라 여기는 일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여행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주 접하다 보면 인간관계는 이해가 아닌 인정의 문제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일상’의 범위가 넓어져 나와 비슷한 일상을 사는 모두가 이웃처럼 느껴지죠.

내 삶의 바깥쪽을 여행하면서 결국 자신의 삶이 유연해지는 거네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요?

디자이너나 학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공부한 건 잘 써먹고 있어요. 책을 쓰거나 강연할 때 수많은 에피소드 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별해 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디자인 공부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쓸모없는 배움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 카이스트에 진학했고, 카이스트 출신 여행가란 수식어 덕분에 저를 찾는 곳이 많을 거예요. 대학 동기들은 대부분 교수가 됐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세상을 방랑 중이고요. 부럽지는 않아요. 공부를 안 해 봤다면 막연히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한때 같은 길 위에 있었고, 제가 그 길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들의 삶을 지켜봤기에 감히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미있게 여행하는 동안 친구들은 기숙사와 랩을 오가며 공부만 했으니까요.

작가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더 유명해져야 하는 건가 고민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여행하면서 적당히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적당히 안정적인 환경에 만족해요. 더 이상 바빠지고 싶지도 않아요. 큰 목표도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여행에서 파생된 일들도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행하고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불의 세계

이불이란 이름은 오랫동안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해 왔다.

인간과 기술, 시대와 문명,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우리가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된 문제들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치열하게 탐구해 온 작가, 이불의 오래된 세계.





여행의 도시(Civitas Solis II)’(2014).
‘태양의 밤밤의 밤밤다’를 연상시키는 대형 거울 설치작업.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리움미술관 로비는 지금 수많은 관람객으로 술렁이고 있다. “가끔씩 여기가 파리나 뉴욕인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둘러보니 홍보 담당자의 말처럼 한국인과 외국인, 일반 관람객과 미디어 관계자, 어른과 아이, 가족과 친구가 뒤섞인, 꽤 이국적인 풍경이다. 이 흥미로운 문전성시는 무엇보다 이불이라는 작가의 명성 때문일 테다. 지난 40여년 동안 퍼포먼스와 조각, 설치, 평면을 아우르는 실험적 작업을 해온 이불은 동시대 미술의 주요한 작가이자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자로 자리했다. 이번 전시는 <이불: 1998년 이후>라는 제목 그대로 지난 30여 년간 세계 주요 미술관과 비엔날레를 누비며 펼쳐 보였던 그의 방대한 작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국내 첫 대규모 전시다. 1990년대 후반의 ‘사이보그’와 ‘아나그램’, 노래방 연작, 2005년부터 이어 온 건축적 설치 연작 ‘몽그랑레시’, 2010년대에 이르러 시작한 평면 작업까지 조각과 대형 설치, 평면, 드로잉 등

의 작품 150여 점을 한데 모았다. 모리 미술관(도쿄, 2012)부터 팔레드 도쿄(파리, 2015), 헤이워드 갤러리(런던, 2018), 마틴 그로피우스바우(베를린, 2018),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뉴욕, 2024, ‘더 제네시스 파사드 커미션)까지 그간 해외에서 들려온 전시 소식에 발만 동동 굴렀던 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불, 현란하고 위험한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 열기가 단순히 이름값 때 문만은 아님을 실감한다. 이불의 작업이 주는 시각적 충격은 즉각적이고 강렬하다. 전시장 입구 슬로프 공간에 매달린 길이 17미터에 달하는 은빛 비행선이 시선을 압도한다. 20세기 초 독일 기술 발전의 상징이자 비행선의 대명사였지만 충격적인 폭발 사건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체펠린 비행선을 참조한 이 반짝이는 비행선은 기술 진보에 대한 인류의 열망과 좌절을 동시에 상징한다. 그러나 이 역사적 맥락과 함의를 모르

더라도 상관없다. 랜 콜하스의 블랙 콘크리트와 어우러지며 부유하듯 미세하게 흔들리는 비행선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기묘한 경험이 시작된다. 현란하고도 위험한 이불의 세계다.

그렇게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전시 공간으로 들어서면 눈앞에 대규모 거울 설치 작업 ‘태양의 도시 II’가 펼쳐진다. 무한히 반사되는 암흑의 공간 사이에 작가의 초기 대표작들이 흩뿌려지듯 배치되어 있는데, 하나 하나 살펴보기도 전에 이미 그 혼란스러운 세계에 깊숙이 빨려든다. 어쩌면 조금 난해하다고 느껴질 법한 풍경 앞에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작가는 “영화를 보듯 ‘신(scene)’을 만들고 관객을 그 안으로 초대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타임리스(timeless), 어느 시간 대인지 모르겠는,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한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다”는 의도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SF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하지만 이게 유토피아적 신인지 디스토피아적 신인지, 도시인지 폐허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짐짓어 아름다운 건지 추한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감상에 빠지게 된다.

1999년 제48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소개한 노래방 작업 ‘속도보다 거대한 중력 I’ 앞에 유독 많은 관람객이 줄을 서 있다. 고전적 공상 과학 서사에 등장했던 캡슐 형태를 차용했지만, 오늘날 고독한 현대인의 퇴근길 사적 유희 공간이 되어 버린 ‘흔코노’를 연상시키는



노래방 작업 ‘속도보다 거대한 중력 I’
(Gravity Greater Than Velocity)(2000) 안에서 본 전시장 풍경.



전시장 입구 슬로프에 매달려 공기의 흐름과 함께
미세하게 부유하는 작품 ‘취약할 의향-메탈라이즈드 벌룬’
(Willing To Be Vulnerable-Metalized Balloon)(2015-2016/2020).

SF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하지만 이게 유토피아적 신인지 디스토피아적 신인지, 도시인지 폐허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짐짓어 아름다운 건지 추한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감상에 빠지게 된다.



이불의 세계를 암석으로 드러내는 대표작 '몽그랑레시' 바위에 흐느끼...

(Mon grand récit: Weep into stones...) (2005).

한전성을 형한 인간의 육체와 미리적 신체에 대한 공포를

동시에 드러내는 작품 '사이보그 W6(cyborg W6)' (2001). © Lee Bul



1인용 노래방 부스다. 관객들이 안에서 홀로 오아시스나 아바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전시장 입구 벽면에는 노래방 모니터 화면이 플레이되고 노래 가사가 무심히 지나간다. 미술관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사적 유희의 공적 공유'라고 해야 할까.

천장에서는 그 유명한 '사이보그'가 관객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미술 애호가들은 2002년, 서울 한복판 로댕갤러리에 이불의 총천연색 '사이보그'가 나타났을 때의 당혹감을 잊지 못한다. 고대 조각상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인간의 신체와 기계적 형상이 혼종된 '불완전한 신체 조각'에서 느꼈던 황홀한 불편함! 2025년에 다시, 팔다리가 잘렸지만 이상적인 비례를 갖춘 채 관능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순백의 '사이보그 W6'를 지켜보는 속내는 복잡하다. 그 미래적인 신체 안에 깃든 초월적 힘은 누구를 위한 것일지. 20년 전 그때와 달리 인간이 만든 기술이 야기한 실존적 공포와 직면한 지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돌이켜 보니 이불은 문명과 기술을 일찌감치 정면으로 응시했다.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은 아름답고 고상해야 한다는 편견을 보기 좋게 깨부수었던 그는 구도자의 집념과도 같은 태도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탐구했고, 그의 끝없는 실험은 결국 오늘의 현실과 맞물려 빛을 발한다. 상상 속에 존재했던 AI의 급속한 발전을 마침내 맞닥뜨린 인류가 느끼는 놀라움과 공포, 당혹과 체념의 감각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쫓고 쫓았던 작가는 예측 불가능한 풍경을 입체적으로 펼쳐 보인다.

이불, 규정할 수 없는

암흑의 공간을 벗어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라운드 갤러리'로 향하는 신 또한 압권이다. 느린 속도로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동안 하나씩 정체를 드러내는 일련의 작품은 무채색이거나 별처럼 반짝이며 복잡미묘한 심리를 자극한다. 관객들은 리움갤러리라는 공간을 익히 알고 있던 작가가 역시 치밀하게 구상하고 연출한 그 기묘한 신 속으로 다시 한번 홀린 듯 빨려들어간다. 뭐라 규정할 수 없는 이불의 세계, 그 자체로의 진입이라고 할까. 그라운드 갤러리의 중심을 이루는 작품은 2005년 이후 전개한 연작 '몽그랑레시'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러시아 구축주의와 아방가르드, 브루노 타우트의 표현주의 건축, 유托피아 문학, 한국 근현대사 등이다층적으로 만

한쪽 벽면 전체를 할애해 하나의 전시가 탄생하는 과정을 옮겨놓은 '스튜디오 세션'은

오랫동안 작가의 전시를 기다려온 이들에게 선물라도 같다.





들어 내는 알레고리적 풍경을 형성한다. 그 방대한 참조들을 이해하려 들면 난해하기 그지없는 작품이지만 작가는 일관되게 말한다. “작품은 완성된 시점에 내 손을 떠난 것이고, 각자가 감상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직접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조각과 설치미술을 주로 해 온 이불이 2000년대 후반부터 독립적 매체로 다뤄 온 방대한 평면 연작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작가의 작업 중 거의 유일하게 색감과 재료의 질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평면 작업 ‘페두’ 연작은 자개나 돌가루 등의 안료를 총총이 쌓아 올린 뒤 표면을 정밀하게 샌딩해 물감층과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독특한 제작 방식으로 완성했다. 덕분에 액자에 걸려 있지만 회화라기보다 납작하게 만든 조각과 같다. 의도와 즉흥, 형상과 색채를 뒤섞어 완전히 새로운 형식을 발굴해 내는 작가의 솜씨는 2016년부터 시도한 새로운 평면 연작 ‘무제(취약할 의향-벨벳)’에서 극대화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시장에 펼쳐져 있는 대표작들이 콜라주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벨벳과 자개라는 극단의 소재를 동시에 사용해 다중적 소우주를 재구성한다.

개인의 서사와 기술 문명을 결합한 이불의 작품은 의도했던 아니든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해 왔다. 전시를 차차히 둘러보다 보면 성수대교와 세월호, 병기와 끊어진 다리, 비무장지대와 남북 정상회담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문맥이 읽히는 단어들이 소환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몽그랑레시’ 연작의 일환인 ‘무제(인피니티 파티션)’(2008).
‘몽그랑레시’ 연작의 일환인 ‘무제(인피니티 파티션)’(2008).



완화와 화해의 제스처로 철거한 11개 감시 초소의 폐자재로 만든 작품 ‘오바드 V’ 앞에서는 한참을 서성이게 된다. 녹슨 표면의 타워 형태 구조물에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LED 조명으로 점멸해 묘한 대비를 이루는데, 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우주적 섭리와 덧없이 파기되는 이데올로기의 대비를 상징한다. 알다시피 남북 간 합의는 이내 파기됐고, 이 작품은 화해의 불가능성을 상징하며 우리 앞에서 있다.

한쪽 벽면 전체를 할애해 하나의 전시가 탄생하는 과정을 옮겨 놓은 ‘스튜디오 섹션’은 오랫동안 작가의 전시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선물과도 같다. 작가 스스로

작가는 관람객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보게 될 장면까지 차밀하게 연출했다.



‘구상에서 실현까지의 설계도’라고 설명하듯 한계 없이 아이디어를 펼쳐 보이는 드로잉과 그 상상을 3차원으로 펼쳐 놓은 모형까지, 수직으로 펼쳐진 생각의 아카이브! 엔딩 크레딧가 올라갈 때까지 이불의 세계는 쉴 틈을 주지 않는다. 한국적 위장 공간이자 작가의 어린 시절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벙커’, 직접 거울미로를 빠져나오는 동안 호기심과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비아 네가티비’ 등을 지나 전시장을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다시 반짝이는 비행선 아래로 걸어 나오면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그러나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다.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마음껏 사진도 찍고, 미술관에서 추억의 팝송을 열창하는 경험도 하며 이불의 세계를 누비는 동안 현란하고도 모호하며, 아름답지만 공포스러운 전시장 밖의 현실을 감각하게 될 테니까.

작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규정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여전사, 페미니즘은 물론이고 한국 대표 작가 같은 수식도 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다면, 이불은 그때도 지금도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에 꽂꽂이 서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현역이자 청년인 채로.



한국미술
리얼리티

이불 Lee Bul

이불은 작가의 본명이다. 20대였던 1980년대 후반, 격동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체를 매개로 삼은 급진적 퍼포먼스와 설치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의 기부장제와 젠더 문제, 사회 제도와 권력 구조의 모순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이후 인간과 기술, 유기체와 기계,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자연과 문명을 둘러싼 관계와 구조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갔다. 1990년대 후반 ‘사이보그’ ‘아나그램’ 연작과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참여해 선보인 노래방 작업, 2005년부터 이어진 건축적 설치 ‘몽그랑레시’ 연작을 전개하는 동안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한편, 동시대 미술의 주요한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평면 작업까지 더해 형식과 재료의 실험을 이어오고 있다.

손끝으로 기억할 장면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는 정연석 작가와 함께 서울 성북동을 탐방한다.
일상적 풍경이 하나둘씩 작품 소재로 변신한다.





1 골목 산책의 묘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저마다 다른 풍경을 마주한다는 것.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오른쪽 골목의 고양이를 발견할 수 없다.

2 심우장 처마에 설치한 낙수받이. 닭 형태를 본뜬 듯하다.

3 여행지 곳곳에서 만나는 스템프를 그림 옆에 찍어도 좋다.

4 그릇에 올린 판자 위에 나란히 자리한 화분 세 개. 자세히 바라보니 묘하게 기울어져 있다.



2



3

눈앞의 풍경을 제대로 살피기도 전에 휴대폰부터 꺼내는 게 일상이 되어 버린 지금. 저장한 사진은 점점 늘어나지만 매 순간의 기억이 사진처럼 선명하지는 않다. 기록하기 쉬운 만큼 더 기억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사진 대신 그림으로 현장을 담는 사람들은 어떨까? 익숙한 동네와 낯선 여행지에서 2시간 내외로 그림을 완성하는 어번 스케치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여행자의 눈으로 스무 곳이 넘는 동네를 스케치해 에세이 <서울을 걷다>를 펴낸 정연석 작가에게 짧은 드로잉 여행을 청한 건 그래서였다. 무심히 훌러가는 하루를 소중히 간직할 방법을 알려 줄 든든한 동행자를 만나러 서울 성북동을 찾았다.

건축가 없는 건축 마을

어번 스케치 장소로 정한 성북동에는 사대문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달동네 북정마을이 자리한다. 성곽 아래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다 보면 색과 모양이 제각각인 지붕들을 만난다. 곳곳에 그릴 요소가 많은 건물이 빼곡해 어번 스케치에게는 반가운 동네다.

그러나 미술에 자신 없는 사람이 건축물을 그리기란 쉽지 않다. 초심자의 걱정을 솔직히 털어놓자 정연석 작가가 성북동 풍경이 담긴 콜라주 형태의 작업을 하나를 건넨다. “사실 그대로 묘사할 필요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부분만 그려도 돼요.” 하루 동안 시선을 사로잡은 것들을 모아 그려야겠다고 다짐 한다. 이를하여 ‘북정마을 기억 모음집’ A4 크기 도화지 한 장에 짧은 여성의 여정이 담길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성북동에는 많은 예술가가 살았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스케치 여행의 출발점으로 정한 곳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이름을 알린 소설가 박태원의 집터다. 여기서 몇 걸음 더 오르면 나타나는 심우장은 <님의 침묵>을 집필한 만해 한용운이 지어 타계하기 전까지 살았던 집이다. 대부분의 한옥이 남쪽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한용운의 집은 북향이라는 점이 독특한데, 독립운동가인 선생이 남쪽에 자리한 조선총독부와 마주하기 싫어 이렇게 설계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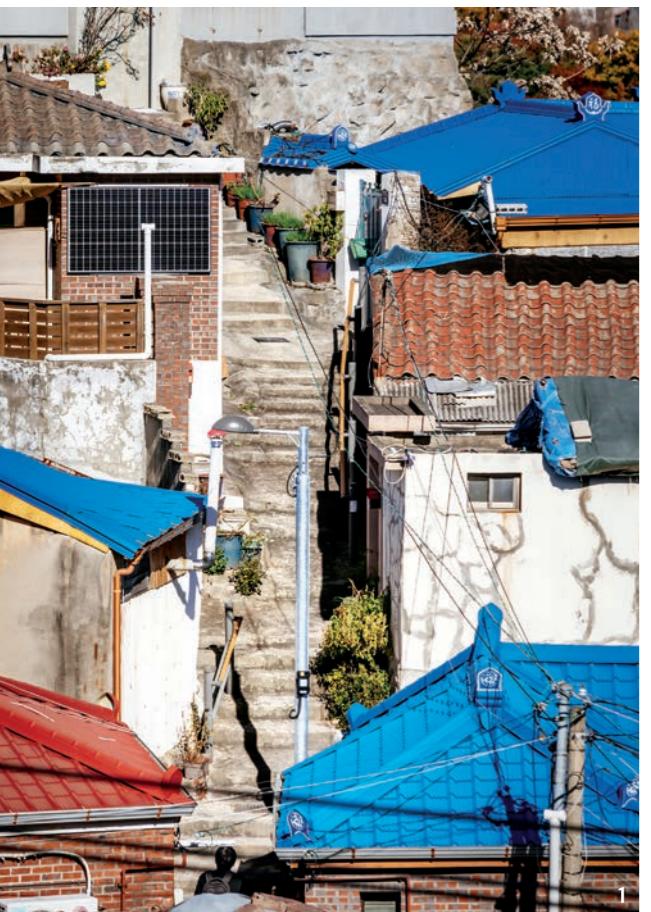


4

심우장을 느긋하게 살피다 보니 처마 끝에 설치한 낙수받이도 예사롭지 않다. 그 모양이 꼭 닭을 닮았다.

“낙수받이를 발견했다면 그 아래 땅도 살펴보세요. 땅이 파이지 않도록 모래를 쌓아 두거나 돌을 놓은 흔적 이 있죠.” 현장에서 배운, 옛 선조들이 실천한 생활의 지혜를 흰 종이 위에 옮기기로 한다. 나중에 어떤 용도인지 눈치챌 수 있도록 낙수받이 아래로 떨어지는 빗물을 그려 넣었다. 따로 메모하지 않더라도 그림에 사물의 기능이 충분히 드러난다.

심우장을 나와 북정마을을 거니는 동안 정 작가가 익숙한 풍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귀띔해 준다. “자세히 보면 같은 지붕인데 부분 부분 자체가 달라요. 나중에 지붕이 무너지거나 손상돼 일부를 수리했을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을 모습이 일부를 확대한 것처럼 또렷하고 세세하게 다가온다. 건물에 연결된 초록색 사다리는 빈 공간에 항아리나 화분을 올려 두려고 설



“제 그림을 잘 그린 낙서라고 생각해요.
빗자국이 얼룩처럼 묻기도 하고, 커피를 엎지를 때도
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치했을까? 도로명 주소판 아래 적힌 ‘획’이라는 낙서는 그 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린 건 아닐까? 마을 주민들의 의도를 상상하며 걷는 과정도 즐겁다. 집에 드나들기 편하도록 담벼락을 뚫어 문을 하나 더 낸 것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런 걸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고 표현해요. 살면서 필요한 요소를 하나둘 덧붙이다 보니 흡사 설치미술 같기도 한 독특한 건축물이 된 거죠.” 종이에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 많아 자꾸만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어번 스케치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번에는 북정마을과 연결된 암문을 통해 한양도성 순성길 백악 구간으로 들어선다. 한양도성은 조선 왕조 도읍지인 한성부를 방어하기 위해 태조 때 세웠다. 산 지형을 따라 성곽이 길게 이어지는데, 돌담에 뚫린 구멍에 자꾸만 눈이 간다. 두 눈과 코 같은 착시를 일으키는 이 구멍의 정체는 몸을 숨긴 채 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총안이다. 가운데 구멍은 근거리 사격용이라 밖에서 보면 양쪽 구멍보다 길다. 구멍에 눈을 갖다대니 틀 안에 마을 풍경 일부만 담긴다. 무엇을 그릴지고 민된다면 구멍 하나를 정해 그것을 통해 마주하는 장면을 그려도 재밌겠다.

성북역사문화공원으로 내려가면 성곽의 돌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이 돌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축성 시기가 구별된다. 태조 때는 자연석을 거칠게 갈아 사용했고, 숙종 때부터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의 돌을 쌓았다. 돌 색깔도 각기 다른데, 상대적으로 흰빛을 띠는 건 복구 작업을 하며 갈아 끼운 돌일 확률이 크다. “흑백 그림에 나뭇잎만 색을 칠한 것 같네요.” 펜드로잉 위주로 작업한 뒤 포인트 컬러를 넣는 정연석 작



130

2



3

1 색과 모양이 제각각인 북정마을의 지붕. 2 담벼락을 뚫어 만든 문.

3 어번 스케치 완료 후 인증샷을 찍는 방법. 실제 대상을 배경으로 그림을 촬영한다.

4 어번 스케처는 본인의 그림과 인스타그램 아이디 등이 담긴 스티커를 명함 대신 주고받는다.

5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북정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성곽의 총안으로 보는 모습도 색다르다.



5

131



132

가의 눈에는 잿빛 성과 그 뒤로 모습을 드러내는 단풍나무가 또 다르게 보이나 보다.
공원 벤치에 앉아 '북정마을 기억 모음집'이라 이름 붙인 도화지에 성과의 일부를 읊겨 넣는다. 심우장의 낙수받이, 골목에서 본 초록색 사다리, 담벼락을 뚫어 만든 문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마무리 단계에서 머뭇거리자 다정한 조언이 들려온다. "잘 그리려고 하면 긴장하게 돼요. 결과물을 날씨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완성도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는 순간을 즐기세요." 돌이켜보니 그동안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좋은지 싫은지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없었다. 이제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즐거움을 탐색할 차례다. 연말에 사진 대신 그림 한 장 남겨야겠다. 묘사하기 어려워 주저하거나 잘 그리고 싶어 덧칠한 부분, 숨기고 싶었던 흔적 등 흔 종이를 가득 채우며 느낀 감정도 스케치북에 그대로 보관될 것이다.

2

1 한양도성 백악
구간의 시작점인
성북역사문화공원은
성곽을 조망하기 좋은
장소다. 돌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축성
시기가 구별된다.
2 성곽 틈으로 보이는
북정마을 풍경.



2

정연석 작가가 알려 주는 여행 기록법

- 정동, 서촌, 후암동 등 이야기거리가 많은 동네를 찾아가세요. 단, 너무 넓지 않고 밀도 높게 이야기거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해요. 걷는 재미를 위해 길이 예쁜 것도 중요하죠.
- 성북동에는 북정마을 외에도 둘러볼 곳이 많답니다. 길상사, 신접단지, 최순우옛집, 성북구립미술관 거리갤러리와 소설가의 가옥에서 찾집으로 변모한 수연산방을 추천해요.
- 외곽선부터 먼저 그리세요. 대상을 정확하게 담으려고 하거나 디테일에 연연하기보다는 화면을 어떻게 분할하고 주요 요소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전체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본래 본인에게 맞는 결정하세요. 골판지에 그리거나 자수로 표현하는 작가도 있고, 널빤지를 뭇으로 굽어 눈앞의 풍경을 묘사하기도 해요.
- 여행용 노트를 구매해 기차표나 비행기 티켓을 붙이고 꾸며도 좋아요. 여행지에서 들른 카페로고가 담긴 냅킨을 잘라붙이고, 그 옆에 케이크를 그려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1



3

1 정연석 작가가 스케치한
길상7층보탑 탑의 윤곽부터
잡고 시작해야 7층보탑이
3층보탑이 되는 사고를 면한다.
2 법정 스님의 요청으로 가톨릭
신자인 조각가 최종대가 제작한
관세음보살상. 종교 화합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3 전통 한옥을 그릴 때 꼭 단청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색과 문양을 모두 담는 작가도,
단청을 생략하는 작가도 있다.

133

널 위해 준비했어

원하는 주류와 스낵을 골라 담는 보틀 숍,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을 만드는 편집숍 등 고마운 이에게
 마음을 전할 서울의 특색 있는 선물 가게를 찾았다.



1

산타의 비밀 창고 프레젠토먼트

망원동의 평범한 대로를 걷다 보면 '이게 뭐지' 싶은 붉은 벽돌 문을 마주하게 된다. 안으로 들어서면 잔잔한 캐럴이 흐르고 따뜻한 조명 아래 마법 같은 공간이 펼쳐진다. 이곳은 바로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인 프레젠토먼트. 상상 속 산타의 비밀 창고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소품 숍이다. 정교한 핸드 페인팅 피겨, 소원을 이루어 주는 인형 키링, 12월 1일부터 매일 한 칸씩 열어 보는 어드벤트 캘린더, 화려한 패턴의 포르투갈 타일 캔들, 펼치면 작은 트리가 솟아오르는 팝업 카드까지, 전 세계 물건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은 채 가지런히 놓여 있다. 시선을 옮길 때마다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아이템이 잇따라 자연스레 걸음이 느려진다. 공간 깊숙이 자리한 크리스마스트리는 몽글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선물 고르는 일이 이토록 설레다니. 프레젠토먼트를 돌아보는 것만으로 행복이 차오르는 기분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49-1
 문의 @presentmoment.storage

| 2 |
추억을 재생하는 카세트테이프
더스

빈티지 음악 플레이어를 사랑한다면 더스를 지나치기 어렵다. 디자인에 전시 더스의 전성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절, 텅 빈 사무실을 자신의 컬렉션으로 차워 청음 공간인 더스를 열었다. 카세트테이프, DAT, MD, CD, LP 등 다양한 포맷의 플레이어를 감상할 수 있는데, 1979년에 출시된 최초의 워크맨 TPS-L2,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수지가 사용하던 CDP 소니 D-777 등 기기의 시대별 음질을 비교해 보는 경험도 특별하다. 좋아하는 음악을 한데 담아 간직하고 싶다면 '나만의 믹스테이프 만들기'를 추천한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오래된 추억이 재생된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길 10-5 문의 02-3445-8770


| 3 |
새술이 깃든 단 하나의 옷
이스트오кам

편안한 실루엣의 옷을 추구하는 이스트오кам은 리메이크 의류를 만드는 리빌드(rebuild) 브랜드이자 편집숍이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은 이스트오кам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알록달록한 스티치를 더한 청바지, 다양한 체크 패턴을 톤온톤으로 이어붙인 셔츠, 손비느질로 그림을 새긴 데님 모자까지 모두 손현덕·김지혜 부부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초창기에는 옷을 디자인해 공장에 제작을 맡겼는데 불량률이 높고 버려지는 원단도 많아 방향을 바꿨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두 사람의 손길로 리메이크 작업을 하기로 한 것. 현 옷을 뜯고 자르고 재봉틀로 박음질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점차 이스트오кам만의 확고한 스타일도 구축하게 됐다. 버려진 빈티지 의류도 이들의 손을 거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난다. 패션을 사랑하는 친구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주소 서울시 성동구 둘레7길 17 문의 02-6439-0201



| 4 |

한국적 미감이 깃든 기념품 **와유재**

여행지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념품을 사는 것이다. 북촌에 자리한 한국 기념품 편집숍 와유재는 10년간 여행사에서 일하며 세계 곳곳의 기념품점을 누비 이정준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다. 여행자들이 의미도 모른 채 구매한 기념품을 방치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그는 와유재를 열며 세 가지 기준을 세웠다. 첫째, 보기에 아름다운 것 둘째, 한국 문화와 이야기가 담긴 것. 셋째, 실용적인 것. 덕분에 와유재에는 예쁘고 유용한 물건은 다 모여 있다. 복은 쓸어 담고 화는 쓸어버리는 '모시 빗자루', 괴로움을 덜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자비 불상 향초', 고귀하고 평화로운 삶을 기원하는 봉황도가 그려진 '모던 민화 블랭킷'까지. 한국적 미감이 깃든 물건에는 저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복 옷고름을 모티브로 한 보자기, 한지와 국화 매듭을 활용한 디자인 등 포장에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08 문의 0507-1382-6582



| 5 |

취향 가득 종합 선물 세트 **키오스크이피**

밝은 조명 아래 오렌지와 블루 컬러가 어우러진 키오스크이피는 다양한 주류와 스낵을 캐주얼하게 즐기는 바겸 보틀 술이다. 10년 넘게 F&B 컨설팅을 해 온 신우철 대표는 다양한 취향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고자 와인, 수제 맥주, 전통주, 위스키, 사케, 리큐어 등 다양한 주류를 직접 선별한다. 구매한 술을 매장에서 즐기는 이들을 위해 가벼운 스낵류도 구비했다. 트러플 감자칩, 밤 잼, 참치 샐러드, 샤르퀴트리까지 자꾸 손이 가는 메뉴가 가득하다. 원하는 술과 스낵을 골라 담는 '이피 박스'는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Are you ready to open? (열어 볼 준비가 됐나니?)" 박스 옆면의 문구가 선물을 준비하는 이의 마음도 설레게 한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길 10 문의 02-6242-0393

걸음걸음 수원 한 입

경기도 수원역 부근 번화가에는
화려한 불빛 사이에서 독특한
색을 빛나는 곳이 많다.
수원 여행에 감성 한스푼
더해주는 카페와 레스토랑,
바를 소개한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수원역까지
35분 정도 걸린다.

잔자하|파식과|제천 디저트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8 문의 0507-1482-7043

매산동 변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자리한 미드웨이브. 내부로 들어서면 우드 톤의 따스한 인테리어와 잔잔한 음악이 환영 인사를 건넨다. 김찬홍 미드웨이브 대표는 여행하다 우연히 들른 공간이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휴양지 같은 카페로 꾸몄다. 김 대표는 부모님의 텃밭에서 자란 채소와 동네 시장에서 구매한 생과일 등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정성 가득한 디저트를 만들어 선보인다. 대표 메뉴는 모카 를 시트에 부드러운 밤 크림과 보늬밤을 넣고 피칸으로 풍미를 더한 '밤나무'. 헤이즐넛의 고소함과 단맛이 은은하게 감도는 '미드 라테'도 인기다. 상큼한 맛을 원한다면 블루베리와 오디로 만든 수제 청에 레몬 소르베를 올린 '더블 베리 소르베'를 추천한다.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며 카페 한편에 놓인 방명록에 나만의 추억을 남겨 보자.

금신향집 아파마니 전통 미술집으로 헌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3번길 36 문의 0507-1367-3807

전통 약방과 힙한 바의 감성이 어우러진 칵테일 바. 벽면을 가득 채운 도자기와 테이블 옆 벽면에 걸린 동양화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박찬혁 매산약방 대표는 술 한잔이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마음의 처방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의 콘셉트를 '약방'으로 정했다. 박 대표는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계절별로 서너 가지 만드는데, 연중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여름을 테마로 한 '약수물'이다. 리치·포도·라임·레몬 등 다양한 과일 맛이 어우러진 상큼하고 달콤한 칵테일로, 약수를 떠다놓은 듯한 비주얼이 인상적이다. 겨울 추천 칵테일은 누룽지 사탕처럼 구수한 맛이 나는 '누룽지'와 오렌지·유자 껍질의 쌈싸름한 향이 나는 '매화다'. 전통 구절판을 매산약방 스타일로 재해석한 '매산 구절판'도 곁들여 보자. 곶감말이, 정과 등 한국 전통 디저트에 치즈, 샤르퀴트리 등을 더한 한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금糊涂 그네금이에 허미나부



소믈리에 국가대표 선발전 본선까지 올랐던 박찬원 대표. 그는 나폴레옹의 열정을 담은 바를 만들고자 나폴레옹이 탄던 말 '마렝고'를 상호로 정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레드 벨벳과 황금색 조명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마렝고에서는 칵테일이나 와인과 함께 수준 높은 양식을 즐길 수 있다. 시그너처 칵테일은 나폴레옹이 사랑한 여인의 이름을 딴 '조제핀'. 딸기와 장미를 좋아했던 그의 취향을 반영해 산뜻하고 향긋한 맛이 매력적이다. 박 대표에게 자신의 취향을 말하면 맞춤형 칵테일을 만들어 주니 술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다. 칵테일에 곁들이기 좋은 양식 메뉴는 로즈메리·소금·후추로 숙성한 '양고기 스테이크'. 새우 껍질과 내장, 채소를 오랜 시간 우려낸 육수를 사용한 '새우 비스크 파스타'도 풍미가 좋다.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박 대표는 칵테일에 넣는 얼음을 깎아 모양을 내고, 요리에 올리는 허브를 직접 키우는 등 정성을 다한다.

스톤 工作作风 그것이 아메리카



스톤(Stone)이란 상호에서 알 수 있듯 돌을 소재로 한 카페. 커피, 디저트는 물론 와인까지 가볍게 즐기기 좋은 곳이다. 돌의 질감과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스톤의 독특한 콘셉트는 변하지 않는 돌처럼 좋은 맛과 공간을 유지하겠다는 양하루 사장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돌 모양 손잡이부터 자연석 디딤돌, 블랙과 실버가 어우러진 내부는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낮 동안 밝고 차분했던 공간이 해가 진 후에는 부드럽고 낮은 조도에 재즈가 흐르는 감성적 공간으로 변한다. 스톤의 시그너처 메뉴는 오레오 무스 케이크 둘레를 맥자 맷 다쿠아즈로 감싼 '스톤 무스 케이크'와 돌 모양 흑임자 아이스크림을 올린 '스톤 팔빙수'다. 설탕을 덜어 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달콤한 맛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좋아할 만하다. 톡 쏘는 맛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오렌지와 키위, 파인애플이 들어간 '화이트 골드 에이드'를 권한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1-7 문의 031-254-8848

고모네

수원에서 만난 네팔 가정식



한식과 닮은 듯 다른 매력의 네팔 가정식을 선보이는 이색 음식점 님토(Nimto)는 네팔어로 '초대하다'라는 뜻이다. 슈레스타 수딥 쿠마르 대표는 한국인에겐 생소할 수 있는 네팔 가정식을 소개하고 방문객을 환대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님토를 오픈했다. 시그너처 메뉴는 '타칼리 세트'. 네팔에서도 손맛 좋기로 유명한 타칼리 민족의 요리법에 따라 만든 네팔 전통 음식이다. 세 가지 쌀을 섞어 지은 밥에 기버터를 뿌려 비빈 뒤 콩 수프를 비롯해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방식이 한국의 식문화와 닮았다. 토마토와 고추 등을 섞어 만든 매콤한 소스,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인 염소 고기 카레, 짭짤한 네팔식 감자볶음까지, 음식을 조합해서 다양하게 즐기는 재미도 특별하다. 네팔에서 간식처럼 먹는 튀김 만두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닭고기로 속을 채운 고기 만두를 토마토·고수·들깨·향신료 등을 섞어 만든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입안 가득 이국적 향이 퍼진다.

짤초파파

아빠의 손에 맛이 내려온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28 문의 0507-1395-0875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제빵 마이스터 과정을 수료한 김의균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와 짤초파파를 열었다. 짤초파파(Salz Papa)는 독일어로 '소금 아빠'라는 뜻으로, 첫째 딸 태명인 '소금이'에서 이름을 따왔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김 대표는 저온에서 오랜 시간 발효해 소화가 잘되는 독일 빵을 구워 판매한다. 밀 고유의 풍미가 특징인 바이스브로트, 호밀 천연 발효종이 들어간 로겐미슈브로트, 100퍼센트 통밀로 만든 폴콘브로트 등 요일별로 선보이는 빵도 다르다. 시그너처는 독일 정통식으로 만든 프레츨과 슈탕에. 고소한 풍미의 슈탕에에 신선한 채소와 크림치즈를 듬뿍 넣은 '래디시 크림치즈 슈탕'에는 브런치 메뉴로도 제격이다.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다리며 한 조각씩 맛보는 슈톨렌은 12월에만 판매하니 이때를 놓치지 말자.

made in

전주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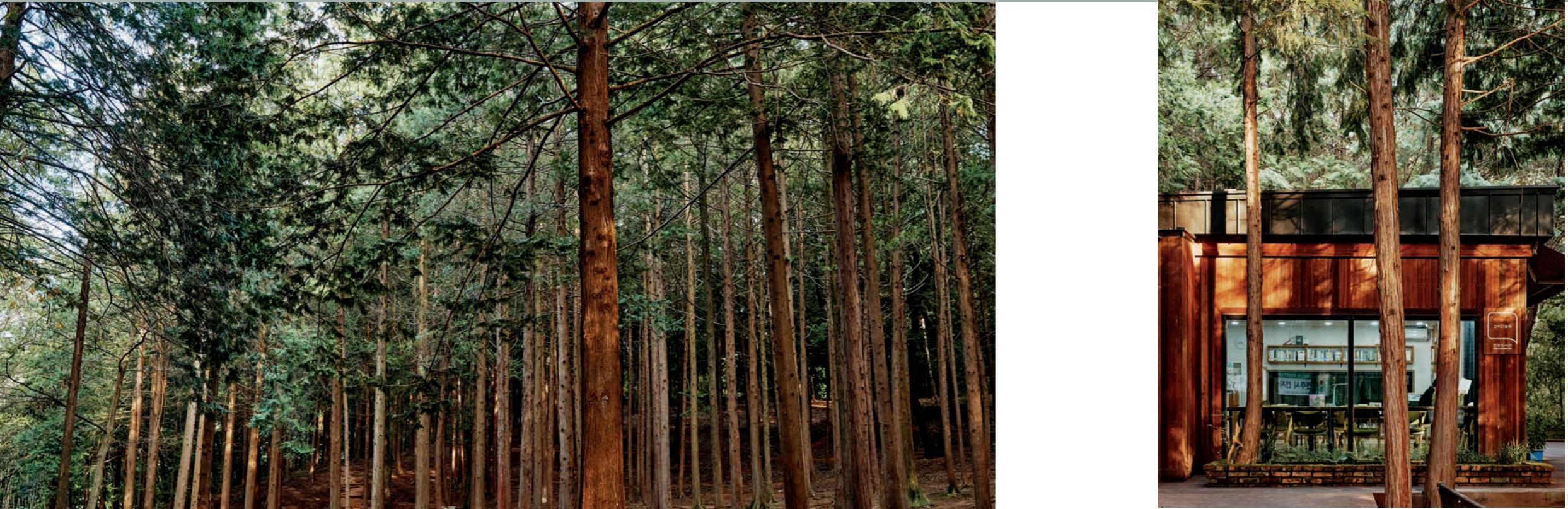
JEONJU

no.12

건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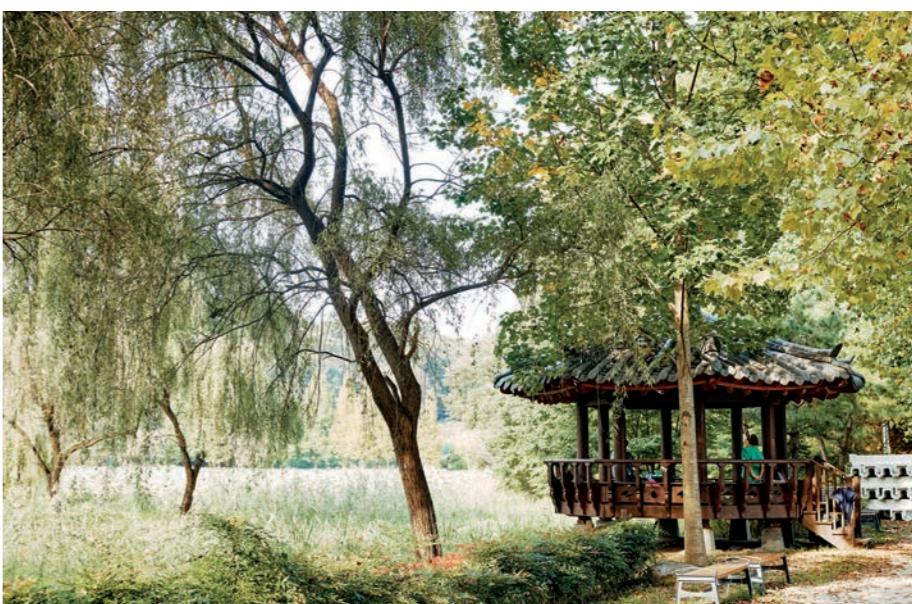


1



2

- 1 건지산 오송제 주변의 편백나무 숲.
평상이 있어 쉬어 가기 좋다.
2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 전경.
3 생태 공원으로 조성한 저수지 오송제와
정자가 어우러진 수채화 같은 풍경.



3

전주 승암산이 산행지라면 건지산은 산책지다. 길이 많고 고도는 낮아 생각을 덜어 내며 한가롭게 걷기에 더없이 좋다.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산책이나 소풍, 삼림욕을 즐긴다. 사방으로 입구가 뚫려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건지산 오송제 주변은 최고의 산책로로 꼽힌다. 덕진공원 북서쪽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뒤편과 맞닿은 입구로 진입하면 편백나무 숲이 깜짝 선물처럼 나타난다. 깊은 산속에서나 마주할 만한 풍경을 초입부터 만나게 된다. 장대비처럼 쪽쪽 뻗은 나무 아래에는 벤치와 평상이 꽤 많이 놓여 있어 가족, 친구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 편백나무 향에 몸과 마음을 충분히 적셨다면 오송제 주변을 걸어 볼 것. 정자와 능수버들, 꽃창포, 부처꽃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생태 저수지다. 좀 더 걸을 여유가 있다면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도 놓치지 말자. 편백나무 숲에 자리한 소박한 나무 집에 들어선 공립 도서관으로 산장 같은 분위기에 발길이 절로 옮겨진다. 숲, 자연과 관련된 책 2800여 권을 알차게 갖췄다. 통유리창 앞 책상에 앉아 책 한 번, 나무 한 번 번갈아 보다 보면 숲이 내가 되고 내가 숲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산로 40(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 ☎ 063-714-28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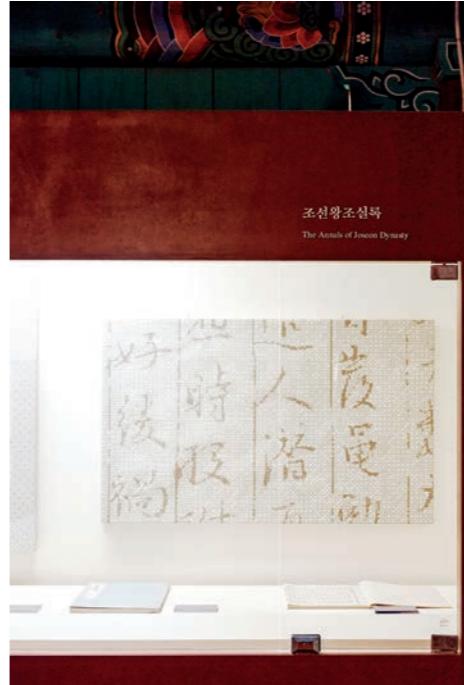


2

3



- 1, 4 <조선왕조실록>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주사고.
2 경기전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알현하자.
3 경기전은 전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지로도 유명하다.
5 경기전 안에서 고개를 쑥 빼고 바깥을 바라보면
담 너머로 전동성당이 보인다.



4



5

조선의
긴 역사를
품은

경기전

조선을 건립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왕을 그린 초상화)을 모신 곳. '경기'는 조선 왕조가 일어난 경사스러운 터라는 뜻이다. 1410년에 지었다가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지고 광해군 6년인 1614년에 재건립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보통 유적은 관광이나 견학을 위한 일회성 방문지이지만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한 경기전은 지역민이 즐겨 찾는 산책로이자 나들이 장소다. 경기전에 처음 방문한다면 <조선왕조실록> 784권 614책 47권과 기타 전적 64종 556책 15권가격 끄랑의 5세기 동안 손상 한 점 없이 봉안된 전주사고도 놓치지 말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비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작은 도서관 같은 곳이 나오고 그 안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한 예조판서 정인지의 서문을 비롯해, 놀랍도록 정교한 실록 편찬 과정이 보기 좋게 전시되어 있다. 그 밖에 어진 제작 방식과 의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어진박물관, 제례 음식과 기물을 만들고 보관하는 어정, 제기고 같은 부속 공간이 구경하는 재미를 더한다. 대부분의 옛집이 기꺼이 뒷마루를 내주어 잠시 앉아 쉬어 가기에도 그만이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 063-381-2788



1



2

노마딕 브루잉 컴퍼니 & 노마딕 비어템플

로컬의 맛과 정취를 담다

수제 맥주를 빚는 양조장 노마딕 브루잉 컴퍼니는 전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다. 양조사 존 개럿(이하 조니)과 그의 아내 한나가 2013년부터 공간을 준비하고 선보였다. 미국 미시건 출신의 브루어 조니는 미국 시카고와 독일 뮌헨의 월드 브루잉 아카데미에서 양조법을 배우고 미국의 크래프트 브루어리에서 경험을 쌓은 후 전주에 돌아와서 '노마딕'의 여정을 시작했다.

맥주는 '인식의 문을 열어 주는 신성한 액체', 펝은 로컬이 함께 어우러지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는, 고유한 철학과 신념으로 빚는 조니의 맥주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벼운 맛부터 미각 모험을 좋아하는 맥주 애호가를 자극하는 독창적인 풍미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 전주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의 딸기, 꿀, 쌀 등을 사용하고 전주 향토 음식의 어울림까지 고려하는 조니의 섬세함 덕분에 연령 불문하고 로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웨리단길에는 양조장인 '노마딕 브루잉'과 1947년에 지은 건축물의 결을 고스란히 살려 안을 꾸민 '노마딕 비어템플'이, 한옥마을엔 고즈넉한 마당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노마딕 비어가든'이 있다.

-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3길 12-10(노마딕 브루잉 컴퍼니), 전라감영4길 13-16(노마딕 비어템플)
- ▣ 0507-1373-3924(노마딕 브루잉 컴퍼니), 0507-1368-3924(노마딕 비어템플)



interview

존 개럿 노마딕 브루잉 컴퍼니 양조사

전주에서 살기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맛을 탐구하는 데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아시아를 경험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는 그 여정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죠. 노마딕 브루잉 컴퍼니를 시작한 계기는요? 저는 늘 양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번 돈으로 독일과 미국의 양조 학교에서 유학을 했어요. 이후 북미의 양조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전주로 돌아왔고요. 내가 전주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이 도시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요. 당신이 맵료된 전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전주는 제가 살아 본 지역 중 가장 겉기 좋은 도시예요. 독립 브랜드 상점, 카페, 식당이 많아 지역민에게도 지루하지 않죠. 필요한 것이 전부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고 언제나 흥미로운 예술 전시가 열리며, 도심 언덕 끝자락에서 대자연으로 곧장 연결된다는 점도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늘 새롭고,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4



3



1



2



3

하우스먼트

깊고 진한 쉼이 필요할 때

구시가지가 거주자와 관광객이 두서없이 섞이는 동네라면 완산구 서부 권역에 속하는 신시가지, 효자동과 서신동 일대는 로컬들의 직장과 집이 자리한 동네다. 2022년 9월 효자동3가에 들어선 카페 하우스먼트는 신시가지 일대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이 프랜차이즈 커피 말고 직접 로스팅해 정성스럽게 내린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즐겨 찾는 곳이다.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하우스먼트'라 이름 짓고, 나무를 마주할 수 있는 2층은 전면에 시원하게 창을 냈다. 그 덕에 로컬 사이에선 '눈에 아름다운 것을 담고 싶을 때 갈 만한 곳'으로 입소문이 났다. 바리스타들의 몸짓과 표정이 무대 위 공연처럼 펼쳐지는 개방형 커피 바, 옆 사람의 움직임이나 소리가 별로 거슬리지 않는 여유로운 테이블 간격, 귀가 편안한 음악은 로스터이자 이곳을 운영하는 박종대 대표의 섬세한 배려와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풍미와 개성을 갖춘 다양한 산지의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 소개하며 케이크와 구움과 자도 이곳에서 구워 낸다. 지난 9월에는 혁신도시 일대로 불리는 중동에 '하우스먼트 인어로우' 지점을 새롭게 열었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67

▣ 0507-1392-5951

- 1 통창에
싱그러운 가로수가
담기는 실내.
- 2 직접 볶은 원두로
내리는 커피와 매일
굽는 수제 디저트.
- 3 하우스먼트의
정체성을 만드는
바리스타들.



진짜
맛집은
쌀밥부터
맛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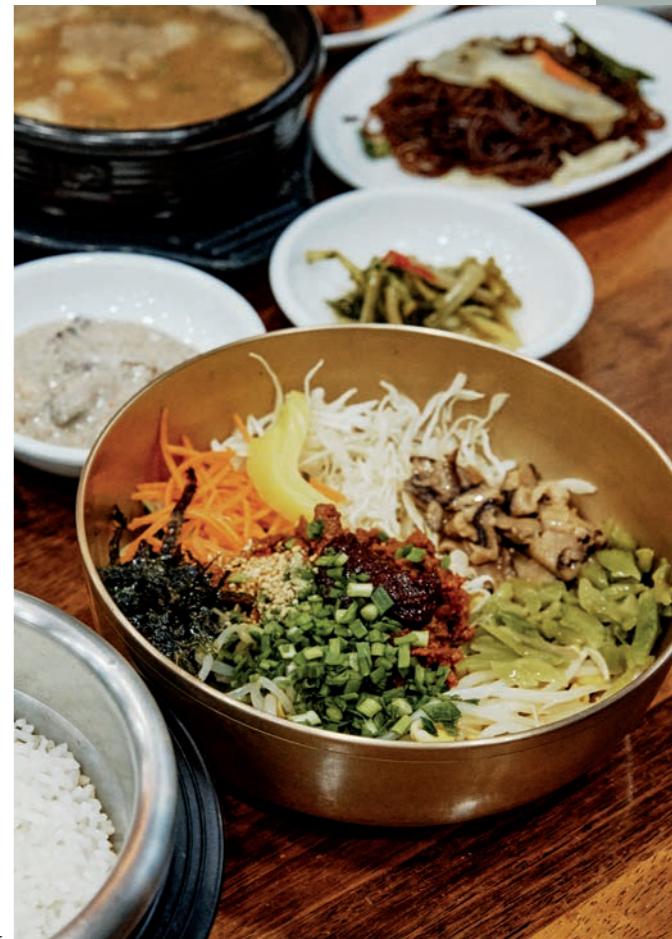
웨이콩나물국밥전문점 & 하숙영가마솥비빔밥

전주식 콩나물국밥은 뚝배기째 팔팔 끓인 직화식과 육수의 깔끔하고 개운한 맛,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을 살린 토렴식이 있는데 웨이콩나물국밥전문점은 후자다. 반찬과 국밥이 나오면 가장 먼저 쇠 그릇에 중탕한 수란에 김과 국물을 서너 수저 넣고 잘 섞어서 따로 먹으라고 안내한다. 수란을 국밥에 넣지 말고 콩나물을 건져 수란에 적셔 먹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정직하게 끓여 낸 담백 칼칼한 육수에 자신 있기 때문이다. 한약재와 조청, 계피, 생강 등을 넣고 달짝지근하게 발효시킨 탕주인 '모주'를 곁들이면 맛의 균형이 완벽해진다. 하숙영가마솥비빔밥은 갓 지은 솥밥과 놋그릇에 콩나물, 황포묵, 소고기 육회, 접장, 버섯 등 정통 전주식 비빔밥 고명을 담아 열네 가지 반찬과 함께 낸다. '특허받은 반찬 '직접 담근 장' 같은 소개 문구와 사진을 식당 곳곳에 배치한 이곳에선 식사 메뉴로 가마솥비빔밥과 가마솥육회비빔밥만 판다. 직원이 직접 비벼 주는 퍼포먼스는 기계가 봄비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타이밍에 진행되는데, 그냥 비벼 주는 것이 아니라 청양장(청양고추를 으깨 만든 양념장)을 취향대로 밥 위에 얹고 매콤 칼칼한 맛을 더하는 것이 특징이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88(웨이콩나물국밥전문점), 전라감영5길 19-3(하숙영가마솥비빔밥)
- 063-287-6980(웨이콩나물국밥전문점), 063-285-4288(하숙영가마솥비빔밥)



3



- 1 웨이콩나물국밥전문점에서 직접 빚은 모주.
- 2 웨이콩나물국밥전문점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려면 이곳에서 제안하는 '먹는 밥'을 따른다.
- 3 멀리서도 눈에 띄는 간판.
- 4, 5 솥밥으로 나오는 정통 전주식 비빔밥을 맛볼 수 있는 하숙영가마솥비빔밥.

5



팔복예술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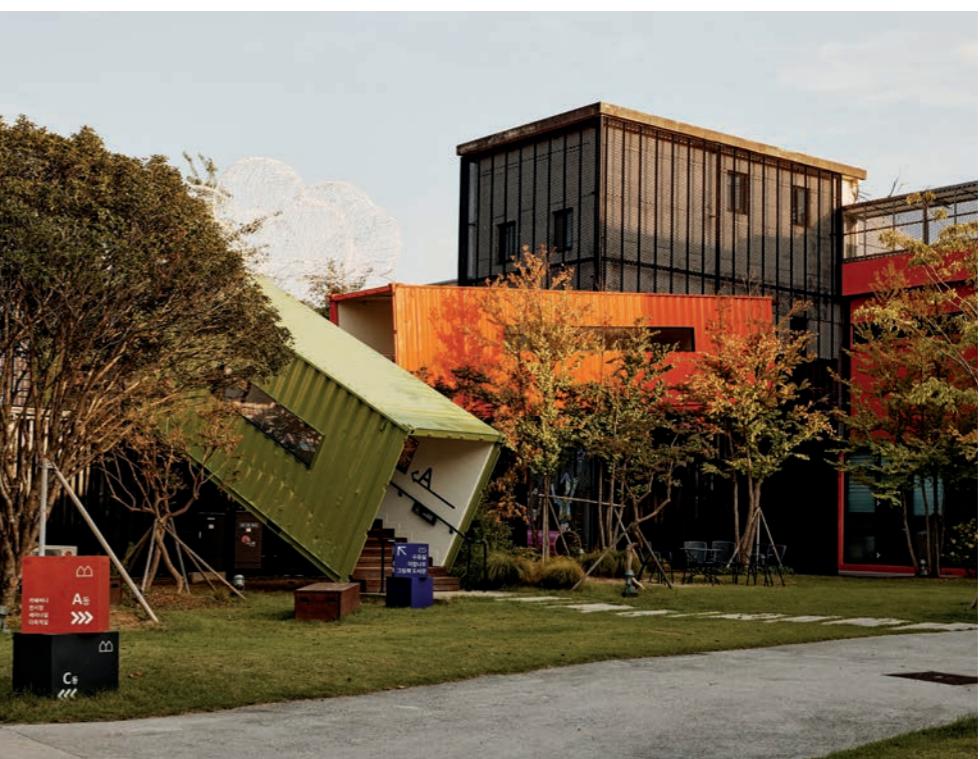
1

폐공장을 개조해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건 이제 흔한 일 이 됐다. 그 공간을 찾아가고 싶게 만드는 건 '어떻게 근사하게 바꿔었나'가 아니라 '그 공간이 다시 볼 수 없었던 옛 서사를 제대로 재현했나, 새로운 사건(전시와 행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다. 전주 시가지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외곽에 자리한 팔복예술공장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건축가 황순우는 1979년부터 카세트테이프를 만드는 쏘렉스의 공장으로 운영하다가 이후 25년 동안 폐공장으로 방치되었던 이곳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약 1년 동안 설계도를 그리는 대신 팔복동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기억을 수집하고, 예술가들과 함께 공간의 새로운 밀그림을 그렸다. 2017년 10월에 개관한 이곳은 전시뿐 아니라 창작, 공연, 교육을 아우르는 플랫폼이다. 폐산업 공장의 잔존물을 예술 재료로 전환해 도시의 기억을 재구성한 <Grey Matter>, 앤디 워홀의 작품과 미디어 아티스트의 협업 전시인 <OH! My 앤디 워홀>, 그라피티와 전통적 조형 언어를 결합해 한국 미감의 확장 가능성을 실험한 <전통+현대: 숨바꼭질>, 팔복동 산업 지대의 재생 과정을 여러 가지 시각예술 장면으로 해석한 <팔복팔경> 등 흥미로운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 063-211-0288



2



4



1, 4 건축가 황순우가
카세트테이프를
만들던 쏘렉스의
공장을 리모델링한
팔복예술공장.
2 공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 섹션.
3 해먹이 설치된
예술 놀이터.

3

책방 물결서사의 안쪽 복도 벽에는 공간과 도시의 이야기가 내레이션처럼 흐른다. 2018년 겨울, 물결서사의 탄생. 12월 22일 동짓날, 이방인 7명이 선미촌 골목에 책방 문을 열었다. 물이 좋은 동네라는 의미를 지닌 '물왕멀' (옛) 지명에서 물결을, 옛 서점이자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뜻의 서사를 합쳐 물결서사라 이름 지었다. 선미촌은 1950년대에 성매매업소가 모인 옛 전주역 주변 동네였다. 2014년 전주시가 '서노송예술촌 문화재생 사업'으로 업소가 들어섰던 건물들을 사들여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물결서사는 그중 네 번째로 사들인 건물에 들어섰다. 이후 7년 동안 물결서사는 흥미로운 서사를 써 왔다. 선미촌의 마지막 남은 업소가 문을 닫았고 김영하, 김애란, 오은, 안희연 같은 쟁쟁한 인물들이 이 책방에서 시와 소설로 꽉 찬 시간을 만들었다. 지금도 시인 이자 책방 주인 임주아가 시인, 문학평론가, 소설가, 수필가, 배우 등 분야를 막론한 예술인들과 함께 이 공간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1층 서점 공간에서 책을 구매하면 2층의 안락한 다락방 한구석에서 책과 나만의 순간을 비밀스럽게 누릴 수 있다. 얼마 전부터 출판사와 함께 문학을 주제로 전시도 열고 있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9-6

☞ @mull296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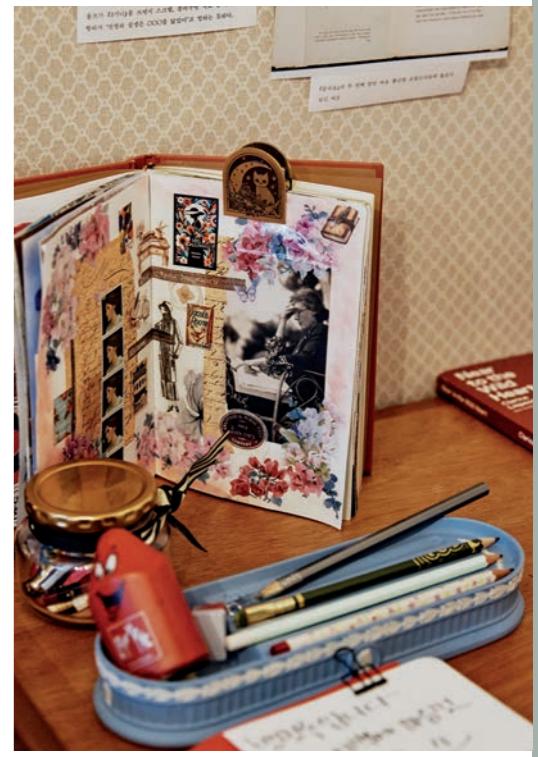


interview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

2019년부터 서점 물결서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점을 통해 문학과 예술 콘텐츠를 만들고 글을 쓰는 저와 '책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는 합이 좋다고 할 수 있죠. 전주는 '책이 삶이 되는 도시'를 지역의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제도와 지원이 탄탄하거든요. 전주시립도서관에서 발급하는 도서관 회원증이 있으면 협약을 맺은 지역 서점에서 20퍼센트 할인받아 책을 구매하는 전주 책사랑포인트 '책쿵20' 같은 제도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전주는 독립 서점 생태계가 탄탄한가요? 현재 독립 서점이 1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양계에서는 전주가 독립 서점이 잘 망하지 않는, 오래 유지되는 지역으로 소문이 자자해요. 올해로 3년째 기획자로 참여하고 있는 독립 출판 북 페어 '전주책페'도 지난 6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독서 애호가에게 권할 만한 전주의 명소를 추천해 주세요. 덕진공원 안에 있는 연화정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보세요. 연꽃이 피는 계절에는 꽃으로 뒤덮인 호수 위에 둑을 떠서 독서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완판본문화관'을 참 좋아해요. 전주에서 출판된 도서 유산을 보전하며 옛 기록과 인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총길동전> <춘향전> 같은 고전 원본을 전시하기도 하죠.

1 '물이 좋은 동네'라는 뜻의 옛 지명 물왕멀에서 서점 이름이 유래했다.
2, 4 시인 임주아가 꿈꿔온 큐레이션한 책을 만날 수 있는 서가.
3 2층에선 출판사와 함께 문학 전시를 연다.



3



4

no.12

JEONJU



건지산

경기전

노매딕 브루잉 컴퍼니 & 노매딕 비어템플

하우스먼트

왕이콩나물국밥전문점 & 하숙영가마솥비빔밥

팔복예술공장

물결서사

WRITER 류진(<해이! 트래블> 기자) • PHOTOGRAPHER 조수민

여성들의 강력한 케미, 워맨스

로맨스와 브로맨스는 가라. 지금은 누가 뭐래도 워맨스 시대다.
남녀 간의 사랑처럼 뜨겁거나 남성들의 우정처럼
피 튀진 않아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은근하고 힘이 센
워맨스 작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의 적은 여자이고,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여전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구태의연한 사람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지금 대중문화,
예전 드라마에서 강력한 키워드는 워맨스(woman + romance)다. 남성들
우정을 다룬 브로맨스(bromance)의 여성 버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은 사뭇 다르다. 브로맨스가 영화 <친구>의 명대사 “아이다, 친구끼
리에 안한 거 없다”처럼 간결하게 압축되는 반면,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를
이해하는 데는 워맨스는 한층 복잡하다고 미묘해 음미하며 곱씹는 맛이 있다.

설 서사물의 지향

문화에서 여성 서사물이 보편화되면서 위맨스 또한 주요 서사로 등장했다. 여성 원톱도 좋지만 투톱, 스리톱 등 여리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스토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상호 보완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인상적이었던 드라마를 둘러보면 '남녀 케미'보다 돋보여 '케미', '여여여 케미' 작품이 많다. 일과 사랑 모두에서 주체적인 여성의 역할을 내세워 한국 여성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 말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가 방영된 게 2019년. <멜로가 체크>(2019)은 주인공의 연애 묘사 이상으로 주인공과 함께 사는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에 집중했고, <마인>(2021)은 주로 경쟁 구도를 이뤘던 동성이나 생모-양모 관계 속 여성들의 연대를 그리며 막장 재벌 드라마 클리셰를 깨부숴 통쾌함을 안겼다. 술 좋아하는 여자 셋을 주인공으로 꾸민 <술꾼도시여자들>(2021)은 방영 당시 티빙 역대 유료 기입 기여자 위를 차지하고 시즌 2까지 제작되는 기염을 토했다.

스의 기세는 2022년 들어 폭발적으로 강해졌다. 손예진-전미도-김현을 내세워 마흔을 앞둔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서른, 아홉>**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미묘한 관계에서 우정을 포착한 **<그린마더스클럽>**, 청소 일을 하며 인생 상한가노리는 미화원 언니들을 보여 준 **<클리닝 업>**, 친자매는 물론 회사에 다니며처럼 지내던 이와의 연대를 그린 **<작은 아씨들>** 등이 쏟아져 나왔다. 그뿐인가.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선 나희도와 고유림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달팠고, **<더 글로리>**에서 '사모님' 문동은과 '이모님' 강혁이 보여 준 피해자들의 연대는 애틋하고도 아름다웠다. 한번 물꼬를 튼 것은 더 큰 물줄기를 형성하기 마련. 2023년, 2024년에도 **<퀸메이커>** **<파트너>** **<정년>** 등 경쟁을 넘어 연대를 꾀하는 위맨스가 계속됐다.

을 넓히며 활장 중인 여성들의 연대

워맨스는 더 넓은 관계성과 더 깊은 감정선을 추구하며 장르의 확장하고 있다. 일찌감치 울해 최고의 드라마라는 찬사를 받은 <미지의 길>을 보자. 쌍둥이지만 서로를 잘 몰랐던 자매 유미지, 유미래가 서로 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큰 줄기로 삼았다. 여기에 미지, 미래의 딸 김옥희와 옥희의 동창이자 의붓아들 수호를 키우는 염분홍의 관계를 그리고, 수십 년간 친구의 이름으로 살아온 김로사와 현상월의 관계를 미리처럼 배치해 오랜 시간 믿어 주고 기다려 주는 우정을 후반부에 진여운으로 폭발시켰다. 대놓고 '코믹 워맨스 활극'을 표방한 <슬롭 드 훔

>도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것 외엔 공통점이 없는 네 명의 여성들이 뭉쳐 아파트 빌런을 응징한다는 내용으로, 코믹한 터치로 접근하되 서서히 서로에게 물들며 상처를 보듬는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한국을 강타한 에로 영화의 탄생기를 여성들의 연대와 성장으로 엮어 낸 <아마>의 상상력은 발칙했고, 두 여성의 10대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춤출히 직조해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음에도 격렬한 감정의 파고를 일으킨 <은중과 상연>은 놀라웠다. 이 중 <은중과 상연>은 그간 다소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던 여성들의 우정의 다층적 면모를 보각해 찬사를 받았다.

1980년대 버스 안내양들이 서로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시대를 <백 번의 추억>과 무난한 인생을 코인 투자로 탈출해 보자는 현실 풍자 코미디 <달까지 가자>에 이어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두 친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 준 범죄물 <당신이 죽었다>까지 나왔다. <당신이 죽었다>는 끝을 모르는 가정 폭력에 목숨을 걸고 연대하는 은수와 희수의 이야기를 담은 범죄물인데, 흥미로운 건 12월 5일 공개하는 <자백의 대가>와 개봉 대기 중인 영화 <프로젝트 Y>처럼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가 범죄와 스릴러물에서 꽂피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왕자와 신데렐라의 일방적 구원 관계가 아닌,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를 구원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대중의 마음을 훑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외에도 40대 여성들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 <다음생은 없으니까>가 방영 중이며, 내년에는 여성 변호사들을 내세운 <아너>와 <굿파트너> 시즌 2가 나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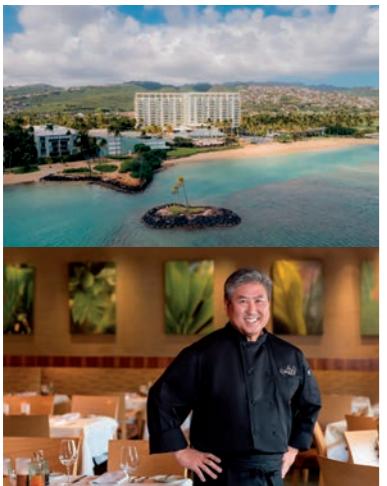
워맨스가 통하는 이유

대중문화 트렌드가 워맨스를 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여성들이 달리졌다. 여성의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20세기에는 로맨스를 통해 여성의 구원과 성장이 이뤄진 반면 지금의 여성은 자신의 힘으로 어디든 나아가려 한다. 그러한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다 보니 여성 서사물과 더불어 워맨스 작품이 많아진 것이다. 낡은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에 상큼하게 한 방 날리는 작품에 지금의 대중은 환호한다. 오죽하면 경쟁을 넘어 증오하는 사이였던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의 하니와 나애리가 2025년 40주년 극장판에선 워맨스를 쓰는 시대가 됐다니까. 시대를 풍미한 관능의 대명사 킴 카다시안과 나오미 와츠, 글렌 클로즈가 남자를 사이에 두고 싸우는 대신 함께 최고의 로펌을 만들어 가는 <올즈 페어: 여신의 재판>이 범영되는 시대란 말이다.

연애가 더 이상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는 것도 한몫한다. 최근 영국판 <보그>에 '남자 친구가 있는 게 창피한 일인가?'란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그만큼 여성들의 연애관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연애가 아니어도 삶이 충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로맨스보다 오래갈 수 있는 연대의 관계성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도 워맨스 붐의 이유로 꼽힌다. 워맨스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켰다. 생활물부터 장르물까지 다양한 변주가 시작된 상황이라 이야기만 담보된다면 확장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기다린다. 식상한 백마 탄 왕자나 재벌 후계자 말고, 내 인생을 망치려온 온 나의 구원자 같은, 신선하고 도발적인 언니들의 이야기를.

TOURISM

VIDEO


**카할라 호텔 앤 리조트,
알란 월스 레스토랑 오픈**

하와이 오아후 섬에 위치한 럭셔리 호텔 카할라 호텔 앤 리조트(The Kahala Hotel & Resort)가 내년 초 새로운 레스토랑 알란 월스(Alan Wong's)를 오픈한다. 하와이 미식의 거장 알란 월 세프는 신선한 현지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하와이 지역 요리를 새롭게 정립한 인물이다. 잘게 다진 생강과 빵가루로 도미를 감싸 노릇하게 구운 '진저 크러스트 오나가', 조개와 하와이 전통 칼루아 포크를 함께 쪼揄스튜 '다백' 등 그의 시그너처 메뉴도 선보인다. 지역 생산자들과 협업해 하와이의 자연을 그대로 담은 팜 투 테이블 다이닝도 소개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kahala_resort_kr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

30여년간 수만 그루의 나무를 치료해온 나무의사 우종영이 자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생태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숨 쉬는 저마다의 존재가 주관적인 세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 주고, 깊은 산자락의 열음과 눈 덮인 땅도 어떤 꽃에는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일러 준다.

우종영 지음 흐름출판펴냄

〈불을 지키는 사람〉

세계적인 SF 거장이자 <삼체>의 작가 류초신이 쓴 동화. 세상의 끝에서 매일 태양에 불을 지피는 노인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험을 떠나는 청년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스토리를 몽환적인 분위기로 풀어낸 곽수진 작가의 그림에도 오래도록 시선이 머문다.

류초신 지음 곽수진 그림 인플루엔셜펴냄

**홍콩관광청, 세븐틴 버논·민규와
홍콩의 나이트라이프 조명**

홍콩관광청이 K-팝 대표 그룹 세븐틴의 멤버 버논과 민규가 빅토리아 하버 일대를 중심으로 홍콩의 나이트라이프를 체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먼저 홍콩을 상징하는 전통 범선에 탑승해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침사추이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플레이밍 베이징덕과 딤섬 플레터를 맛보며 중국 요리 특유의 다채로운 풍미를 즐겼다. 이어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루프톱 바에서 수제 칵테일을 마시며 빅토리아 하버의 야경과 도심의 활기, 다채로운 미식이 어우러진 홍콩의 나이트라이프 매력을 전 세계 팬과 여행객들에게 생생하게 전했다.

홈페이지 discoverhongkong.com/kr



BOOK

〈자백의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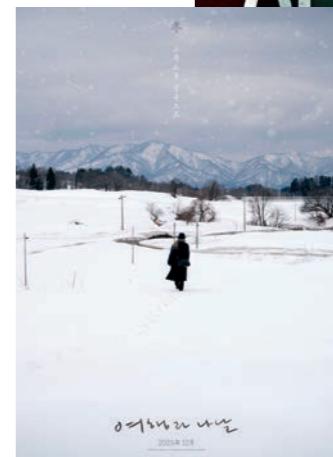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로 몰린 윤수, 그리고 '희대의 마녀'라 불리는 의문의 인물 모은. 윤수를 지켜보던 모은은 그에게 접근해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한다. 윤수의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할 테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 진실을 감춘 자백을 대가로 시작된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 그 사이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이 전개된다. 12월 5일 개봉.

출연 전도연, 김고은 감독 이정호 제공 넷플릭스

〈여행과 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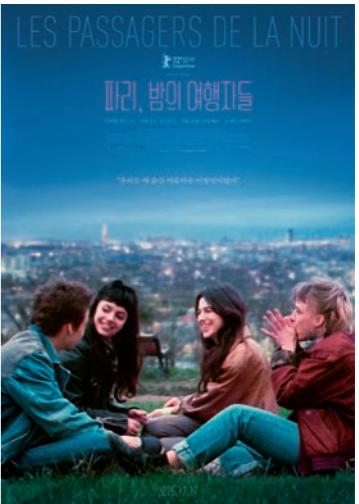
슬럼프에 빠진 각본가 '이'가 도망치듯 설국의 작은 마을로 향한다. 지도에도 없는 깊은 산속의 여관을 찾은 그는 수상한 만큼 무심한 주인 벤조를 만난다. 이후 폭설이 쏟아지는 밤, 벤조를 따라나선 이 앞에 꿈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평범한 여행길에서 삶을 바꾸거나 때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나날을 마주하며 마음 깊숙이 위로받는다. 12월 10일 개봉.

출연 심은경, 타카다 만사쿠 감독 미야케 쇼


〈파리, 밤의 여행자들〉

이후 후 심야 라디오 방송의 전학 교환원으로 일하게 된 엘리자베트가 어느 날 라디오 방송국으로 사연을 보낸 떠돌이 소녀 틸러라를 알게 된다. 우연처럼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관계로 이어진다. 198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상실 이후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이들의 여정을 섬세하게 담은 프렌치 드라마다. 12월 17일 개봉.

출연 샤를로트 갱스부르, 키토 라옹리슈테르 감독 미카엘 헤스


〈사운드 오브 폴링〉

독일 북부의 외딴 농장, 같은 집에서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네 명의 소녀 알마, 에리카, 앙겔리카, 렌카. 시간의 순서를 뒤섞은 서사 속에서 이들의 삶은 마치 하나의 기억처럼 연결된다. 시대가 바뀌어도 반복되는 상처와 고통을 대담하면서도 세심하게 연출했다. 정교한 사운드는 영화의 독특한 느낌을 완성시킨다. 12월 17일 개봉.

출연 한나 헥트, 레아 드린다 감독 마사 실린슈키


〈척의 일생〉

영화화된 작품만 70편이 넘는 할리우드의 이야기꾼 스티븐 킹. '인생의 역작'이라 불리는 그의 동명 소설 <척의 일생>이 옮겨올 스크린에 걸린다. 작품은 인터넷과 도로가 마비된 세상, 정체불명의 인물 척을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 가는 교사 마티의 여정을 그린다. 그 과정에서 영화는 우리 안의 수많은 다양성이 어떻게 삶을 지탱하는지 묻는다. 12월 개봉.

출연 팀 히틀스턴, 카렌 길런 감독 마이크 플래너건



KTX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3회 철도사진공모전 통상 '겨울 관광 열차' © 강은경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 코레일 •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과 승차권 판매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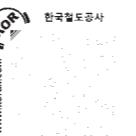


한국철도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여행 예약 플랫폼 클룩과 열차 승차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3월부터 클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KTX와 일반 열차 승차권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코레일 멤버십 회원 가입 없이 자국 언어와 결제 수단으로 예매할 수 있다. 총 15개 언어, 40개 통화, 40개 이상의 간편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주요 역에서 레일택배 서비스 개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역을 지역 생활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비대면·저비용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레일택배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코레일톡·롯데택배 앱에서 사전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역사 내 무인 택배함을 통해 택배를 접수한다. 여행지에서 구입한 특산물을 원하는 곳으로 바로 부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역, 국제철도연맹(UIC) 관광친화상 수상



광명역이 국제철도연맹이 주최한 '2025 최고 철도 관광친화상 시상식'에서 역 서비스(대형 역) 분야 관광친화상을 수상했다. 철도 관광친화상은 철도 관광, 단거리·장거리 열차 서비스 등 7개 부문에서 우수성과 혁신성을 평가해 선정한다. 광명역은 관광객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심 공항 터미널, AI 안내 로봇, 짐 배송 서비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ORAIL

코레일 마음을 있다



한국철도 BEST 어비으 국민 투표

2025년 한국철도공사
최고의 서비스에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한국철도 홈페이지

info.korail.com

2025년 MON 9AM
12월 1일 ~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참여
- 고객참여>서비스제안마당>고객설문
- 참여해주신 고객님께 추첨을 통해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 2매 증정

참여 바로가기
(문의) service@korail.com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KTX 93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식음료 Refreshment	신문 Newspaper
 KTX 112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K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인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의약품 First-Aid Medicine	금연 No Smoking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0분, T2↔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흠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1개월~ 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 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60분 경과 후~ 도착 시각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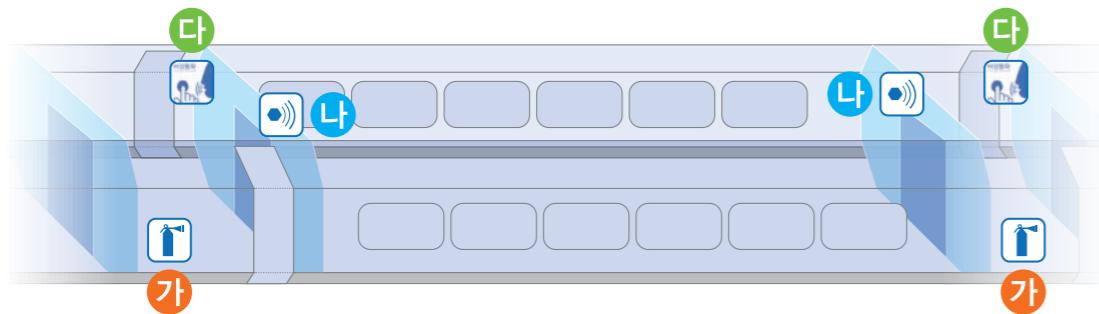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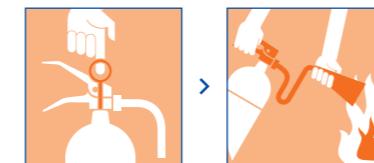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 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 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40%	7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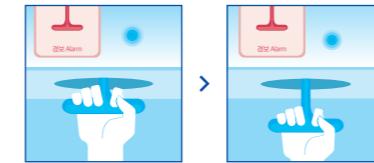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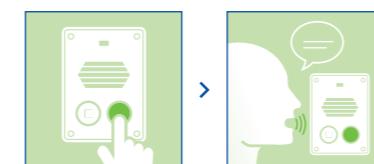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세마을 | **ITX** 마음 | **ITX**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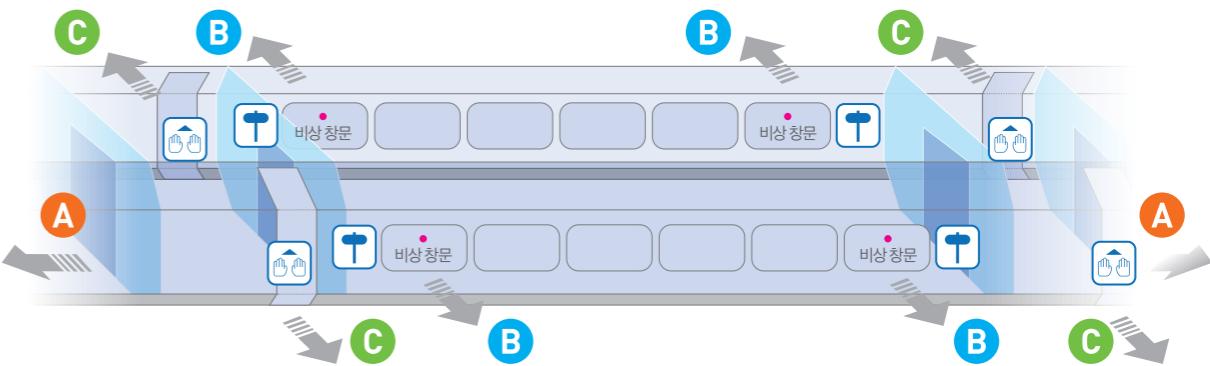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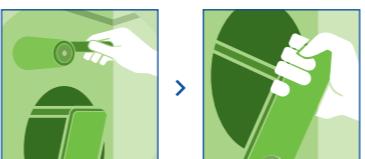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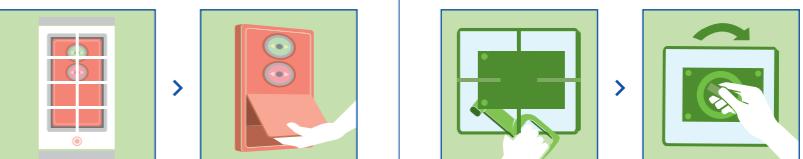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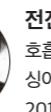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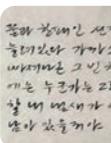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전진희와 떠나는 음악 여행

사계절을 노래하고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 전진희.
그가 선물한 포근한 선율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짧고도 아쉬운 여정에 동행한다.



전진희

호흡과 여백을 사랑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노 연주가.
2017년 정규 앨범 <피아노와 목소리>로
솔로 활동을 시작한 뒤 2019년 정규 2집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를 발매하고
2020년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음악감독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이후
피아노 즉흥 프로젝트 앨범 <Breathing>과
클래식 크로스오버 정규 앨범 <雨後 uuhu>
등 사계절을 세심히 그려낸 음악을 차례로
공개했다. 대표곡으로 '여름밤에 우리'
'Breathing in September' 등이 있다.



음악 듣기

여린 빛을 담은 플레이리스트



Scott Street 피비 브리저스

천천히 흐르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따뜻한 목소리와 기타 선율에 귀 기울이다 드럼과 베이스를 비롯한 다른 악기들의 소리가 더해지는 구간을 만나요. 기차가 푸른 들판을 달리는 것 같아 미소가 지어지죠.



Pastorale 프레드 허쉬

여행길에 오를 때마다 캠핑 듣는 노래예요. 전원곡이라는 뜻의 제목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죠. 봄빛처럼 따뜻하기도 하고, 겨울바람처럼 서늘하기도 한 연주에서 계절감이 느껴져요. 여행의 감상에 꽂 빼저들기 좋은 곡이죠.



Who Knows 대니얼 시저

요즘 대니얼 시저의 새 앨범을 닮도록 애청하고 있어요. 힘을 뺏소리 속에서 마음껏 유영할 수 있는 앨범입니다. 사랑이 불러온 불안함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극복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이 노래는 제 마음 한편에 자리한 불안을 잠재워요.



Death with Dignity 수프얀 스티븐스

제 삶에 배경음악을 틀어놓는다면 주저 없이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선택할 거예요. 첫 번째 트랙에 실린 곡이고, 손끝으로 연주하는 기타의 고요한 아르페지오로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가사가 위안이 돼요.

5月 정원

한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꼭 들어요. 무심한 듯 사려 깊은 피아노 연주에 정원영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해지면 지난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중간에 등장하는 피아노의 인터루드 부분은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저를 데려가죠.



여린 빛 전진희

2025년을 돌아보니 뜨겁게 달려왔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雨後 uuhu> 앨범에 수록된 '여린 빛'을 마음 속에 품고 있었어요. 가난한 마음을 사랑이 깃든 빛으로 이겨내고 싶어 만들었으니, 여러분 곁에도 따스한 빛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시
기
회
전
진
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응원합니다



이토록 즐거운 마을 여행, BETTER里

